

손학규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 1 권

2002. 7. 1 ~ 2003. 6. 30

경기도

머 리 말

손학규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1권과 제2권은 민선3기 전반기 동안 주요 행사에서 행한 연설과 말씀, 언론 대담과 기자회견, 특강의 내용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민선3기 ‘경기호’는 월드컵 4강 신화 창조와 넘치는 국민적 에너지 속에서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경기도에서 일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천명하며 출범한 민선3기 경기도정 앞에는 그러나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추격과 같은 대외적 도전은 물론이고, 투자와 소비의 위축, 불합리한 규제와 정치·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내적 요인과도 힘겨운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손학규 지사는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도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경기호’의 선장으로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경기도의 좌표를 밝혀 준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은 바로 이러한 손학규 지사의 시대를 앞선 도정 철학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1천만 경기도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 낸 결실이었습니다.

민선3기 전반기 동안 손학규 지사는 첨단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매진하여, 경기도를 세계적인 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갈 토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을 방문하여 첨단산업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는 동시에, 경기 동북부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 이 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민 모두가 쾌적한 삶의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잠시도 미루어 둘 수 없는 경기도정의 과제였습니다.

손학규 지사는 난개발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교통·교육·환경 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체계적 개발의 마스터플랜인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과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시행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도민을 위로하고 다양한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민선3기 전반기의 성과를 기초로 또 한번의 도약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선진한국·통일한국을 향한 도정에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땀으로 경기도를 적시겠다”는 각오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달려온 전반기 동안의 발자취를 담은 이 책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기도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공보관
차 명 진

손학규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 1 권

2002. 7. 1 ~ 2003. 6. 30

차 례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13
▶ 경기도지사 취임식 - 2002. 7. 2	
여성인적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	23
▶ 제7회 여성주간 행사 - 2002. 7. 5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젊음	27
▶ 스미스부대 장병 추도식 - 2002. 7. 5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30
▶ 대담 / 경인방송 - 손숙의 만나고 싶은 사람 - 2002. 7. 7	
도의회는 민의의 중심지, 도정의 동반자	52
▶ 제6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 2002. 7. 9	
여성 1등 경기도를 위해	57
▶ 여성 사회교육 과정 입교식 - 2002. 7. 10	
문화산업의 외교, 경제적 효과	62
▶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 2002. 7. 11	

경기도를 ‘세계속의 경기도’ 로	65
▶ 민선 3기 출범에 즈음한 도정연설(제17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 2002. 7. 23	
더 이상 난개발은 없다	77
▶ 인터뷰 / YTN집중조명 - 2002. 7. 23	
경기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견인차	96
▶ 인터뷰 / 차인태의 MBC초대석 - 2002. 8. 14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	106
▶ 인터뷰 / KBS라디오 -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 2002. 9. 3	
농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시켜야	113
▶ 전국농민회경기도연맹 창립 10주년 기념식 - 2002. 9. 5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	117
▶ 제3회 내일을 여는 축제 - 2002. 9. 14	
경로는 고난의 세월을 극복한 분들에 대한 예우	120
▶ 제6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 - 2002. 10. 2	
일류국가의 길 - 경기도가 이끈다	124
▶ 민선3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조연설 - 2002. 10. 7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열정	135
▶ 노인전문 요양시설 ‘감로당’ 준공식 - 2002. 10. 8	
국제경쟁력제고는 정부, 민간의 행동준거	138
▶ 제4회 ‘한·중·일 우호교류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 2002. 10. 16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위해 함께 노력해야	147
▶ 중국 광둥성 중산대학교 특강 - 2002. 10. 18	
안전 시대의 개막	161
▶ 119대축제 개막식 - 2002. 10. 25	
청소년은 나라의 꿈이요 미래	164
▶ 제49회 경기도 4-H경진대회 - 2002. 10. 30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이 살길	167
▶ 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 – 2002. 11. 2	
국제 교역 확대로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172
▶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아·태 지역회의 개최식 – 2002. 11. 12	
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177
▶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아·태 지역회의 환영 만찬 – 2002. 11. 12	
전국체전의 우승은 전도민의 기쁨	180
▶ 전국체전 종합우승 환영식 – 2002. 11. 16	
2003년 경기도정의 화두는 ‘창의’와 ‘힘찬 전진’	183
▶ 2003년 신년사 – 2003. 1. 2	
경기도민이 주인입니다	194
▶ 경기도민회 신년하례회 – 2003. 1. 6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199
▶ 2003년 사회복지관계자 신년인사회 – 2003. 1. 10	
‘경기비전 2006’은 선진 통일 한국의 꿈	205
▶ 2003 연두기자회견 기조연설 – 2003. 1. 15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시대	220
▶ 경기 e-비즈니스 워크숍 – 2003. 1. 17	
2003년은 전진과 성취의 해	225
▶ 2003년 신년 도정연설(제1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 2003. 2. 4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시대적 요구	240
▶ 여성 평생교육과정 입교식 – 2003. 2. 7	
300만 근로자와 함께 발전하는 도정	245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이·취임식 – 2003. 3. 15	
세계화의 기초를 튼튼히	250
▶ 영어 문화원 설립 발기인대회 – 2003. 3. 19	

신뢰와 화합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54
▶ 2003 노사정 등반대회 2003. 4. 12	
민간차원의 인류평화 지원	258
▶ 이라크 의료지원 기자회견 - 2003. 4. 14	
기능인은 국부의 초석	260
▶ 기능경기대회 - 2003. 4. 16	
21세기형 보육시스템을 생각할 때	264
▶ 보육실무자 연찬회 - 2003. 4. 18	
21세기는 인간중심의 시대	267
▶ 제23회 장애인의 날 행사 - 2003. 4. 18	
위기를 기회로	271
▶ 2003 고양세계꽃박람회개막식 - 2003. 4. 24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276
▶ 2003 근로자의 날 기념식 - 2003. 5. 1	
어린이는 희망의 상징	281
▶ 제81회 어린이날 - 2003. 5. 3	
안보는 국가 발전의 초석	284
▶ 인터뷰 / 국방일보 - 2003. 5. 3	
쾌적한 환경보전은 시대적 책무	289
▶ 환경NGO 경기북부권역 간담회 - 2003. 5. 16	
첨단 지식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293
▶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개원식 - 2003. 5. 26	
첨단지식산업의 요람 '경기 테크노파크'	296
▶ 경기테크노파크 개관식 - 2003. 5. 29	
바다에는 무한한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300
▶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 - 2003. 5. 29	

차를 따라주는 정치인	304
▶ 인터뷰 / 월간조선 – 2003. 6월호	
세상의 절반을 이끄는 사람들	330
▶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 2003. 6. 3	
이제는 환경을 위해 행동할 때	333
▶ 제8회 환경의 날 – 2003. 6. 5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338
▶ 인터뷰 / 조선일보 – 2003. 6. 18	
과감한 규제혁파만이 살 길	342
▶ 인터뷰 / 주간동아 – 2003. 6. 19	
자랑스런 호국의 간성, 맹호부대	347
▶ 맹호부대 창설 54주년 행사 – 2003. 6. 21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US Relations	350
▶ CSIS / KEI Address – 2003. 6. 24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EU Relations	364
▶ 2nd Korea-EU International Conference – 2003. 6. 2	

손학규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 1 권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희망, 그것은 <나도 할수있다. 하면된다>는 자신감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긍지, 이것이 바로 희망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땅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에 올려 놓읍시다.”

존경하는 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4년간 경기 도정을 이끌어 갈 민선 3기 ‘경기호’가 출범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뜨거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경기도민들과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 주신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월드컵 축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제4위의 위업을 이룩한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국민들에게 한없는 긍지와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할 수 있다'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월드컵에서 결집된 국민적 에너지와 경기도민의 엄청난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위대한 '경기호'를 새로이 출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경기도민과 우리 국민은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부정과 부패, 오만과 독선을 준엄히 배격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희망을 좇는 경기도민과 우리 국민 모두의 절실한 몸짓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월드컵과 지방선거 승리의 환희와 감격을 털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좇아 나서야 합니다. 희망,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신 용인에 있는 홍진 크라운의 홍완기 회장님, HJC라고 하는 유명한 브랜드로 헬멧시장에서 세계 최고봉을 이룩한 이분은 분명 우리의 희망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30년을 오직 외길로 헬멧에 바쳐서 세계 최대, 최고의 헬멧을 만들어낸 홍 회장님, 이분은 아직도 헬멧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일년에 100억원씩 쏟아 넣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대한 사랑과 긍지, 이것이 바로 희망의 원천입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3살에 맨주먹으로 서울에 혼자 올라와 어린 몸에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나르며 용접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작기는 하지만 이제 내 공장을 갖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소중히 가꾸는 김포의 배옥렬씨, 이분에게서 우리는 끝없이 희망을 좇아가는 끈질긴 노력을 봅니다.

제가 25년 전 독재정권의 탄압을 피해 서울 합정동 철공소에서 위장취업을 할 때 만난 이 분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 보이기만 하는 우리의 농촌에도 강렬한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경기도 최북단 포천군 관인면 중리. 초등학교도 한 학년에 한 학급씩 겨우 명맥을 이어가며 혹시 폐교가 되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는 동네 주민들.

그러나 이 동네 ‘교동마을’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 한 점 널려있지 않고 집집마다 꽃을 심어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 수년 전까지만 해도 술과 노름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이 마을은 이수인

씨와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술병과 화투를 빼앗아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어른들과 사투를 벌이며 희망을 창조해 나간 장한 농촌 젊은이들의 신화였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희망을 열어가는 것은 이분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강당을 가득 채우신 평범한 경기도민 속에서 우리는 무한하고 새롭고 힘 있는 희망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 저 손학규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잠겨있는 무한한 희망을 현실로 일구어 나가기 위해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대 공룡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유럽은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면 제2, 제3의 IMF 위기가 다시 찾아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국제관문으로 수원·이천·용인에 세계적인 전자·반도체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통신·IT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거대한 소비시장에 낮은 물류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배후단지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훌륭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경기도를 21세기 한국의 견인차, 동북아 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거대한 중국시장, 동남아 시장은 물론 선진국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힘 있고 경쟁력 있는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에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지역별로 전문화된 물류기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첨단 인프라 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간의 국제 교류를 촉진시키고 수출, 외자유치 등의 경제통상외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기업하기 편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합리적인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없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도 국가경쟁력의 강화도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최

적의 투자 대상지로 바꾸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편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그 동안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경기도의 문제점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경기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도민 여러분을 위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다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급속한 인구증가를 교육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여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도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내 전철의 연장 과 운행시간의 연장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교통관리 시스템을 서울, 인천시와 연계하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우선의 청정 경기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경기도의 환경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수도권 환경 정책의 최대 과제인 수질관리와 대기환경 보전,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도민·기업·중앙정부 및 인접 자치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 외자 유치의 활성화 등 환경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면서, 중소기업의 오염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북부와 동부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점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전략적 개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파주 자유도시 개발과 물류기지 건설, 관광자원 활용 등 경기북부를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중복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영어마을’, 대학촌 신도시 등 환경적 청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첫 공식 행사를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해군 장병들

의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북 상잔의 아픔이 남아 있고,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지향하는 경기도는 통일시대의 전진기지이면서 동시에 안보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 요소가 집결되어 있는 갈등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주인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기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경기도민을 하늘 모시듯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도정의 최우선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도정운영의 첫 번째 지표로 삼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가 경기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아끼고 내 일처럼 세세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내 집 앞마당만 내 재산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내 땅이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3만 3천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저 도지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의 주인으로 꼭듯이 모시겠습니다.

참여와 자율을 행정의 기본 틀로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기본입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주인된 자세로 도정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타율과 피동적 상명하복의 자세로는 경기도의 희망을 일구어 낼 수 없습니다. 자율과 창조적 참여만이 일등 경기도를 만들어 내고 여러분 스스로 보람을 찾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기도를 세계적 선진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번 월드컵에서 세워 놓은 희망과 자신을 경기도에서 현실로 이룩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웁시다.

희망의 땅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에 올려 놓읍시다.

도민 모두가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그리하여 ‘업그레이드 코리아’라는 시대적 소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여성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경기여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7회 여성주간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성지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민선 3기 경기도지사로 선출하여 주신 여성 여러분들을 비롯한 천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활동해 오신 여성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훌륭한 어머니, 봉사, 예능, 신지식인으로서 여타 여성의 귀감이 되어 오늘 영예의 ‘경기여성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과 여성발전 유공표창 수상자,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예경진대회에서 입상하신 여러분에게도 아

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섬세한 감각과 유연한 사고력 그리고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여성의 역할과 참여확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 동북아시아의 거점지역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성(性)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에서의 남녀불평등,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불이익 등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성차별적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평등사회 구현이야말로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전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임기중에 착실히 실천에 옮겨나갈 것입니다.

첫째, 여성정책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정보운영과 국제교류협력 증대를 위하여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둘째, 대졸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도 출연기관에 대해 여성취업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여성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전문인력 취업센타 설치 등 고학력여성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 수요요구를 충족시켜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대상 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여성 여러분!

이제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성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참여 없이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진취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잠재된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때 여성이 21세기 주역으로서 굳건히 자리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여성주간행사가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경기여성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대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를 경기도지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성 여러분과 천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젊음

“우리는 52년전 타국의 하늘 아래에서 젊은 꿈을 접은 181인의 희생으로 지켜진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야 하며, 이분들이 온몸으로 지킨 가치의 토대위에서 21세기의 역사적 소명인 남북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한 미군사령부 제프리 디 밀러 장군님!

그리고 이곳 죽미령에 모인 한미 장병 및 내외 귀빈여러분!

오늘은 52년 전 이곳 죽미령에서 북한군을 맞아 장렬히 산화하신 스미스부대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장병여러분의 영령 앞에 삼가 옷깃을 여미고, 1천만 도민과 함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오늘도 변함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시는 한·미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 죽미령은 52년 전 북한군의 기습적인 불법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미군이 적과 처음으로 교전하여 181명의 젊은이들이 산

화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또한 세계평화 수호라는 UN 창립의 목표가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난 매우 의미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자 매년 추도식을 거행해왔고, 자유와 평화를 위한 값진 희생을 본받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류평화와 번영을 위해 세계 곳곳의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미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이념과 지역간, 인종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존질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간의 반목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산가족과 경제·문화 교류 등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지난 6월 29일 우리나라의 영해를 의도적으로 침범하였고, 우리 해군을 선제 기습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으며, 전함 1척을 격침시키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비교우위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방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숨겨간 181인의 넋을 기리는 오늘 이 자리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52년 전 타국의 하늘 아래에서 젊은 꿈을 접은 181인의 희생으로 지켜진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하며, 이분들이 온몸으로 지킨 가치의 토대 위에서 21세기의 역사적 소명인 남북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추모 행사가 확고한 안보의식을 다지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생각해보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모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신원 오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IT산업은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발전, 경기도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손숙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함께 가장 격전지가 됐던 곳이 경기도였습니다. 인구 천만의 새로운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그런 기회였던 만큼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격전 끝에 새로운 경기도지사로 탄생하신 손학규 지사님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도지사 :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 다시 한번 취임 축하 드리고요. 지난 2일날 취임식을 하셨죠?

도지사 : 월요일, 7월 1일이 공휴일인데 그날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해군장병들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은 7월 2일에 했지만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 임기 첫 행사를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있었던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 딱 일주일 지나셨는데 어떠세요? 일주간에 도정 생활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

도지사 : 보통은 선거 때가 바쁘고 선거 끝나면 한숨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취임 전까지 정말 바빴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거든요. 또 지구당으로 보면 41개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연천 포천 2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 46개가 됩니다.

잠깐 잠깐이라도 가서 당선 인사를 드리는데 꼬박 닷새 걸렸습니다. 하루는 포천에 가서 밤 11시에 인사를 끝내고 하룻밤 자고 아침 7시에 다시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는 업무 보고를 사전에 받는데 경기도가 얼마나 큼니까? 업무보고까지 해서 취임 일주일만 단숨에 지나갔습니다.

진행자 : 전에 한번 제가 친한 동료가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하도 한번 와 줬으면 해서 그 동료 때문에 한 시간 가량 시장을 돈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찍어 주면 선거 끝나고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하고 직후하고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아, 그것도 끝난 후 마무리가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도지사 : 선거구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또 일단 당선이 되면 일일이 인사를 선거운동 때처럼 다니면 일을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사는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아주 시작을 깔끔하게 하셨는데 어떠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같이 선거를 하셨던 진념 후보 쪽은 경제 도지사론을 내세웠고, 손학규 지사님은 민생 도지사

론을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생 도지사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추려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도지사 : 경제 도지사나 민생 도지사나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가 됐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27%다, 그 중에서 IT산업, 첨단지식산업은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 한사람 한사람은 그러한 경기도 위상에 맞게 특히 경제적인 비중에 맞게 거기에 걸맞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말해서 애들이 커가는데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야 되겠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분들, 특히 신도시 주민들은 반 이상 서울로 출퇴근 합니다. 출퇴근에 하루 3시간이상 걸린 다든지 그러면 경기도가 외형적으로는 부자 경기도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챙기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러한 도정을 뜻하는 민생도지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베드타운만의 역할이 아니라 거기서 생활하는 삶의 질을 높여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도지사 : 그렇죠. 지금 베드타운 말씀 하셨습니다만 설사 남편이나 또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잠만 잔다고 하더라도 거기 살고 있는 주부들, 또 학생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은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행자 : 그렇죠.

“수도권의 경쟁력을 과감하게 강화하고 그 파급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부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에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도지사 : 여가선용도 해야 될 것이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문화 생활도 하고, 재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저녁에 편안하게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연극 하나 보기 위해서 꼭 서울로 가야 되는 이런 경기도가 돼서는 이제는 잘 사는 경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실제로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행자 : 정말 아주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많은 경기도민들이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문화생활을 하기위해서 서울로 꼭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다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도지사 : 그렇죠.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습시다만 과거에는 경기도에 산다는 것 자체, 주소가 경기도라는 것, 자동차 번호가 경기 번호판이라는 것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좀 숨기고 싶어하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완전히 서울의 부속물로 서울에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지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또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즐기고 쓰레기 버리고 돌아가는 곳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안 되고, 실제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선거때나 선거후 “나도 경기도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진행자 : 그러다가 서울 시민들이 전부 경기도로 나오면 또 어떡합니까?

도지사 :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포화 상태 아닙니까?

진행자 : 그렇죠.

도지사 :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는 신도시들은 실상 많은 인구가 서울에서부터 이주해온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컸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극성스런 교육열에서 해방된 분들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경기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고, 문화 생활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굳이 서울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 교통지옥도 해결됩니다. 그것이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고, 또 새로운 산업은 서울에 들어 갈래야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최적지가 이 수도권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인력들이 경기도에 모여 첨단산업이나 지식기반 산업이나 또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업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발전,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행자 : 지사님으로 취임하셔서 생각해 본 경기도의 가장 큰 당면 과제가 어떤 겁니까?

도지사 : 크게는 경기도가 경쟁력을 가져야지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공장들 전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삼성과 같은 앞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꼭 그렇게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첨단 산업은 미국이나 유럽에 아직 못 미치는 게 많습니다. 철강이다, 조선이다, 자동차다, 반도체다, 석유화학이다 이런 것을 갖고 버텨왔는데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그것은 중국에다 거의 경쟁력을 뺏긴다고 하는 이런 우려 섞인 보고서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다 공장총량제다 해서 온갖 규제로 전부 다 꽂꽂혀 있습니다. 경기도에 중요한 군사 시설이 많으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또 서울에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다 이유가 있는 규제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 인위적인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를 떼면 금년도에 수원시에 공장을 더 세울 수 있는데 공장총량제 때문에 수원에 금년에 공장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게 전부다 300평밖에 안됩니다. 광명시나 과천시 같은 데는 500평방미터니까 한 150평정도, 집 한채 정도밖에 공장을 더 증설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면 수도권만 발전하고 인구가 과밀되고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의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공장들마저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습시다만 손숙 선생님, 우리나라 오토바이 헬멧이 세계 최고라는 것 알고 계세요?

진행자 : 저번에 얘기들은 것 같아요.

도지사 : H.J.C라고 세계에서 제일 고급 브랜드인데 하나에 한 300불 된답니다. 그 H.J.C가 세계 전체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가 이탈리아인데 7% 정도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더 생산을 하고 더 고가품을 만들고 싶어도 공장총량제에 걸려 더 이상 공장을 더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공장을 쪼개느니 아예 중국에서 한 2천명 고용해서 거기서 생산하고 여기서는 이만큼만 하고 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자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방하고 경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 경기도하고 상해, 경기도하고 동경권, 이렇게 경쟁을 해야합니다. 때문에 우선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수도권 정책을 개선해서 경기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지사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이라든가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부득이하게 또 중앙부처의 정책이랑 부딪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앙

“우리 경기도는 지방하고 경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 경기도하고 상해, 경기도하고 동경권, 이렇게 경쟁을 해야합니다.”

정부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그것은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지요?

도지사 :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부딪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책이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지요. 중앙정부에서는 전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제대로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인구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가니까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완전히 공동화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문제죠. 그거 해결 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인위적인 규제만을 가해서는 공장이 경상도나 전라도로 가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빠져갑니다.

진행자 : 외국으로 가는 거죠.

도지사 : 그렇죠. 아니면 아예 기업하기를 포기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으로 눈돌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경쟁력을 과감하게 강화하고 그 파급 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부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에 더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의 차이나 정책과 접근의 차이가 있더라도 끈질기게 설득을 해 나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면 어렵지만 가능하고 또 그렇게 많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사님, 꼭 그렇게 잘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공약 사항들을 보니까 눈에 반짝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영어마을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경기도도 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 : 우선 영어마을의 취지에 대해서 이런 오해는 마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영어 점수 높이기 위한 거다, 즉 대학입시에서 영어 점수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려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중화학 공업으로 그 동안 살아 왔는데 이것만 갖고서는 좀 불안합니다. 중국이 저렇게 13억 인구에다 거대한 땅덩어리가 큰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 방법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형성해서 동북아시아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유럽의 관문 네덜란드 그러면 모든 물자가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나가고 따라서 비즈니스가 생기고 가공산업이 근처에 형성이 되고, 국제적인 타운이 생겨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큼니까? 결국은 사람이 자원이거든요. 히딩크 보셨죠? 히딩크 TV에 나오는데 영어 잘하죠. 그 사람 영어가 아주 제대로 된 영어입니다.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닌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평균 영어 수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어뿐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서 동북아시아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도록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산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부터 중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다, 캐나다다, 호주다, 영국이다 이렇게 연수를 나갑니다.

진행자 : 지금 방학이라 많이들 나가더라고요.

도지사 : 저는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외국인과 직접 생활하고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 영어 학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캠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면 실제 미국이다, 영국이다, 캐나다다, 오스트레일리아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우체국도 가서 영어로 써야 되고, 또 식당에 가면 영어를 하고, 매장에서도 영어로 하고, 학교 같은 것도 만들고, 스포츠 시설이나 놀이시설까지 영어로 하고 심지어는 지금 생각으로는 파출소도 영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섞여서 한 타운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

진행자 :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도지사 : 그렇죠. 지금 본격적으로 특별 태스크포스팀 즉 영어마을 조성 전담반을

만들어서 위치 선정,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중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만 갖고 안됩니다. 그것이 꼭 바람직하지도 않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행자 :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그런 마을이 생겨날까요?

도지사 : 제 욕심으로는 제 임기 전에는 마을이 형성이 돼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그런 마을이 생긴다면 저도 몇 달쯤 거기 가서 살면서,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도지사 : 물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몇 개 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살고, 외국인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거기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살면서 영어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은 서울 자기 직장에 다니고 부인이 그 지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사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경기도의 좋은 자연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첫 번째로 찾는 것이 생활 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입니다.

진행자 : 지사님이 당선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마 아이들을 가진 많은 부모들이 굉장히 그런 정책에 공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좀 계획대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자 : 경기도의 또 하나 문제가 교통 문제 같아요. 그런데 24시간 전철 운행, 또 24시간 도심 직행버스 운행, 이런 공약을 내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자가 많이 쌓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 물론 심야에도 출퇴근 시간처럼 5분에 한 대, 7분에 한 대 이렇게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심야에는 이를테면 2시에서 3시까지다, 2시에서 4시까지다 하는 심야에는 20~30분에 한 대, 40분에 한 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시간표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졌고, 야간문화 활동 인구가 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극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진행자 : 그럼요. 문화 활동이 밤에 많죠.

도지사 : 네. 저희 딸도 연극 공부를 하는데 새벽 2시, 3시에 끝나고 그러면 집에서 전부 불안해하는 겁니다.

진행자 : 불안하죠. 예.

도지사 : 택시값이 없어서도 불안하지만 택시값이 있어도 택시 타기도 힘들고 택시 타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야간 버스나 야간 전철이 운행되면 야간 경제활동이 그만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발달합니다.

지식산업 사회로 갈수록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이 개념은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앞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뉴욕에는 24시간 전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진행자 :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 예. 재정문제는 둘째라고 봅니다. 공익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공사업이고, 또 경제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공공사업이고,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경기도의 재정으로 심야 전철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파악하기로는 6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저는 충분히 거기다 투자할 수 있고, 비용으로 조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증 요금 같은 것을 더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나 철도청의 마인드입니다. 경기도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서울 한가운데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수원이다, 용인이다, 수지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안산까지 지금 전철이 다니고 있는데 11시 반이면 전철 끊어집니다.

진행자 : 영등포에서 총알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도지사 :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특히 신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곳을 전철이나 광역버스가 운행하도록 하는 것, 그 필요성과 경기도의 지원 의지 이런 걸 갖고 꼭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진행자 : 인사 문제도 상당히 인상적인게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기사를 봤는데 정무부지사인가요?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시던 한현규 비서관을 발탁하셔서 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 비서관님은 당으로는 다른 당이죠? 어떻게 됩니까?

도지사 : 그 사람은 당적은 없습니다. 직업 공무원입니다. 행정고시 20회로 건설부에만 쫓 있던 분입니다. 건설부에 있으면서 청와대에 파견나갔던 거죠. 그런데 건설부에서 아주 유능한 공무원으로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서 첨단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국제비즈니스를 더 유치하고, 영어마을도 만들고, 또 전철도 더 연장하고, 전철 운행 시간도 더 연장하고 이렇려면 그게 전부 건설과 교통,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물론 인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정무부지사를 자기 정당, 또는 도의회, 언론 관계를 고려하여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도권의 토지 이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우리 경기도가 설득하고 경기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언론 관계나 의회 관계나 그런 것은 내가 정치인 출신이니깐 내가 담당을 하마,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찾는데 마침 한현규 비서관이 경기도 발전에 대해서 또 수도권 토지이용에 대해서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과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없겠느냐, 경기도에서 일할 수 없겠느냐”고 타진했지요. 이 분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몇 년 안에 장·차관 할

“문제는 인사권자의 자세입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할아버지라도 내가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청와대에서 인사 압력 못 넣습니다.”

사람으로 건설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자기가 생각해도 경기도가 중요하다,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청와대 비서관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해서 청와대 경제수석한테 내가 이 사람을 쓸테니 절차적으로 좀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행자 : 저는 또 개인적인 걱정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정부하고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도지사 : 저 자신은 지방자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당차원의 대결의식 이런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행자 :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되겠죠.

도지사 :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러 왔습니다.

진행자 :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요즘 보면 현직에 계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끝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여러 가지 혐의에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세요?

도지사 : 참 불행한 일이죠.

진행자 :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가요 아니면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답답하더라고요.

도지사 : 개발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비리 같은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 제 생각에도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묘한 로비에 걸린다던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도지사 : 제가 엇그저께 우리 경기도 도청 직원 월례 조회때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도지사가 도 직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물론 제일 큰 우리 모두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그러나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모실 테니까 대신 주인 행세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리라는 것은 그만큼 쉽게 말해서 원가를 잘라먹는 겁니다. 재료비를 잘라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부실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내 건물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을 북돋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인사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인사 정책에 대한 기본 플랜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 한 가지입니다. 공정입니다.

진행자 : 이번에 히딩크가 국민 영웅이 된 게 그런거였던 거 같아요.

도지사 :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그리고 인사라는건 어차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보람있는 자리들, 상대적으로 어느 자리가 좀 더 낫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 사람이 이 자리를 원하면 한 사람만 택했을 때 아홉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못 가서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나 인성 파악 같은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사심을 갖지 않고 하면 됩니다. 인사권자가 사심을 갖지 않고 인사권자가 족대를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 개인적인 청탁이나 개인적인 무슨 정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가장 적합한가,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이력이나 경력을 봐서 이 사람이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을 앓힘으로 해서 그 역할도 제대로 되고 주변도 잘 돌아간다,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와 관련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최선이겠지요.

진행자 : 보건복지부장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혹시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그런 압력을 받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인사 문제에서?

도지사 : 제 자신은 압력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청탁이나 또는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압력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행자 :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지사 : 그냥 안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는 보통 하는 얘기로 빠삭합니다. 누가 누구 뺨 갖고 있고 누가 누구 연줄 갖고 있고 누가 누구를 물고 들어오고 다 압니다. 인사 압력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솔직히 얘기해서 청와대입니다.

진행자 : 그렇죠.

도지사 : 청와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력자가 분명히 누구를 천거했을 텐데 인사 결과가 딴 길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 우리 손학규 장관이 그런 인사 압력에 놀아나지 않았구나 하는 일차적인 신뢰감을 갖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요청을 하거나 또는 고려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무조건 NO!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사권자의 자세입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할아버지라도 내가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청와대에서 인사 압력 못 넣습니다.

사회자 : 이번 월드컵 정말 대단히 성공리에 끝났는데 수원에도 경기장이 있고 인

천도 있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축구대표팀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까?

도지사 : 경기도에서는 수원에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큰 일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체육을 진흥시키고 축구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앞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다행히 경기도에는 수원에 삼성 축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월드컵 축구장을 상당히 이용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관계는 앞으로 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행자 : 어디에 박지성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도지사 : 아, 박지성 도로. 박지성군이 한 골을 넣어 갖고 우리가 16강으로 진출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 가장 멋진 골이라고 그러죠.

도지사 : 예. 아주 골 넣을 때도 멋있게 넣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 갖고 왼발로 올려서 돌리면서……

진행자 :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멋진 골이었어요.

도지사 : 그런데 그 때가 마침 제가 당선된 다음날입니다. 격려차 방문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수원시장도 오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장한테 여기가 아주 교통이 제일 형편없는 데라고 도로를 뚫어 달라고…… 수원시장 당선자도 여기 도로가 꼭 뚫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전 자료나 정보는 없었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대겠다, 그 이름을 박지성 도로라고 붙이자, 그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효로도 원효대사, 충무로도 충무공에서 따왔습니다.

진행자 : 세종로도 그렇고.

도지사 : 우리 박지성군, 물론 지금 21살의 젊은 축구인을 위인으로 추켜 세우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런 젊음, 투지가 있고 순수하고 그런 것을 우리의 새로운 축구인이나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으로 키워 줄 수 있거든요. 박지성 도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진행자 : 아니, 전 그런 건 참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운동 선수들은 그렇게 다 이름도 나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웃음)

진행자 : 예술과 조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번 들더라고요.

도지사 : 우리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또 그런 표상이 되고 이런 분들을 서로 북돋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죠.

도지사 : 학교에도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나 크게 기여를 하신 분들 기념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껴 주는 마음입니다.

진행자 : 손학규 지사님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 잘 웃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지사 : 너무 웃는다고 웃지 말래요. 그래서 좀 이제 근엄하게…… (웃음)

진행자 : 저는 그 웃으시는 게 매력이고 새로운 정치인 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웃으셔야죠.

도지사 :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인위적인 권위, 권위주의에 의한 리더십보다는 민주적이고 같이 어울리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렇죠. 그러면서도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흘러서 제가 여쭙 보고 싶은 게 사실은 많은데 다 여쭙 볼 수가 없고 다음에 한 번 기회를 내 주시고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취임 인사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셔서 이렇게 당선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기도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기도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당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섬길 테니까 도민 여러분께서는 꼭 주인 행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일이다, 내 일로 우리 도지사에게 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네. 지금까지 손학규 지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 앞으로 4년간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다 충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일요일날 다시 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의회는 민의의 중심지, 도정의 동반자

“21세기에 국가발전을 이끄는 것은 지방이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세로 이제까지의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제도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6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는 기쁘고 희망찬 날입니다. 이 뜻깊은 개원을 1천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높으신 인품과 경륜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첫 임시회가 열린 이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제2대 의회가 강제 해산되었다가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1991년 7월, 30년 만에 제3대 도의회로 부활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경기도의회는 지역 현안의 해결과 갈등조정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역량을 발달시킴으로써 광역적 지방자치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았

습니다.

특히, 관내 31개 시·군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는 큰 일꾼으로서 민意的 수렴과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 및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로 일컬어지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세계적 무한경쟁에 대응하여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과 협력,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3기 집행부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먼저, 도민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서는 ‘업그레이드 코리아’라는 시대적 소명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에너지와 애국심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으며, 세계적 보편에 대한 감수성과 사해동포주의적(四海同胞主義的) 평화의식이 바로 우리들의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인들의 마음 속에 ‘꿈과 열정, 도전과 희망의 코리아’라는 국가이미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국운상승의 기세를 이어 경기도를 21세기 한국의 희망, 동북아 시대 선도 자치단체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에 국가발전을 이끄는 것은 지방이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세로 이제까지의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제도를 혁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최적의 투자 대상으로 바꾸어, ‘기업하기 가장 편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민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민생문제 해결과 경기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교육기반을 확충하는 등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서울, 인천시와 연계하여 광역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환경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환경기초시설 건설지원 확대 등을 통해 환경우선의 청정 경기도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협력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경기 동부지역에 대해 규제혁파와 더불어 환경 친화적 산업을 일으키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주인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기도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주체적 참여는 우리 도를 세계속의 일등경기로 변화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지방의회는 지역갈등의 조정과 통합, 주민참여, 행정통제, 지도자 육성 및 정치교육 등 실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역 의제의 형성에서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중심지입니다. 때문에 지방의회의 성공은 지방자치에 있어 절반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도의회에 대해 도민중심의 의정활동과 지방시대의 선도역할 및 지방경영의 적극적 후원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 이해관계의 다양화와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지방간 경쟁의 심화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의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넘어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새로운 의지

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 간의 도정운영에 있어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무엇보다도 강조점을 두겠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요, 최고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민사회의 등장과 각종 사회집단의 분출은 새로운 갈등관리 기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토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기능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경기도정이 21세기 세계일류 선진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도가 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국가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협력의 도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비판에 대하여도 이를 도민의 꾸지람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6대 경기도의회의 개원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1등 경기도를 위해

“21세기에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 참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미래를 위한 준비로써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1세기를 미리 내다보는 여성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여성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종합복지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여성회관의 제2차 여성사회교육과정에 입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민선 3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성 여러분들을 비롯한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지사로 취임한지 며칠 안 돼 여러분의 교육 개강식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교육생 여러분의 굳은 신념과 열의에 찬 모습을 뵙게 되니 경기도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아낌없는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21세기에는 여성적 패러다임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과거 남성 중심적 지배의 근대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평화,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여성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21세기의 중요한 덕목으로는 이성과 계산된 합리성보다는 그동안 여성적 특성이라고 경시되어 왔던 감성, 섬세함, 유연성, 돌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의 역할이 21세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아직까지도 사회적 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1세기에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참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미래를 위한 준비로써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1세기를 미리 내다보는 여성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1994년에 신설된 여성특별위원회 창설멤버로 활동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을 때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여성문제에 대하여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절반인 여성도 남성과 더불어 사회발전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환

경과 시스템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갈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임기 중에 착실히 실천에 옮겨나갈 것입니다.

첫째, 여성정책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정보운영과 국제교류협력 증대를 위하여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둘째, 대졸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해소를 위하여 도 출연기관에 대해 여성취업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여성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전문인력 취업센터 설치 등 고학력여성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 수요요구를 충족시켜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대상 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을 위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세계적 선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전철의 연장과 운행시간의 연장, 광역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들의 교통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경기도의 환경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수질관리와 대기환경 보전,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환경 우선의 청정경기도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기북부와 동부개발에 역점을 두어 북부에는 파주 자유도시개발과 물류기지건설, 관광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고, 동부에는 ‘영어마을’ 대학촌 신도시 등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을 모색 하여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약사항과 당면 추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해결과제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3만3천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경기여성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기도민을 하늘 모시듯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도정의 최우선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가 경기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여성사회교육을 통하여 여성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21세기 여성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경기여성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입교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성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산업의 외교, 경제적 효과

“한편의 영화가 수십, 수백명의 외교관이 할 수 없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수행한 예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듯이, 영화는 한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팬들을 ‘사랑 · 환상 · 모험’의 세계로 초대하는 제6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의 성대한 개막을 1천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가해 주신 국내외 내빈과 영화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천시민과 도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원혜영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7년에 시작한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로 여섯 돌을 맞아 성숙한 모습으로 부천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영화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를 사랑하고 부천과 경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다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한 나라가 가진 문화적 잠재력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종합예술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가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국 공통의 언어입니다.

한편의 영화가 수십, 수백 명의 외교관이 할 수 없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수행한 예를 우리는 종종 보아 왔듯이, 영화는 한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영화의 이러한 문화적·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과 같은 영화산업 진흥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산업과 같은 첨단 문화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여 여러분이 마음 놓고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일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4강 신화를 이룩한 것은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과 정신력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의 결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화제가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여 부천이 그리고 경기도가 우리나라 영상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서 전 세계 영화 매니아들로부터 더욱 권위를 인정받고 사랑 받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제6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번 영화제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천시와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부천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합리적인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도 국가 경쟁력의 강화도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6대 경기도 의회가 개원한 이래, 원숙하고 효율적인 원 구성과 운영의 모범을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 의회에서 민선3기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저와 의원 여러분은 국민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선거 현장을 누비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1천만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도 역시 도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민선 3기 경기호의 앞길에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도정보고를 통해 이 시대가 경기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IMF 체제의 국가 경제위기 사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 사회의 구조적 특성 뿐만 아니라 잘못된 수도권 정책, 특히 경기도에 대한 규제정책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세계화로 축약된 90년대의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물론 미국·영국 등 선진국조차도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공장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장 건축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면서까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자본과 기술,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입지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각종 이유로 규제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입지하려던 국내 기업은 지방을 선택하기보다는 동남아나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외국 투자자는 까다로운 경기도보다 중국의 상해를 위시한 동남아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바로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IMF는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어떠합니까?

정보통신의 발달, 국제화의 진전, 지식경제의 등장은 세계를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유럽은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 결여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면 제2, 제3의 IMF위기가 다시 찾아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과 경제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의 미래는 지식경제의 활성화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세계 우수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이 우리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세계 어느 지역과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이천·용인에 이미 세계적인 전자, 반도체기업이 입지하고 있고, 상당한 생산기반과 기술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천 공항을 국제관문으로 통신·IT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어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43개나 위치해 있고,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하여 세계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입지에 적합한 지리적 잇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몽고·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까지 배후권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경기도를 동북아 지역의 경제중심지, '세계속의 경기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대한 중국시장, 동남아시장은 물론 선진국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힘 있고 경쟁력 있는 경기도를 건설하여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인차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세계속의 경기도’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 시대적 사명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의 실현을 4대 도정방침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방향에 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를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속에서 발전의 기회를 포착할 때만이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설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판교에 국제 업무기능과 벤처활동이 조화된 첨단단지를 개발하고, 도내 주요 거점지역에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의 활성화와 배후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서해안 지역의 항만·공항·고속전철역 등 주요 교통거점들 간에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 혁파를 통해 국내외 자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만 합니다.

경기도의 합리적인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도 국가경쟁력의 강화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자세를 떨쳐 버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공장총량제 등에 의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혁파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 벤처 집적지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도 확대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첨단기업화, 문화·관광 산업의 지식 기반화를 촉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에는 무려 2만5천여개의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곧 경기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가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위대한 ‘통일한국’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그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접경지역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차근차근 넓혀 나가겠습니다.

파주와 연천 지역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 배후도시의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각종 회의장과 전시장을 건설하고 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늘리고, 가칭 ‘한반도 천년 문화 축제’, 남북한 악단과 민속놀이 교류, 도예문화 및 학술교류 등의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택-남포간의 항로개설과 북한의 농업 생산력 강화 지원, 도내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생태 공동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환경 학술대회, 임진강 수

계의 공동관리와 말라리아 공동 방제 등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 북부지역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주의 물류 유통단지 조성, 고양·의정부의 벤처 집적지 조성, 한국국제종합 전시장 건립, 관광문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확충 및 테크노 타운 건설 등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의 규제로 지역발전은 정체되고 주민은 많은 불이익과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 등을 일구어 풍요로운 경기도를 여기서부터 이끌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삶의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앞으로 4년 동안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경기도에서는 난개발로 인해 교통문제,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 도민들과 관련된 삶의 질이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경기도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는 철저하게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개발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의 운행연장 및 노선 신설, 지하철·전철의 심야 시간대 연장운행, 공영주차장의 확충 등 편리한 대중 교통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행정과 관련하여서는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화호·평택호·화옹호 등의 주요 호수와 한탄강·안양천·경안천·북하천 등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계속 확대하고, 자동차 중간검사 제도와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을 시행하여 맑은 공기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장을 통해 자활을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녹지 네트워크와 공원 확충 등을 통해 도민 주거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하천개수 등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위험 시설물의 해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의 수준을 선진화하겠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잘 정비된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역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 교육·문화’의 실현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과제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영어마을’ 조성 and 영어 우수학교 지원 등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첨단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민속놀이와 무형문화재, 지역축제, 예술단체 공연, 주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이 여가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자원의 상품화와 관광 서비스를 강화하고, 체육·레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

성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학력 여성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민선 3기 4대 도정방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정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성·선심성 행정을 지양하고, 공무원의 주인의식을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반의 도정 인프라를 활용하여 과학적 도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를 포함한 도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3만 3천여 공직자들과 1천만 도민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의 도정운영에 있어서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밝힌 ‘도정운영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향후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수정 보완함으로써 도정에 관한 전략적 연동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2일 취임사에서 밝힌듯이 항상 도민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인들의 뜻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총복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4년간 도정운영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우리 함께 경기도정의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갑시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속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 나가시다.

경기도가 서야 대한민국이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통해 온 국민의 염원인 선진일류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경기도 위에 하나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난개발은 없다

“경기도는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속에서 경쟁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선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홍입니다.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21세기 첨단산업까지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명제가 공존하고 있는 경기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복잡하다는 현안들로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고 계획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손학규 신임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를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등 도정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조명, 오늘은 경기 특별도를 지향하는 손학규 신임 도지사의 포부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계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도 격전을 치르셨고 취임도 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시간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도지사 : 예. 도무지 제 생활은 없습니다.

진행자 : 격전이었지만 그러나 선거 결과는 낙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 도민들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진행자 : 우선 경력이야 참 남달리 화려하시고 다 이미 알려진 바인데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두 번째 도전하셔서 당선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남다른 소회가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 우선 저를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신 경기도민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취임을 해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그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또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큼니다. 경기도가 발전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행자 : 경기도 도정 세부 정책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치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중이 그만큼 올라가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지사 :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진행자 : 당과도 협조 체계가 잘 돼야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지금 경기도 의회 구성이 한나라당이 압도적 원내 다수당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히 영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영국의 지방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치와 비교해서요.

도지사 :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04명인데 민주당이 10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3선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젊어서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 자신을 의회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경기도의회 개원 바로 전날 도의회 개원을 위해서 도의원들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도자들, 어른들을 모시고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를 도정의 가장 중요하고 대등한 파트너로 삼겠다고 하는 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는 어느 자리에서든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민주당이 도의회에서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도 도정에 책임 있는 파트너로 같이 일해 줄 것을, 오히려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방자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국에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의 본 취지와 이념에 밝으실 걸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임 지사의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을 평가하신다면? 물론 선거전에서 말씀을하신 걸로 압니다만 종합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 지금 아직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는 이르다고 보고요, 여하튼 제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은 누가 그 일을 시작했건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더욱 보강해서, 보완해서 그 일을 해 나갈 것이고, 뭐 그 입장입니다.

진행자 :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라면 수도 인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도시화되어 있는 반면 또 일부 농촌 지역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개발과 보존간에 논쟁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개발 성장과 또 환경보존간의 문제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중점 과제를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 우선 경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면 말이죠, 지금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내년이면 서울을 능가합니다. 31개 시·군이고 지금 김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분당이다 일산이다 이런, 서울 강남을 그대로 옮겨 놓은것 같은 데가 있는가 하면, 가평과 같은 농촌지역처럼 전혀 개발이 안돼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루는 경기도입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을 합하면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공장이 들어설 수도 없거니와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도 사실 더 이상 들어설 데가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첨단산업 같은 것은 서울 안에

서는 발전할 수도 없고, 먼 지방에는 경쟁력이 없어서 가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선도하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째 도정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경기도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인 우수한 고급인력들을 계속 유치하고 좋은 조건에서 더욱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정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손지사께서는 선거 공약중 하나로 교육 환경 개선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부분 같고, 또 수도 서울의 교육 환경과도 상당히 거의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같은데요, 교육정책 같은 것은 국방 정책과 함께 중앙정부가 사실은 책임을 질 일이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마을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 영어마을 이전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선거 전에도 꼭 경기도를 돌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관심이 교육입니다.

그 다음이 교통지옥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

은 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을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 법적인 지원금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일조원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서는 부족해서 앞으로 법정 지원금 외에 지원금을 어떻게든 만들어 조성을 하고 교육 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집만 짓고 아파트만 짓고 학교들이 안 들어서 있는 곳이 있거든요.

또 교육 시설이 아주 형편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시설이나 교육 여건은 평준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평준화를 하니까 작년에 있었던 학교 배정 추첨 때처럼 난리가 났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재정적으로 경기도가 더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재정지원기금을 만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어려움, 즉 각종 규제 때문에 계획이나 예산을 세워 놓고도 학교를 못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장서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말씀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외국과의 교류 없이는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동북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기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어가 좀 편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일도 그 중의 하나지요.

학부모들이 외국어 교육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방학만 되면 지금 외국 연수 보낸다고 난리일 텐데 못 가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군이 외국 연수를 안가도 여기서 실생활, 외국 마을 그대로, 생활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주 관심들이 많습니다.

각 시, 군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많은 요청들이 있고 특히 학교나 기업이나 언론기관 같은 데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특별 기획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 손지사께서는 대학 교수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도 국제 명문대학교를 개방해서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영어마을 잘 하셔가지고 서울 학생들이 전부 그쪽으로 유학 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 아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경기도의 문제는 아파트만 들어서고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집중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그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기반 시설들을 전부 다 억제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고 생활수준은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결국 사람 누는 것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경기도가 그 인구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인구를 수용한 것만큼 거기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환경 인프라, 교통 인프라, 이런 것을 구축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거기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직장과의 주거가 일치되는 직주일체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도권 전체 생활환경 수준을 높이는 일이 될 겁니다.

진행자 : 네. 그러니까 산업기지, 산업도시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 베드타운

주거지역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직주일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수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위성도시들이 많은데 위성도시 만으로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도지사 : 그렇죠. 우리가 난개발 난개발 합시다만, 어떤 한 지역만이 난개발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국소적으로 난개발이라는 건 아파트만 지어 놓고 길도 없고, 교통망도 안돼 있고, 학교도 없고, 문화 시설도 없고 이런 걸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그냥 20만, 30만평짜리 조그만 신주택 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장은 서울로 가니까 교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 주변에 각 위성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성도시들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나 산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출근을 하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심으로 들어오고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행자 : 그럼 이제부터 경기도의 개발정책으로 본격 들어가기 전에 원칙 문제를 먼저 짚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기도가 해 오던 기존의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 좋은 것은 그대로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실 것이고, 좀 불합리한 것은 고칠 텐데 그렇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과, 버릴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실 건지 밝혀 주십시오.

도지사 :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크게 수도권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면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불요불급한 것, 이를테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먼저 들어가야 될 자원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공장총량제라고 하는 그저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급하지 않은 곳에 쓰이고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진행자 :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손지사께서 새로 와 보니까 이걸 잘못 결정된 사업인데 상당히 이미 재정 투자가 됐고, 진행이 돼 버린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중단시키고 전환시켜 버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손실된다는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도지사 :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진행자 :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아마 판교 지역 개발인데, 아까 말씀하신 판교 지역을 첨단산업기지로 하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경기도의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베드타운 역할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것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환하실 겁니까? 좀 밝혀 주십시오.

도지사 : 지금은 판교 사업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 목표와 취지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는 판교를 기본적으로 수도권 주택정책 해소의 일환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판교 같이 이렇게 소중한 땅이 없습니다.

판교 주변의 성남시 인구가 구시가지와 분당 합해서 백여 만 됩니다. 현재 용인, 수지, 죽전 여기까지 합치면 그 주변에만 한 150만이 됩니다. 또 수원까지 합치면 수원만 해도 백만 인구고, 그 주변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새로운 21세기형의 비즈니스 지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남이 포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 어디에선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더 멀리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커다란 기업의 본부도 들어오고, 벤처 산업도 들어오고, 또 가능하면 외국 기업의 아시아 본부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유능한 고급 인력들이 오면 어디서 살 수 있을 건가, 아이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건가, 주말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건가, 이런 주변 환경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교가 갖고 있는 서울의 근접성 때문에 금융이나 모든 인프라가 바로 갖춰질 수 있고 또 환경이 좋고, 그러니까 주택도 들어서면서 공해와 무관한 첨단산업도 들어서는데, 그런 비즈니스가 들어올 수 있는 종합적인 타운으로 건설을 해서 판교가 단지 판교 280만평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사실 아파트만 짓는 게 편합니다. 개발이익을 남기기는 편하지만 우리는 좀더 길게 우리의 소중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진행자 : 네, 아까 경기도를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 허브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러려면 국제 자본 유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경제 분야에서 국내외 인맥이나 정책 전문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 이번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주한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중국 대사, 그리고 일본 대사는 한일정상회담이 바로 그날 있어서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직접 전화도 하고 대신 부대사를 보냈습니다. 독일대사, 불란서 대리 대사, 스페인 대사 등 주요국 대사들이 다 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모두 오셨지만, 다른 면에서는 경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흔히들 “너 사람 몇 사람이나 아느냐” 이런 속된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 분명한 위상을 갖고 이것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업무는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경기도의 위상이 무엇인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도 어떤 면에서나 뒤질 것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강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지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몇 위나 됩니까?

도지사 : 상위권이니다만 제가 몇 위인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원입니다. 실제 지금 경기도의 시·군 예산을 전부 합치면 서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습니까?

도지사 : 그리고 GRDP 즉 지역 총생산이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수도 주변에 위성도시도 있지만 그만큼 공장이나 산업기지 역할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도지사 : 그렇죠.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중요한 새로운 산업, 그리고 21세기형 첨단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진행자 :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자 반도체 기업으로 매우 논란거리가 됐던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죠. 하이닉스는 해외매각하기로 원칙적인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지사 :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있는 사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가 저렇게 된 것은 무리한 합병 정책 때문입니다.

“도지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도내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주인이 되도록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각한다고 사실상 공개발표를 하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3개월만 투자를 안 해도 힘들어지고 한 1년 지나면 그 생산 라인 자체가 고철이 되는 것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투자를 안 하고 판다 판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겠다는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으면 기업 가치 떨어진 다”고 미룹니다.

그렇게 돼서 잘못된 것이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해외매각한다, 독자생존한다 이런 차원 그 이전에 우선 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전세계 시장의 17%나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일단 살려 놓고 국제적인 산업 전략 차원에서 하이닉스를 우리가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삼성반도체하고 하이닉스 두 개를 운영할 것인가, 하이닉스를 외국에 매각했을 때 삼성반도체 하나만 있으면 국제적인 레버리지 산업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칫 우리가 밀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을 원점에서 같이 검토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국내 다른 제3의 운영 주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 기업 가치를 높여 놓고나서 원점에서 같이 검토를 할 때 정부, 채권단, 노조, 관련 지역, 정당이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하자, 그것이 제 입장이었

고 당에서도 그 입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 있지 않습니까? 또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서울과 뭔가 좀 이게 상충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도지사 :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용인에 홍진크라운이라고 H.J.C라고 하는 브랜드로 전세계적인 오토바이 헬멧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시장의 15%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급 헬멧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헬멧,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회사에서 헬멧에 대한 R&D 투자 연구개발비를 매년 100억원씩을 투자합니다.

진행자 : 연간 100억원이죠? 굉장한 건데요.

도지사 : 세계 제2위가 이태리 회사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에 7~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세계에서 월등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기업확장 안하겠다고, 중국에 일부 투자를 해 놓고 거기서 2천명 종업원으로 중저가제품 만들고, 여기서는 고급제품을 만드는데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왜? 공장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후생관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그게 공장총량제에 걸려서 못합니다. 공장을 더 늘린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공장총량제라고 하는 그저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하고 경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저희가 상대로 하는 것은 중국, 중국에서도 중경권, 상해권 또 광둥권, 일본에 동경권, 미국의 뉴욕권, 유럽 이런 곳과 상대를 해서, 거기하고 경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지역 균형개발, 지역 균형 정책 그 개념이 남아있는데 경기도만 혼자 앞서 나가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제로섬 개념에 의해서 본다면 맞는 얘기일지 모릅니다만 저희는 국내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행자 : 완전 폐지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도지사 : 궁극적으로 완전 폐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경쟁력이 낮다면 그쪽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지방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막아봤자 그 동안 수도권 인구 과밀억제 정책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막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 그 문제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나 당 방침과 일치하는 겁니까?

도지사 : 아직 그것이 지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방침으로 공식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같이 나가자고

하는 그 논리를 갖고 꾸준히 설득하고 지지를 획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행자 : 말하자면 국내 규제 정책 때문에 경기도가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장애라는 말씀이시죠?

도지사 : 그렇죠. 여기서 규제를 해 갖고서 여기 공장 못 짓게 하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나갑니다.

진행자 :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질문 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 편중된 지역 개발 정책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지만 지역 불균형이 다른 도보다 오히려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북부지역, 옛날 말로 접적지역, 접북지역, 접경지역인데 북부지역 개발정책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실 생각입니까?

도지사 : 북부지역뿐만이 아니라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지역의 한강수계상에 있는 한강 상수원 보호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지역은 말도 못합니다. 접경지역은 그 동안 오랫동안 안보 상황 때문에 묶여 있다가 최근에 접경지역 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앞으로 경기도가 2011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한 개념을 아주 달리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경기북부지역, 동부지역 이 지역들은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가 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 환경 관광산업이든지, 또 안보자원을 관광자원화 해서 안보 관광벨트로 묶는다든지, 또는 북부지역에서도 인천 공항과 인접해 있는 고양

이라든지 파주라든가 이런 데는 문화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미 출판문화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고양에 코엑스의 한 4배 정도, 동양 최대의 국제전시장이 들어서거든요. 그런 각종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남북교류, 통일시대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파주지역에 자유도시도 만들 것이고, 포천, 연천, 이런 곳은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정말 사랑받는 지역이 되고, 그쪽 더 넘어가서 가평이다, 양평이다, 여주다 이런 데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그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갈 겁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관광자원도 잠재력이 굉장하지만 임진강은 반복적인 수해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동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정책이 중요한데 중앙정부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북한측과 협력해서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정책을 어떻게 펼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도지사 : 공동 수해방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북한 천주교,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축구공 2002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개발기금 이런 것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그러한 교류와 지원을 통해서 차차 대화의 문을 열고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대책 이런 것도 협의 창구를 열어 나갈 생각입니다.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경기도가 교통난 해소정책을 아주 잘 해 나가면 수도 서울에도 엄청난 효과를 줄 것이거든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 우선 막힌 데 뚫어야죠. 막힌데 뚫고, 도로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어차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은데 현재 있는 인구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전철망 총연장을 지금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릴 생각입니다.

새로운 주거 지역이 전부다 전철로 연결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광역교통망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인천과 함께 광역 교통협의체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제 활동인구, 야간 문화 활동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 수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은데 11시면 전철이 끊기거든요. 이것 늘려야죠. 12시, 1시 이렇게 늘려서 제 공약으로는 24시간 전철 운영을 하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자 :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끝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국회의원 3선 하셨고, 또 중앙정부의 장관도 지내셨고, 지금 도정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도정을 챙기시는데 있어서 어떤 기본 원칙, 성장과 분배, 또 인사 정책, 또 행정의 원칙 같은 것과 함께 포부를 끝으로 한 1분 30초만 밝혀 주십시오.

도지사 : 우선 도정에 대한 제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도정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도민입니다. 또

그 안에서 공무원들을 제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요. 도지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도내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주인이 되도록 모시겠다는 겁니다. 대신 제가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주인 행세를 해 주십시오. 도 공무원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 역할을, 주인 행세를 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발을 하면서 환경이 보전되고 살기 좋은 경기도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정말 지방자치는 지방의 정책들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또 그런 지도자를 뽑는 시장 도지사 선출 선거였습니다만 오늘 손학규지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앙정부와도 매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국제사회에서의 선진 지역으로서 경기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손학규지사와 함께 경기 도민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을 국제 사회에 끌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견인차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중앙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도 행정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적극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MBC 초대석 차인태입니다.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서울 인구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서울 이외의 수도권 즉 경기도의 비중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가지요.

때문에 경기도는 하나의 광역단체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취임한지 한 달 반을 맞은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모셨습니다. 물론 서울과 연계가 되었습니다만 수도권 교통난 해소 문제, 동북아경제의 거점과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주목할 만한 과제, 계획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사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뉴스를 보니 경남 김해가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아직 물이 다 안 빠졌다고 해서요. 경기도는 이번에 어떠셨습니까?

도지사 : 경남 얘기를 듣고 몇 년 전에 경기도가 당했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경기도는 다행히 그동안 큰 물난리를 몇 번 겪으면서 수방 대책을 그런 대로 많이 해놓았습니다. 비는 역시 경기도도 많이 왔지만, 4일부터 7일까지 500밀리가 넘게 왔는데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우선 인명피해가 없었고 커다란 건물파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농경지 침수가 있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은 배수펌프 시설을 해놓고 구조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가옥 밀집지역들, 다세대 주택들에는 지하가구들이 많습니다. 단시간에 비가 많이 오면 아무리 배수펌프시설을 잘 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지는 것 망치신 분들도 많습니다.

도로 유실부터 먼저 복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응급복구로 하루 이틀 내에 완전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경찰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특히 군 장병이 없었으면 복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행자 : 지난 7월 2일 취임 하셔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업무파악은 다 됐다고 봐야죠?

도지사 : 어디까지가 업무파악인지는 몰라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 가운데 근본적인 것은 경기도가 경제 활동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경제가 대한민국의 1/4, 중소기업의 경우 전국의 30%, IT와 첨단산업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군사시설, 접경지역도 많고 한강 상수원이기 때문에 보호구역도 많습니다.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가 이해는 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이 경기도에 입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강제로 규제를 가하니까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규제 혁파가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원동력이고 전인차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역시 교통문제, 그리고 환경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가 수도권 주택정책의 대상이었지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경기도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 해결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들판 들판만 짓고 거기다가 사람만 살게 했을 뿐이지요. 다시 말하면 직장이 없고 일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콕콕 막히고, 교통의 기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광역 교통의 24시간 운영을 공약하셨지요?

도지사 : 광역 전철의 24시간 운영,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통문제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경기도에 대한 SOC 사업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로를 더 뚫어야 되고 전철을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도 용인이나 화성으로 신도시가 신설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은 전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당선, 신

분당선, 북부 동두천까지 복철화, 또 일산·고양·김포 쪽을 연결해서 외곽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야간 경제활동인구, 젊은이 중심의 야간 문화활동인구가 많은 데 비해 11시 넘으면 전철과 버스가 끊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운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선 서울, 인천시와 합의해서 전철을 1시간 연장 운행하기로 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진행자 : 사실 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교통문제이며 이 가운데서도 전철 구간을 연장하는 문제인데, 재임기간 중에 가능한지요.

도지사 : 현재 철도는 서울의 도시철도와 철도청의 국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부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철도 문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재원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광역철도를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철도를 연장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4년 임기 내에 완성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기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당부분 진척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행자 : 조금 전에 경기도가 나라경제 전체와 연관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를 동북아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요즘 화제와 관심지역이 판교개발인데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중앙 정부의 대 수도권 정책은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차 교수께서도 처음에 말하시면서 서울 인구는 줄어 들고 있으면서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도권의 주택, 아파트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판교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강남의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과 주택만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행자 : 생산적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도지사 : 그래서 벤처단지 얘기하고 업무지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테헤란로는 포화상태입니다. 수도권 인구들이 다 그곳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동경 주변에 있는 신주쿠·요코하마에 도시권이 있고, 거기에 업무지구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벤처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업들, 중요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주택환경도 좋고, 교육 환경도 만들고 그러면 굳이 서울로 출근하고 강남같이 복잡한 데서 볼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교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주택단지도 만들면서 그 주택에 있는 인구도 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업무지구를 만들어야 수도권 전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판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판교가 서울·용인·수원을 흡수하면서 한 지구를 형성하고, 서남쪽으로는 시흥·광명 이런 쪽으로 해서 경부고속철도의 시발점이 있는 곳이 또 하나의 부심점을 형성하며, 구리·하남·양평이 부심권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서울을 분산하고 흡수하여 균형을 이루는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판교개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지금 손학규 지사님의 취임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도민의 뜻이 앞으로 도정의 최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개 광역단체장들이 취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또 국제화와 관련해서 영어마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지사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공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중화학 공업으로 그리고 지금은 첨단 지식산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13억이나 되고 머지않아 세계경제의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연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생각할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습시다만 그 중에서도 교통·환경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사회 인프라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의 언어소통, 즉 영어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잘 살고 유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텔담 항을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키웠고 물류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핵심은 네덜란드에 가면 누구나 영어건 프랑스어건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길게 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영어마을을 대학입시에서

영어점수를 좋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영어를 생활화해서 대한민국을 국제화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경기도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환경도 좋고 하니까 영어마을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캠프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좀 길게는 완전히 하나의 외국촌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영어로 생활하고 영어로 쇼핑하고 영어로만 사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산 영어가 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정무부지사 밑에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특별기획팀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획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서 영어마을의 형태, 입지선정, 기초적인 형태는 임기 중에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인 것은 임기 전에 최소한 기획하고 사업선정과 기공 단계까지 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 서울이라고 하는 메트로폴리스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경기도인데 손학규 지사께서 예민하게 신경써야 할 게 딜레마입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말하기는 쉬운데 행정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지사 : 한마디로 ‘경기도에 계획이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명제가 환경정책에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운영을 위해서 서울의 포화상태에 있는 경제·교통·교육·문화·여가 그런 수요를 경기도가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개발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깔린 철학은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환경이 보존되고 환경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할 것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역 불균형, 과밀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단지 주택정책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20만평, 50만평 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놓고 디자인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예전대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야말로 환경을 보존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복잡한 곳만 갈 것이 아니라, 어디가서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 어차피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자치단체, 중앙 정부와의 사전 조율을 하여야 하는데 치적 위주로 하면 안되지요?

도지사 : 저는 제 임기 4년 동안에 무엇을 잘 해서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경기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되 그 전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떻게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겠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절반 인구가 모여 있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의 조건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면 단기적인 생각에 머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대안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향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중앙정부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이제 3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도 행정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적극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자 : 4년 전에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이번에 31대 경기도지사가 되셨습니다. 단체장이 되니까 조심스러운 게 많죠? 국회의원 하실 때보다 행동거지가 조심스럽죠?

도지사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있고, 어느 때는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내년이면 서울을 능가합니다. 31개 시군을 합한 예산은 벌써 서울보다 많습니다.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도 과거에는 경기도에 산다고 내 놓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산·평촌 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주민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경쟁력 강화와 전 인구의 절반이 되는 수도권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 사시죠?

도지사 :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가족이 원래 살고 있었던 광명에서 학

교 다니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활 영역이 있습니다.

진행자 : 취임사대로, 초심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속도, 방향으로 봐서 지식산업·첨단산업이 중심이 되고 금융이나 서비스산업, 물류와 비지니스가 중심이 되는 산업 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 경기도가 남서울 계획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청계산 둘레, 1500만평에 추진하는 제2의 강남 구상인데요, 아마도 중앙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참 많을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5대 신도시하고는 무엇이 다른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입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도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경기도의 신도시 계획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도지사 : 기본적으로 경기도 하면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는데, 서울은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건 업무건 어디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15곳에 20만평, 30만

평 단위의 주택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울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 멀리 가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차피 수용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난개발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된 수도권을 형성하자 하는 애깁니다.

그래서 업무지구도 수용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만들고 도로망도 제대로 갖춰서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곳을 만들자 그 애깁니다.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경기도를 크게 나눠서 동북부, 동남부, 서북부, 서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대로 자족기능을 갖춘 곳을 만들어서 서울의 주택과 업무지구를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그 중에 하나, 남서울 쪽의 청계산을 가운데 놓고, 청계산을 일종의 커다란 정원으로 생각하고 주변에 주택단지와 업무지구를 형성해서 서울, 특히 강남의 인구를 흡수하는 겁니다.

진행자 :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이 따라가고 학교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만한 것을 만들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할 게 많을 것 같고,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지사 : 그렇습니다. 지금 구상단계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강남이 꼭 차있지 않습니까? 1960~70년대부터 강남이 개발되었죠? 거의 30년 가까

“숲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계획된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수도권에 포화상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개발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경기도가 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 어느 정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 내년 말이면 벌써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섭니다. 서울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2020년이 되면 경기도에 200만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것을 수용하려면 인구 100만 단위의 신도시가 3~4개 필요하다, 이거죠.

길게 보고 지금 청계산을 중심으로 남서울 지방에 70만~100만명 정도의 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을 한두 해에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20년을 보고 추진하자는 거지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만들어 놔야지 난개발이 생기지 않고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1500만평이다, 그렇게 신문에 나고 그랬지만 그것을 다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1500만평 가운데 주택지역은 그 중에 5분의 1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얘깁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보존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진행자 : 사람이 들어서면 어쨌든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자연파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개념보다도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주택과 업무지구가 들어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때는 서울에서 용인까지 녹지로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아파트로 이어져 있거든요? 경기도의 계획이 서울의 확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요?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더 확장돼서 오히려 교통난만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도지사 :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쉽게는 환경만을 생각해서 100만평 개발할 것을 20만평만 개발하는 것이 환경을 더 보존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 100만평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20만평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늘어나는 주택들을 그냥 베드타운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적절한 숲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계획된 도시를 앞으로 만들지 않으면 수도권외 포화상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이런 먼 곳에 좋은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업무지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져서는 택지개발이나 업무지구 개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진행자 : 아까 4개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청계산 축 하구요, 그리고 어디죠?

도지사 :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 즉 광명역이 세워질 광명과 시흥, 안산을 연결하면 인천국제공항의 발전과 더불어서 제3 경인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면서 또 하나의 발전 축이 될 거구요, 또 하나는 파주, 고양 쪽으로 해

서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과 일산대교로 곧바로 연결되는 그 지역이 남북교류의 장이 되면서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동북부 축에서는 남양주, 하남, 구리 지역이 밀집지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겁니다. 서울 주변에 4개의 부심권 축을 만들어서 서울 과밀화 현상, 업무지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장기적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 그야말로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앞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린벨트해제 문제도 있습니다.

도지사 :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푸른 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 구역이거든요. 여러 제약에 의해서 경기도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나뉘어져 개발이 기본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장배치법에 의해서 공장들이 제대로 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정책이 과밀억제에 성공했다면 별 문제인데 과밀억제정책을 오랫동안 쓰면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니까 도시의 발전이 기형적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 지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타의 지방에서는 결국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런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 그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지역은 아파트를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계속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경기도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나 서울의 주택정책을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주택은 부족하고 인구는 한 곳으로 몰리니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투기억제 정책을 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속도, 방향으로 봐서 지식산업, 첨단산업이 중심이 되고 금융이나 서비스산업, 물류와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는 산업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이 더욱 더 성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추세일 것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안 된다면 솔직하게 대책을 세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과밀억제정책이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명분 때문에 솔직하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입니다.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설 바에는 직장도 들어서고 학교도 들어서고 도로·공원도 제대로 갖춘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수도권의 부담을 우리가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진행자 : 중앙정부하고 의논한 게 있습니까?

도지사 :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취임 전부터 경기도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된 도시발전을 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협의단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실무 선에서 타진을 하

고 앞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도 내부적으로 좀 더 탄탄하고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진행자 : 지사님 임기는 4년인데, 임기 중에 삼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 판교만 하더라도 삼 한번 뜨지 않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삼 뜨는데 1년은 더 걸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획도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도정비,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진행,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건 급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강남 개발에 30년 걸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되, 기왕에 보도도 되고 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 국회의원 하시다가 행정을 맡아보시니 어떠십니까?

도지사 :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바쁘기는 더할 나위 없고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도지사 : 감사합니다.

농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시켜야

“농업은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명 산업인 농업은 더이상 노동집약적인 1차산업에 머물러선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농민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경기도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규현 의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창립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천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 오신 백규현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간 대북 쌀 지원과 남북교류 심포지엄 등 남북 농업교류사업, 국내 쌀값 안정 대책과 도농 교류 활동 등 농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백규현 의장님과 전농 도연맹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고생이 많으신 농업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5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하여 피해가 적었던 것은 농업인 여러분을 포함한 민·관·군이 협력하여 재난예방에 힘써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하고 농업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해를 포함한 재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농업인 여러분!

민선 3기 도지사에 취임한 저는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 그리고 무한한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 여러분과 1천만 도민 모두를 주인으로 섬기며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도정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를 도정방침으로 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농업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회원과 가족여러분!

생명산업인 농업은 21세기 들어서 유전공학·생물공학·정보기술 등의 융합으로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더 이상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에 머물러선 안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수출 및 경기도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보다 나은 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유통마진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도지사 인증 “G마크”의 적극적인 홍보로 경기도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청벼 집단재배단지 조성 and 고품질 벼 종자의 공급,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쌀값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산물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배·화훼류·김치 등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다국적 유통업체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우리농업을 단순한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유통·가공·수출을 결합한 고품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인들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의 농업이 세계의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

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농정을 포함한 도정 전반에 대하여 농업인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의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10주년 기념식이 보다 나은 농촌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

“청소년의 내일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청소년들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살아 있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미래사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문화와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제3회 ‘내일을 여는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천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세대학교 이사장이신 엄기호 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치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내일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청소년들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살아 있는 희망입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60억 지구촌 가족의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

컵 경기를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은 4강 신화를 이룩하면서 반만년 역사상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선수단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승리이자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 수백만의 우리 청소년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고 날이 새도록 밤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광로처럼 분출하는 청소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소년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자랑스러운 선수단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선수단보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거리에 나와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쳐대던 수백만 청소년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지구촌의 시선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꿈을 꾸고 이를 선량하게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밝고 희망찬 내일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소년 여러분도 보다 웅대한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 기성세대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진합시다.

끝으로 오늘 한마당축제가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는 고난의 세월을 극복한 분들에 대한 예우

“비록 오랜 연륜으로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깊어졌지만, 어르신들은 가정과 이 나라의 어려운 고비 고비를 이겨내신 승리자이자 인생의 스승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과 가족 여러분!

맑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6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노인 여가 활동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학용 도의회 부의장님과 김준학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님을 비롯한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노인복지 증진에 헌신하여 오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김경한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천만 도민 여러분!

우리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한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범국민적으로 마련하자는 의미와 실천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난 5 ~ 60년대 격동의 세월 속에서 온갖 좌절과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땀 흘려 일해 오신 결과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께서는 가족과 국가 발전을 위해 진력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노후 대책은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이하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여가활동을 돕는 한편, ‘노인 보건복지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노인 일거리 개발과 노인 요양보호 대책에 중점을 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노인 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2013년까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도의 노력만으로 풀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천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정은 지금 민선3기가 펼쳐 나갈 새로운 역사를 그려보며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기대에 차 있습니다.

우리 도는 어르신 여러분과 1천만 도민 모두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도정 방침인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를 꽃피워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비록 오랜 연륜으로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깊어졌지만 어르신들은 평생을 살아 오시면서 가정과 이 나라의 어려운 고비고비를 이겨 내신 승리자이자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동안 쌓아 오신 경륜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를 바로 다스리는 어르신으로서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노년생활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식에 이어 펼쳐질 노인 여가활동 경연대회는 그 동안 땀 흘리며 준비하신 멋진 공연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사가 여러 어르신들께 보람과 기쁨을 드리고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내빈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류국가의 길 - 경기도가 이끈다

“경기도가 처한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경기도는 21세기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선진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도지사에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선3기 ‘경기호’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1천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도정 전반에 걸친 현황 파악과 민선3기 경기도정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기도 발전의 장기적 비전과 도정 운영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동안의 경기도정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이미 취임사와 도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는 경기도의 비전을 실현하고 주요 당면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저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취임 후 100일 동안 도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 특별히 유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저는 민선3기 도정운영의 기본계획을 가다듬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저는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 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우선 지난 7월 도의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선3기의 경기도정의 목표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통일의 전진기지’ 구축·‘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선진 교육·문화’의 창달을 4대 도정방침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 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민선3기 정책과 사업을 총괄해서 관리해 나갈 ‘기본 틀’로서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정책별 추진방향은 물론 세부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을 구체화하고 있어, 이 계획을 통해 제가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바를 착실히 실천해 나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지난 100일 동안 특별히 고심한 것은 인사와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도정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람과 조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인사원칙은 공정한 인사를 통한 조직의 안정과 사기의 진작이었습니다.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경기호’가 제대로 항로를 찾아 순항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며 온몸과 일생을 바쳐 도정에 헌신해 온 능력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정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자각 속에 전국적인 차원의 능력있는 인재를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으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비합리적인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조직과 직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조직과 직책 하나하나가 도민들의 혈세라는 인식하에, 효율적인 도정에 필요한 조직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되, 불필요한 조직은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셋째로, 경기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그리고 타 시·도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현황 파악과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 방문을 통해 시·군정 보고를 청취함은 물론, 수해 현장·대형 공사장·농촌현장·기업현장·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시·군의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도정운영의 첫째 자세를 도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삼고, 경기도를 땀으로 적시며 도민우선의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공식적인 취임 이전 당선자 자격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하여 판교개발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를 방문 혹은 면담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여야를 막론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당정협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의원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로부터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인천과의 3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광역교통서비스의 개선을 포함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경기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도정운영 방침에 입각해, 취임 초 제가 역점을 두고 시행한 사업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하고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 되도록, 첨단지식산업과 물류서비스 산업·국제적인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WTCA 회의를 유치해서, 투자통상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내 우수 대학 및 미국의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무선인터넷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를 차세대 IT 산업의 중심인 무선인터넷 사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과 판교 벤처·비즈니스 단지 등 도내 전략적 산업기지 개발을 서둘러, 경기도를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도의 위상을 확립하고, 특히 북부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경기도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도 확충하고 대북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에 대한 갖가지 규제로 발전이 억제되어 온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선 SOC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시·군도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의 35%를 북부지역에 배정했으며,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저는 경기도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최대 당면과제는 난개발의 치유와 방지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난개발의 후유증인 교통혼잡과 교육환경의 악화, 그리고 환경파괴는 곧바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난개발의 폐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저는 취임 후 첫번째 예산인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러한 저의 의지를 명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도로 건설 50.9%를 비롯한 SOC 투자에 58%, 교육분야 지원 7.1%, 환경개선사업 21.2% 등 가용재원의 86%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중요법만으로는 난개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난개발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더 이상 경기도에 난개발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경기도에는 총 5,036만평의 택지개발로 110만호의 주택이 들어섰습니다만, 분당·일산을 제외하고는 평균 30만평의 주택위주 소규모 개발로 경기도 전역에 난개발이 초래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역이 직장은 없고 잠자리만 제공하는 베드타운이 되었고, 광역교통체계 미비로 수도권 전역의 마비현상을 초래했으며, 학교·공원 및 공공시설 부족으로 교육·환경·문화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마저도 주택단지 위주의 소규모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12개소 259만평 개발을 위시해서 총 154개소 2,311만평이 평균 15만평규모로 개발되어, 광역교통체계 및 자족기능이 없는 또다른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는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는 교통체계와 공간구조를 갖추기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경기도 전역의 미래 청사진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발압력이 큰 6개 지역을 ‘특별성장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개발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1) 경부축의 중심업무지구 형성과 경부고속도로 기능 회복, (2) 서해안축의 고속철도 역세권 및 서해안 연결도시축 형성, (3) 북서부축의 통일대비 국제교류 및 문화신도시 건설, (4) 동부축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생태도시 건설, (5) 북부축의 북부지역 발전의 거점도시 육성, (6) 남부축의 대중국 물류서비스 및 산업생산의 거점도시 육성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지역별로 직장·교통·교육·문화복지시설과 특히 자연이 제대로 보존되고 환경이 잘 어우러진 대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도록 할 것이며, 시장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함으로써, 20년 후에는 완벽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의 이점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수도권 전역에 미치는 광역 기간교통망에 투자함으로써, 이들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2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순환철도망 건설, 경기 북부의 발전과 통일에 대비한 3개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고양-문산, 의정부-연천, 남양주-포천)

저는 이러한 구상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 내년 연말까지 지역별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경기도 ‘성장관리계획’을 건설부가 입안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기도내 모든 택지개발은 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되고, 이

에 부합되지 않는 택지개발은 단호히 거부토록 하는 것이 이 구상의 취지이며, 경기도에 더 이상 난개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계획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삶의 질 향상' 과 직결되는 교육·문화의 창달 및 환경·복지 수준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좋은학교 만들기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을 통한 외국어 실력의 배양을 통해, 경기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하천오염지도를 작성토록 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계획을 입안중에 있으며, 모든 개발 사업과 하천개보수 등 SOC 사업에 환경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개발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함양하도록 하는 일과 복지 수준의 향상에 힘쓸 것이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적극 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향후 4년간 경기도지사로서 '세계속의 경기도' 의 위상을 정립하여, 경기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보 통신의 발달, 국제화의 진전, 지식경제의 등장으로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지정학적 여건과 경제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미래는 지식경제의 활성화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처한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경기도는 21세기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기도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진정한 발전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우수한 교육여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쾌적한 환경, 풍부한 문화생활 등 삶의 기본요소들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1천만 경기도민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저는 민선3기 경기도정이 경기도의 이러한 위상과 시대적 역할 그리고 도민들의 여망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속했던 핵심 공약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의 기반을 든든히 다져 놓겠습니다.

또한 장차 도래할 1천만 경기시대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조직을 갖추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확충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망과 계획은 경기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경기도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는 주인이 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경기도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열정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복지는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 어르신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출신 이해구 국회의원님, 김학용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이동희 안성시장님, 정운순 시의회 의장님과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김용성 회장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님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온 세상에 황금빛 물결이 넘실드는 결실의 계절에 정부와 법인이 정성을 모아 치매·와상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준공식이 있기까지 혼을 불어넣는 열정으로 수고해 오신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김경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말할 때 빈곤, 병고, 고독, 무위의 4苦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문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과 생활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생 말년에 찾아오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노인전문요양시설 감로당 준공은 안성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인 요양서비스가 새롭게 확대되는 뜻 깊고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2일 정부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설 확충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도에서도 2006년까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필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노인복지문제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어느 한 분야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지난 1989년 법인설립 이래 무료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의원, 노인작품전시관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한 대표이사께서는 이곳 장능리에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실비 및 유료요양시설, 효 문화원, 보건복지전문대학 등을 건립하는 노인복지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연꽃마을을 만들어 오신 임직원 여러분, 아낌없는 봉헌으로 참여해 주신 연꽃마을 관계자와 불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준공식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노인전문 요양시설 ‘감로당’이 우리나라 노인요양사업 분야에서 한 발 앞서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로당 준공을 위해 애써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과 안성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쟁력제고는 정부, 민간의 행동준거

“각국 국가경쟁력의 우열의 변동은 세계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도래한 오늘의 지구촌 사회에서 일국 일 지역의 발전은 타국 타지역들과의 국제 협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시라이 요녕성장님,
오카자키 히로시 가나가와현 지사님,
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님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 심양에서 요녕성·가나가와현·경기도 3지역 우호교류회의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천만 대한민국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요녕성민 여러분들과 가나가와현민 여러분들께 경기도민들이 보내는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경기도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세계 도자기 엑스포에 요녕성과 가나가와현에서 보내주신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보시라이 요녕성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각국간 그리고 각지역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정부와 민간의 행동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 국제경쟁력의 우열의 변동은 세계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실리적인 이익증진에 대한 기대는 국경·정치적 이념·종교 등 각종 인위적 장벽과 국가간·지역간의 전통적 친소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계 각 지역에서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경제협력증진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인접국가간 경제블록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속에 지역화라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 경제블록의 잇달은 형성은 전세계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3국에게는 위기요인인 동시에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강하게 추동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동북아 지역의 놀라운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중국·일본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은 전세계 GDP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전세계 GDP의 27%, 전세계 교역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놀라운 역동성은 세계경제를 유럽과 북미, 동북아 3개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2002 FIFA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중국의 2008년 올림픽 유치 및 WTO 가입 등으로 우리 동북아 3국의 국제적 위상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달 우리 한반도에서는 남북분단 이후 50여 년간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공사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의 연결은 요녕성을 더욱 중요한 물류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것이며, 북쪽과 동쪽의 물류연결은 물론 한국·중국·일본 간의 교통·물류·유통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요녕성과 인접한 신의주시의 전면적인 개방 및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접경지역인 개성시에서도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따라 북-일 관계개선 등 동북아 국제정세 역시

커다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인 기대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국들의 협조를 통해서만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요녕성·가나가와현 3개 지역은 한·중·일 3국이 북한의 변화를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감한 SOC 투자를 통해 경기도, 특히 북부 지역을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입지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녕성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인접국가간 경제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요녕성은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의 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녕성은 지리적으로는 육로 뿐만 아니라 바다로도 한국에 연결되어 있고, 비전을 갖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지도자와 근면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전되면 요녕성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가와현은 NGO 등을 통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가와현이 북한과의 교류에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준다면 북·일간의 관계개선과 동북아 경제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 3지역은 북한의 교통·통신 및 기타 경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공동참여가 가능한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일국의 발전에는 그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한 우리 경기도는 한국 경제규모의 23%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중소기업의 28%, 첨단산업의 50%, 반도체 산업의 65%가 소재해 있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핵심지역입니다.

이곳 요녕성은 근대 이후 중국의 공업핵심기지이며 동북아의 중요한 물류거점입니다. 우리가 대련의 비약적인 발전에서 보았듯이 지금 요녕성에는 심양을 중심으로 많은 외자가 유치되어 선진기술이 도입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수출의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곳 요녕성 경기공단에 입주한 농심라면을 비롯한 기업들, 경기도 안산에서 심양으로 온 삼보컴퓨터, 최첨단 디스플레이어를 생산하는 LG 전자 등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우리는 국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의 연결은 요녕성을 더욱 중요한 물류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것이며 중국, 한국, 일본 간의 교통·물류의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가와현은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기계·수송설비·전기산업 등 풍부한 산업경제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의 선진지역으로서의 경제발전 경험은 경기도와 요녕성의 발전전략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구조적으로, 지리인접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우리 3지역간 국제협력의 강화는 막대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3지역간에 이러한 동반 발전의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국의 발전을 선도하여 온 우리 3지역이 더욱 합심하여 경제협력의 모범을 보인다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 움직임을 더욱 촉진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내년이면 가나가와현과 요녕성 두 지역이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20주년이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가나가와현과는 지난 1990년에 그리고 요녕성과는 199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가나가와현과 요녕성은 우리 경기도의 십년지기

(十年知己)가 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요녕성 두 지역과 함께 나눈 10여년이라는 시간은 경제·문화·스포츠·청소년·여성·의원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굳건한 신뢰가 정착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우리 3지역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졌듯이 현재보다 미래의 우리 3지역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1996년 바로 이곳 요녕성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더욱 굳건해지는 3지역간 상호 신뢰속에 횡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4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는 본 행사 이외에도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3도·성·현내 각 시·군간의 교류협력의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3지역 경제발전의 근간인 민간기업간 경제협력의 장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장은 3지역의 우호협력의 기반을 보다 확대하고 교류협력을 내실화하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3지역의 주민·단체·기업간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우리 3지역 우호교류회의가 지역정부간 국제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본 회의의 보다 전향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개방노력 등 최근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해 우리 3지역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지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 학술포럼의 개최 및 제반 국제협력사업을 협의하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포럼의 개최 및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질서의 변화에 우리 3지역이 능동적인 주체로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 경기도·요녕성·가나가와현간의 3지역간 우호교류가 보다 내실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3지역간 경제·문화·환경·청소년·스포츠 등 각 분야 교류사업을 협의하는 전문 분과 실무협력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각 분야 전문분과 실무협력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그간의 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개선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신규협력사업들을 추가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본격적인 국제화시대가 도래한 오늘의 지구촌 사회에서 일국 일지역의 발전은

타국 타지역들과의 국제협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선린우호의 자리가 우리 3지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우리 3지역이 선도하는 동북아 중심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년후에는 경기도에서 제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3지역 우호교류회의의 전향적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의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손학규입니다.

21세기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생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UN에서 ‘국제주거환경최우수도시’로 선정할 만큼 아름다운 도시이자 개혁개방의 원조 지역의 하나인 주하이(珠海)시에서 중국의 명문 中山대학교 학생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李延保 당서기님과 黃達人 총장님을 비롯한 中山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중국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았으나, 이곳 주하이시처

럼 주변 경관이 아름다우면서도 세련되게 발전한 곳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주하이시에 처음 와 봤지만, 참으로 중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여겨지며,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를 주하이시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의욕이 다시 샘솟습니다.

지난해 8월 하순경 저는 ‘중국국제교류협회’의 초청으로 한국의 동료 의원들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광둥성의 선전시와 광저우시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불과 1년만에 광저우에 다시 와 보니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변모하는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광저우 등지에서는 지도를 1년에 한 번은 새로 사야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변화의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와 강도에 대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같이 수 개월 혹은 몇 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이방인들은 중국이 변화하는 속도를 보고 놀라움을 넘어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곳 中山대학교는 ‘중국 혁명의 아버지’ 孫文 총통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자를 따서 광둥대학에서 중산대학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 역시 孫氏입니다.) 저는 그분의 중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과 심오한 사상이 오늘날 중국이 이토록 번영할 수 있는 참된 토대이자 밑거름이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100여년전에 興中會를 결성하여 중국의 근대적 발전을 실현하고자 했던 쑨원 총통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興中’은 동북아 질서는 물론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의 근현대사는 쑨원의 신해혁명, 마오쩌둥(毛澤東)의 신민주주의 혁명,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노선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9년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개방노선의 채택은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되었고,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비롯한 제3세대 지도부는 개혁개방노선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한 지난 20년 동안 두자리수에 가까운 9.8%의 기록적인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01년에는 GDP 규모가 1조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인당 GDP가 아직은 1000달러에 못미치지만, 구매력 기준으로는 1인당 4천달러에 육박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이 앞으로 현재와 같은 성장세, 적어도 7%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GDP 규모면에서 향후 2-3년내에 세계 4-5위, 2020년경에는 세계 2-3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50년경에는 미국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470억불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매년 800~1000억 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인 외국인 투자가 또 다시 외국인 투자를 부르는 이러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고도성장과 무역 신장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는 중국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의 상당 부분이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기인한 것이라면, 최근의 외국인 투자는 주로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중국이 노동력 공급기지 차원을 넘어 신규유망시장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통한 중국의 급부상은 동북아 질서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 중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야기된 변화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세계경제속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영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지난 수년간 주변국들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화독수(一花獨秀)’와 같이 홀로 고성장을 유지함으로서 동북아 지역은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등장하였고, 그 비중이 계속 확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물동량 중 동북아 지역의 비중이 1998년 27%에서 2000년에는 28.1%, 그리고 2006년에는 30.1%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일류기업을 비롯한 천문학적인 투자자금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변모한 중국으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은 물론 선진 제국까지도 외국자본 유

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범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어 가고 있었던 국경 없는 무한 경쟁양상을 세계경제의 특징으로 확실히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경제특구 정책을 세계 여러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주변국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2/4분기(4~6월)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해 일본에 대한 수출액을 처음으로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수 확대와 견실한 수출을 배경으로 아세안으로부터 전자부품 및 소재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보다 대중 수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지난해 한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동아시아의 경제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해주는 시그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이제 중국은 동북아의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전면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 세계의 시각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미국과 일본의 보수세력을 비롯해서 몇몇 주변국가에서 강하게 일

고 있는 ‘중국 위협론’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발전이 자신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중국 위협론’은 경제 측면과 안보 측면에서의 논의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중국 위협론’의 내용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 가면서 초래되는 자국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본, 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의 생산 및 연구 개발이 중국으로 집중될 경우 주변국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안보 측면에서의 ‘중국 위협론’은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중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팽창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을 줄 것이며, 중국 국력의 비약적인 증대는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 위협론’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체적인 반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주변국가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국 기회론’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의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는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군사비는 세계의 주요대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주변국에게 위협적인 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초래하는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고 위협 요인을 자국의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 주변 국가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중국이 주변국가들의 견제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많은 주변국가들이 공감하는 ‘경제적 위협론’을 불식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중심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증대시키고, 내수 시장을 확대 개방해 중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주변국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 기회론’이 주변국가들 사이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해야 하며,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제한된 영향력 밖에 행사할 수 없는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동북아의 경제 협력과 안전 보장 환경을 좌우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지도력과 영향력의 범위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책임국가(responsible power)’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주도권 확보만을 추구하는 ‘패권국가(hegemonic

power)' 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침체에 빠져 있는 세계경제의 '오아시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 못지 않게 산적해 있는 국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구조조정의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8억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부문, 국유기업의 구조개혁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 문제, 확대되고 있는 지역간·계층간의 빈부격차 문제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가 향후 최소한 10여년간은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여건이 좋고 시간이 있을 때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년전 한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도 정부·기업·국민 등 각 경제주체들이 30년 넘게 지속된 고도성장에 도취돼 사회경제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의 개혁, 서부 대개발을 통한 동·서간 지역격차 축소, 농업유통체제 개혁과 도시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 축소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 성공에 안주하여 내부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만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리 평 총리가 “물이 흐르면 곧 도랑이 될 것(水到渠成)”이라고 말한 바대로 한·중 양국은 지난 10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 분야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방면에서 순조롭고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2001년말 기준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액은 317억 달러로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한국 역시 EU를 제외하면 중국의 3대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 연말이면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0년전 교역규모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양국을 오간 사람이 200만 명을 넘습니다. 지난 10년 간 한국은 중국에 138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투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양국관계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류(韓流)’가 유행하고 있듯이 한국에는 ‘중국붐(中國熱)’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이러한 전면적인 관계발전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가능한 것이었지만, 양국간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공감대에서 형성된 양국 국민 사이의 우의의 감정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중 양국간의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중국 기회론’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 요인도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계기로 활용하자는 진취적인 견해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와 경쟁적 관계가 병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한·중 양국은 상호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 전체의 산업이 재편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해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는 물론 미국·일본 등 주변 이해당사국과의 대화에 나서게 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의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움직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일 수교를 통해 일본의 대규모 경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미국시장에 대한 북한의 접근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신의주 특

구 등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그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을 야기시켜왔던 북한문제가 해결돼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이 확보될 것이며,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남북 양쪽 모두와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듯이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역시 중·미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중·미 관계의 균형추가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이동한 시점에서 한국의 이러한 역할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중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한·중 양국간에 탈북자 문제, 무역역조 문제 등의 현안들이 있고, 가끔씩 서로의 차이로 인해 양국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이는 양국간의 교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상호간에 이해를 넓혀 나간다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한·중 양국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튼튼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통합의 방향을 향하여 경제교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하며,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청년 학생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시기는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면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한 나폴레옹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북아 지역의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韓非子가 인간관계가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듯이, 국가간의 관계도 근본적으로는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孟子的 말씀도 있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인 이해와 상호배려가 국가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큰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지도자로서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갈등보다는 협력의 차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광둥성과 경기도가 상호 협력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면, 서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광둥성은 중국 공업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전기·전자 등 첨단제품들을 생산해내는 산업기지인 동시에 연구·개발의 메카로서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한국 경제규모의 23%를 차지하는 곳으

로서 지식기반산업의 37%, 반도체 산업의 67%가 소재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핵심지역으로서 동북아의 중심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에서 이러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 지역이 서로의 역할을 적극 인정하고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갈 때야 비로서 함께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사소한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호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EU, NAFTA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될 필요가 있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자유무역지대) 역시, 한·중·일 3국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우호적으로 상호보완관계를 모색할 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 체제 구축 역시 미·중·일·러, 그리고 남북한간에 역할 분담과 선의에 기초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을 위해 적극 나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여 인류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중국의 리더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리더로, 더 나아가 60억 인류의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저의 강의가 한·중 양국의 관계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中山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시대의 개막

“안전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 없이는 어떤 번영이나 발전도 이룰 수 없으며 안전이란 행복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홍영기 의장님,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 여인국 과천시장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맑고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이곳 서울랜드에서 도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119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해 250여명의 사상자 및 5조 2천억원의 재산피해 등 전국이 엄청난 피해를 당해 시름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는 커다란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강원도 등 다른 지방에서의 피해 발생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 할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

도 100%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에너지소비 증가 등으로 화재,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등 안전을 저해하는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재산피해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 등 안전의식 결여와 대응능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일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제도나 법규를 강화하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문화 의식을 중시하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이곳 서울랜드에서 전국 최초로 119 대축제와 같은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였고 작년까지 50여만명의 도민이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사에서는 재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요령을 직접 습득하게 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 없이는 어떤 번영이나 발전도 이룰 수 없으며 안전이란 행복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도민 여러분!

안전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종 재난시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초석이 놓여지기를 기
대합니다.

행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금도 도민의 생명
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과 이 자
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식사에 가
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꿈이요 미래

“청소년은 나라의 꿈이요,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꿈을 갖고,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단히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4-H회원과 농업인 여러분!

오늘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을 선도해 가고 있는 이곳 농업기술원에서 제49회 4-H경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4-H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도의회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 9천여 4-H회원 여러분의 그동안 활동에 대하여 아낌없는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행사의 주제가 ‘세계속의 경기도 꿈있는 4-H회’로 우리 4-H회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꿈이요,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꿈을 갖고,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단히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맑고 건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도덕관과 용기를 키워나가는 마음과 신체를 갖추 수 있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H회는 반세기가 지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있는 단체로서 4-H회원 여러분들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생활이념을 실천하면서 민주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키워 왔으며, 지역사회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 왔습니다.

4-H회원들이야말로 진정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꿈을 일구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4-H회원과 농업인 여러분!

저는 도지사로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 그리고 무한한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4-H회원 그리고 농업인을 비롯한 1천만 도민 모두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도가 위치한 제반 여건을 십분활용하여 도정 방침인 동북아의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쾌적한 삶의 환경과 선진교육·문화의 실현으로 도민 모두가 살맛나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면서 맞서 나가는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농촌을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로 동경하는 곳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과를 도의 노력만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4-H회원과 농업인을 비롯한 사회 각 계 각층의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H대표회원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오늘 시군 4-H대표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같고 닮은 과제활동 등을 평가·경진하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우수 농축산물 전시·품평회 등을 함께 갖게 된 것은 농업의 미래를 밝혀주는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의 행사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시어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일정이 되시고 우리 4-H회원들이 농촌 후계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함은 물론 농업·농촌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4-H대표회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경기도4-H회의 무궁한 발전과 4-H회원, 내빈, 그리고 우리 도 농업인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이 살길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도 농촌은 우리의 안식처이자 고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합심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잘 사는 농촌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업인이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금년은 우리에게 크나 큰 시련과 고통을 안겨 준 한 해였습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 확대 및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지난 5월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10월 말 김포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뜨거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우리 도를 동북아와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3기의 경기도정 목표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 통일의 전진기지구축,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및 선진 교육·문화의 창달을 4대 도정방침으로 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도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바를 착실히 실천하여 살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의 농업은 중국의 WTO 가입,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외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농업인들의 이농으로 빈집과 폐교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여건의 변화로 지역적인 집중호우와 태풍·한해 등의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으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연이은 풍작을 이뤘으나 농민들의 마음은 즐겁기 보다는 쌀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더욱 어둡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합심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잘 사는 농촌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달가스'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농촌부흥운동을 전개하여 오늘의 덴마크 농업을 이룩하였듯이 우리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이 국내외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하고, 중앙보다 한발 앞선 고품질 생산시책으로 경기미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여 추정벼를 69%로 확대재배함으로써 719억원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을 확대육성하기 위하여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높은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일반미보다 20~30% 고가에 판매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친환경 농업의 가능성을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 도로변 직판장, 농장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직거래 실적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과거의 수세적 농업에서 탈피하여 공세적인 수출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의 수출유망품목인 배·화훼, 인삼·김치를 까르프 등 다국적유통기업을 통한 해외판촉, 국제박람회참가, 바이어 초청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지난

해 1억400만 불을 수출하고 금년 9월 말 현재 8천70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농업육성으로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을 통한 수확의 기쁨과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말농장 등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2만4천여가구의 도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농어민 여러분들께서는 폐비닐·농약병·폐농기구 등을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기계이용과 농산물수송 등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수리시설개보수·배수장 설치 및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오늘 농어민대상을 수상한 화성의 이종노씨는 새로운 품목 허브를 재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브를 이용한 비누·샴푸, 공기청향제 등을 개발하여 연간 3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열악한 농업환경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사례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잘사는 농촌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도 농촌은 우리의 안식처이자 고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도 영농경험을 통한 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지식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뜻 깊은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온갖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끊임없이 도전함으로써 경기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교역 확대로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한나라의 발전에는 그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는 지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정업무 수행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석수 국무총리님, 존경하는 Guy F. Tozzoli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님, David Lee 세계무역센터협회 아태지역회의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무역센터협회는 ‘통상부문의 국제연합’으로 일컬어지며, ‘무역을 통한 세계평화의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전세계 91개국의 297개 무역센터를 통해 75만 회원기업들의 국제교역을 촉진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무역진흥단체입니다.

이와 같은 WTCA의 ‘2002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대한민국의 경제·문화·산업의 중심지인 이곳,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1천만 경기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아·태 지역회의’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Tozzoli 총재님을 비롯한, 아태지역 세계무역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태 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중동 등 많은 나라에서 참가하신 기업인 대표 여러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역의 확대는 교역 당사국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세계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세계무역센터협회는 오늘날 국제경제의 세 중심축을 이루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세계무역기구와 더불어 인류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Tozzoli 총재님을 비롯한 WTCA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대표 여러분!

지금 국제무역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IT분야의 거품붕괴, 주요국 주식시장의 주가폭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세계무역규모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1.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경제성장률도 2.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년의 세계경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경을 초월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함께 인접국가간 지역 블록화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무역을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E-market Place'를 통한 수출규모가 2000년도 8억불 규모에서 2004년도에는 4,000억불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e-Trade Network'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최근 아·태 지역이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은 세계인구의 42%인 25억 7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61.6%, 교역량의 47.2%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세계최대시장인 중국의 WTO 가입과 개방 확대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아·태 지역내 세계무역센터와 기업인 대표 여러분들이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의 장'을 모색하는 자리를 경기도에서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나라의 발전에는 그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며, 오늘날 GDP규모와 교역 규모 세계 13위, 세계 1위 반도체 DRAM 생산국, 세계 1위 휴대폰 제조국 그리고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30%, 첨단산업의 37%, 반도체산업의 65%가 소재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선도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 도로 및 철도 복원사업의 남쪽 기착점인 도라산역이 위치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개발특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성공단은 이 도라산역에서 불과 8.8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남북한 철도연결로 ‘철의 실크로드’가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계하게 되면,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경기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상품과 사람, 기술과 정보가 아·태 지역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각국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Twin Tower'가 교역을 통한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영원히 각인되어 남았듯이, 오늘 개막되는 '2002 WTCA 아·태 지역회의'를 통해,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용기와 비전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성장 원동력이었던 무역과 투자의 활력을 회복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각 지역 세계무역센터간의 협력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WTCA 아·태 지역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되어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우리 1천만 경기도민의 뜨거운 우정과 환영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참석해 주신 김석수 국무총리님과 Tozzoli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한분 한분이 앞으로 계속하여 경기도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밑바탕이 되었을 때, 상호 공동번영과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진정한 의미를 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Guy F. Tozzoli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님, Dr. David Lee 세계무역센터협회 아·태 지역회의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현태 국회의원님, 박종희 국회의원님, 홍영기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2002 WTCA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의 성대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만찬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멀지 않다.’라는 유럽 속담이 있습니다. 동양의 현인인 공자께서도 ‘친구가 먼 곳에서 방문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여, 친구의 방문을 ‘인생의 삼락’ 중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본 ‘아·태 지역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먼길을 마다 않고 세계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경기도민들의 뜨거운 환영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막 첫날인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리에 개최된 개막식에 이어 경기도 기업환경 설명회, 무역상담회 참가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생산적인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며, 아울러 남은 일정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5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흐르는 역사·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방문이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의 정착과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고,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학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밑바탕이 되었을 때, 상호 공동번영과 평

화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진정한 의미를 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번 아·태 지역회의가 우리들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증진을 통해서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아·태 지역 각국 여러분들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 ‘교역을 통한 번영과 안정’이라는 WTCA의 이상을 구현하는 뜻깊은 행사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준비지만 이 자리를 통해 오늘 하루의 피로를 푸시고, 마음껏 편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전의 우승은 전도민의 기쁨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단기적 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수·임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의 영광을 이루어 냈습니다.

선수·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도는 금년도 2월에 개최된 동계체전에서 동계체전 사상 처음으로 우승한데 이어, 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과 소년체전을 비롯하여 금번 전국체전에서도 우승함으로써 지난해 잃어버렸던 체육웅도의 긍지와 도민의 명예 회복은 물론 우리나라 체육역사상 처음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전국규모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수·임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구리빛 얼굴과 늠름한 모습을 마주하고 보니 벅찬 감동이 용솟음침을 느낍니다.

자랑스러운 선수·임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도민 여러분!

금번 전국체전의 우승은 체육인들만이 아닌 도민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단합된 힘과 기상, 그리고 저력을 대내외에 확인시킨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체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단기적 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간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속의 경기도를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럽고 값진 쾌거를 위해 노력해 온 도민 여러분!

오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동안 피땀흘려 노력하고 온갖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여 우승의 영예를 안고 개선한 늠름한 선수단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

니까? 우리 모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00여 선수·임원이 우리에게 안겨 준 자랑스런 선물을 가슴에 담아,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다짐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선수단과 그동안 선수단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 여러분,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님, 시장·군수님, 특히 전폭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경기도정의 화두는 ‘창의’와 ‘힘찬 전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선도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3만 3천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환희와 격동의 2002년을 보내고 癸未年, 희망과 도약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2003년 새해에도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적 자긍심을 한껏 드높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해 나래를 활짝

했으며, 중·장기 발전구상을 토대로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정책목표와 실천수단을 정립한 한 해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를 세계적인 선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팍으로 경기도를 적시겠다’는 각오로 지난해 7월 2일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였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도정목표로 정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의 실현을 도정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도정운영을 위하여 ‘도정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도정운영의 ‘기본 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도정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셋째, 시·군 방문과 현장 확인을 통해 도민들의 생각과 욕구를 파악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국회 및 타 시·도와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정운영에 있어서는 계획과 시스템, 도민만족 및 대외협력의 기본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도정에는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교통·교육·환경 등 삶의 여건이 잘 갖춰진 자족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SOC 투자를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서울 출·퇴근 직장인 등을 위해 실시해 온 광역직행버스 시간 연장 운행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청 및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 해 기본계획을 완성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EU 국제학술회의와 WTCA 아·태 지역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중국의 광둥성·요녕성 등을 방문하여 양 지역과의 교류 심화와 관계 진전에 있어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평택항이 서해안 시대의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항로를 추가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항만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의 발달·국제화의 진전·지식경제의 등장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이웃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동북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불안하기는 하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IT경기의 상승세와 중국의 견고한 성장세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등도 우리에게 단합된 도정역량과 지혜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경기도정에 있어서 2003년은 민선 3기의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금년중에는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서울시 인구 규모를 능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의 인구 1천만 돌파는 외형적 규모의 증가에 걸맞은 질적 변화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도 자치단체(leading province)’로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2003년의 대외여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도가 적극 활용해야 할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회복의 불투명성과 북한의 핵 위기, 사회여건의 유동성 등은 도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은 경기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도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발전 만큼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인되는 경기도’가 될 때, 주변여건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참다운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시책화하여 중앙정부에 앞장 서 제안하고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의 협력 증대를 통한 지방 자치의 발전을 스스로 모색할 것입니다.

시·군간 현안문제들을 도의 광역조정 기능을 통해 해결하고, 시·군의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기도정의 발전과 1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경기도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중앙정부·타 광역자치단체·도내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3만 3천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주인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행정수도 이전·지역균형발전법 제정·남북교류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02년이 경기도정에 있어서 ‘시스템 복원’과 ‘토대 구축’의 해였다면, 2003년 경기도정의 화두는 ‘창의’와 ‘힘찬 전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3만 3천 공직자 여러분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력해 주신다면, 새해 경

기도정은 승리와 희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도정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인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민선 3기에는 도민들의 바램과 희망이 그 어느 때 보다는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직장과 함께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선진형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성장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내 모든 택지개발은 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무선 인터넷 연구소, 나노 팹 조성, 바이오 및 IT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 물류기지 건설·평택항 조기 개발·농업기반 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서는 제2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북·동부 지역 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을 민자 유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도가 앞장 서 나갈 것입니다.

교육수준의 향상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깊이 인식하여, 금년에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교육부문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교육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등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모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과 문화·학술·관광 차원의 ‘교류사업’도 힘있게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경기도가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에 발맞추어 파주지역에 대규모 공단 및 배후도시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통일의 전진기지’ 북부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부지역 개발의 청사진과 구체적 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북부지역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취약한 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극 배려할 계획입니다.

동·북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계신 고충과 불편을 줄이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21세기 ‘환경자원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부지역이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앙선·경춘선 등 광역전철과 간선도로를 조기에 건설함으로써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세계 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 2,200만 주민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관광·휴양지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같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중국·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는 싱가포르·네덜란드 등 강소국과의 교류를 모색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총정리하여 새해 초부터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권·재정권·지역계획권 확대 등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하루 빨리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2003년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융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진정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비단 인구가 많고, 지리적 여건이 유리하며, 경제적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지난 해 전국체전 우승을 비롯하여 4개의 전국대회를 석권한 것은 단순히 체육 분야만의 쾌거는 아닙니다. 도정의 모든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고 있고,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천 년 동안 문화적·역사적으로 한민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잠재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동경권·상해권 등 동북아시아의 선진지역과 당당히 경쟁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민선 3기’의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변함 없이 1천만 도민들과 3만

3천여 공직자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충북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해야 할 것은 당당히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와 국가발전의 참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기도민이 주인입니다

“첨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기도가 우리나라 지식산업의 중심지역 역할을 더욱 활력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회 김태정 회장님과 도민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민회 회원님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회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 민선3기를 출범하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도정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도정방침과 실천수단을 정립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도정에는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교통·교육·환경 등 삶의 여건이 잘 갖춰진 자족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한국·EU 국제학술회의와 WTCA 아·태 지역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을 비롯한 4개 전국 단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의 위상을 대내·외에 확인시킨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태경 회장님을 비롯한 도민회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회원님 여러분!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자세로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 방향의 제시와 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의 발전과 1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경기도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해안 시대를 맞아 항만, 공항, 고속전철 등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문 물류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총정리하여 제·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권, 재정권, 지역계획권 확대 등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하루 빨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IT·BT·CT 등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기도가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더욱 활력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조성에 발 맞추어 파주지역에 대규모 공단 및 배후도시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취약한 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극 투자할 것

입니다.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으로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회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교육여건은 지역사회의 생활 수준과 주거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살고 싶은 지역’, ‘학부모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교육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등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모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교육부문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회원님 여러분!

이제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일련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태경 회장님을 비롯한 도민회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도민회에서 향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1천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경기도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복지정책의 큰 틀이 중앙정부에서 짜여지는 것이라면, 그 틀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희망의 새해 癸未年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하시는 모든 일이 보람되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큰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승리로 국민적 자긍심을 한껏 드높일 수 있었으며,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식도 면면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과제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해 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기도의 사회복지관계자 모두가 함께 하는 신년회로서는 처음 마련되었다는 사실 또한, 새로운 한해를 열면서 변화와 도약의 경쟁속에서 ‘복지경기’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다짐과 변화의 시금석이 마련될 수 있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복지정책의 큰 틀이 중앙정부에서 짜여지는 것이라면 그 틀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어언 13년째로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의 활동과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지역별, 분야별로 발전의 속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확실한 비전과 전략으로 매진한다면 우리 도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복지지출이 낮아 국가발전 수준에 걸맞는 수준으로의 복지지출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특화된 복지대책 수립과 복지서비스 주체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경험한 저로서는 복지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방대한 경기도정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 지난 6개월간 고심한 끝에 기본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겠기에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기치아래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과 선진교육·문화라는 도정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거대한 이웃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 경제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 주변정세와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요인들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단합해서 도정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2003년은 민선3기의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1천만 인구 규모를 맞이하면서 이에 걸맞는 질적 변화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며, 복지를 비롯한 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도 자치단체(leading province)’로 나가기 위해 1천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도정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천만 도민의 바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SOC 등 경제인프라와 무선인터넷연구소, 나노팹 조성, 바이오 및 IT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지식 기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또한 물류기지 건설, 농업기반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교육문제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교육을 매개로 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과 문화·학술·관광차원의 ‘교류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경기도가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경기도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민족의 중심역할을 해 왔으며 이제는 동북아의 중심지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민선3기 임기동안 1천만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경기도와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협력과 당당함을 잃지 않으며 소신껏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민·관 협력의 기반 위에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올해에는 복지부문의 종합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확대와 사회복지관 건립추진 등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 보육,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이제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욕구가 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핵가족화, 이혼율증가, 여성의 참여확대로 우리 사회의 복지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상대적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흐름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빈곤과 불안정,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므로 그것을 막기 위한 더 많은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바로미터는 국민소득이 아니라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라고도 하는데 이 또한 복지와 연관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민간복지자원이 사회에서 잘 활용되어질 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1천만 도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이웃, 지역사회 모두가 복지주체로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지역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복지경기”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관계자 신년 인사회를 마련하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김문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올 한해도 평안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며 복지발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년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비전 2006’은 선진 통일 한국의 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인적자원의 질은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식경제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잠재력이 뛰어난 경기도가 선봉에 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3기 경기도가 앞으로 전력을 다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핵심적 실천전략을 오늘 이렇게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경기도정이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들과 3만 3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비전 2006’은 1천만 경기도정이 젊어져야 할 소임과 자세에 대한 확고한 자각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담아내려는 고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정의 기본적 임무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일이 걸리고,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지역발전의 기

본 토대인 물적·인적 인프라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도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취임 이래 지금까지 우선 경기도정의 ‘시스템 복원’과 안정적 ‘토대 구축’에 주력해 왔습니다. 인사를 포함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도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따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확립하였습니다.

계획과 시스템, 도민만족 및 대외협력의 기초에 따라 도정목표와 집행전략의 일관된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제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금년은 민선3기의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향후 3년 반에 걸쳐 우리 도가 집중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갈 역점사업을 선정하고자 고심해왔습니다.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민선3기 경기도정의 목적지와 좌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추진력을 부가하는 것이 지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경기비전 2006’은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하되, 민선3기에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역점시책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가 1천만 도민들에게 2006년을 향해 경기도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실천전략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도정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분명한 좌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참다운 주인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시된 10대 정책분야와 역점사업의 선정에는 도정방침과 도정여건, 최근 5년 간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그리고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만의 정책적 특징과 도정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민선3기의 도정운영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로의 재편’을 바탕으로 ‘SOC 확충 · 일등 교육 · 깨끗한 환경’ 등을 통해 경기도를 21세기의 주역, 한국의 선도 자치단체로 만드는데 특히 역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 예산에서 가용재원의 반이 넘는 52.7%를 SOC사업에 편성한 것이나,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시책의 추진, 지표에 의한 환경관리,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의 모색 등은 민선3기 도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2006년까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지표화 해서, 앞으로 변화될 경기도의 분야별 모습을 현실감 있게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비전 2006’은 앞으로 도민들께서 민선3기 ‘경기호’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근거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수천년 동안 한국사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금도 활발한 R&D 활동과 첨단 제조업 등을 통해 전국 최대의 수출과 GRDP를 실현하는 한국경제의 심장입니다.

교통·교육·복지·환경 분야에 산적해 있는 당면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경기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기도가 지역 경쟁력과 삶의 질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도 자치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2006년 경기도의 모습에서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발전모델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선3기 ‘경기호’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합심해 나갈 때,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부터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10대 정책분야와 51개 역점사업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를 창출하고, 항만·물류·컨벤션 등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경기도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은 국내에서 가장 경쟁 잠재력이 우수하지만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난개발은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려 왔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의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 재조정 및 불합리한 기업활동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성장관리를 원칙으로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이제까지와 달리 경기도가 지역발전의 주도권을 갖고, 장기적 종합계획의 관점에서 '자족적 선진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평택항은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8,268만톤의 물동량 처리를 목표로 부두를 2006년까지 24선석으로 늘리고, 국제항로도 8개로 증설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에 대규모 복합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한국국제전시장은 2010년 350만명을 목표로 2006년에는 180만명의 참관객을 유치하고, 수원에도 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하여 경기도를 고부가가치 컨벤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써 경기도의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도로·전철 등 SOC의 확충은 도민들의 최대 숙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교통난 해소와 장기적 발전기반 확보를 위해, SOC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까지 168km의 고속도로망과 35개 노선 248km의 간선도로망, 78개 노선 418km의 보조 간선도로망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도시지역에 있어 전철망은 대중교통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철 수송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2006년까지는 전철연장을 160km로 늘려 전철 수송분담률을 23%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 전철망 및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식경제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잠재력이 뛰어난 경기도가 선봉에 서야 합니다.

지역 산업정책의 기초를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병행발전에 두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제품개발, 자금지원, 마케팅, 수출 등 종합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메카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고수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연구원’, ‘나노 특화 펩 센터’, ‘경기 바이오 단지’, ‘과학연구센터’ 등 첨단 R&D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신산업 시장의 50% 이상 점유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고도기술 및 첨단산업 중심의 내실 있는 외자유치를 지향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유통구조 개선,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인적자원의 질은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더구나,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지식경제 시대에 있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는 영어마을과 영어광장·영어싸롱·영어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2006년까지 초등학생의 30%, 중등학생의 10% 영어캠프 참가를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영어 1등 도’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기능 활성화, 실업계고 및 특성화고에 대한 첨단기자재 지원으로 산업현장 밀착형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성 능력개발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경기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 47.7%에서 2006년에는 54%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영재를 길러내기 위한 장학사업

과 과학교육의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은 우리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격적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하여 북부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북한 지방간 교류사업의 활성화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 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조성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발맞추어 통일의 거점 역할을 할 배후도시 의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개발의 본격적 추진을 통하여 경기북부에 각종 인프라를 확충 하고, 산업 및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 나가겠 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교육여건은 주거지 선택의 핵심 요소로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 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정운영에 있어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2006년까지 6조 5,774억원의 교육재정부담금과 5,80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투입하여, 경기도가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소도시에 ‘좋은 학교’ 육성 사업을 펼치는 한편,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여 소외되기 쉬운 농촌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학교를 커뮤니티 중심으로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목고 지원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안학교의 지원에도 유의하겠습니다.

정보과학 도서관 확충과 도서관 네트워킹에 주력하면서, 2006년까지 공공도서관은 100개, 어린이도서관은 10개소로 늘리고,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개교를 2005년으로 앞당겨, 만성적인 초등학교 원 부족 해소를 서두르겠습니다.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의 조성은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닙니다.

버스 전용차로제, 우선신호제를 도입하여 버스의 신속성을 높이고, 광역직행버스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0개 노선·21시간 시범운행 중인 광역심야버스를 올해 안에 30개 노선·24시간 운행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전철에 대해서도 서울시·철도청과 적극 협력하여 2006년까지 출발지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운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심야운행 체제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교통 결절점에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여 갈아타기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와 도내 사고 다발 지점에 교통시설을 보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심지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문물을 창조적으로 흡수·융합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실학·효 사상의 현대적인 재조명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남한산성', '회암사지', 연천 '선사유적지', '조선백자 도요지' 등을 발굴·복원·정비하여 교육의 장으로서,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오페라·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고, 국악의 전당·백남준 미술관·도립 미술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축제의 부재·관광기반시설 미비·빈약한 홍보체계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는 고양 관광문화단지 등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에 주력하면서, 2005년을 '경기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관광산업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여가와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읍·면·동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환경문제와 관련한 우리 도민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도민들은 지역발전의 최대 목표를 깨끗한 환경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먼저, 안양천·경안천·황구지천·신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을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수준인 BOD 10ppm 이하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3.4%로 끌어올리고, 6,500억원의 수질개선 종합대책비를 투자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 둔치에는 공원과 마라톤 코스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시내버스 3,429대 중 72%인 2,474대를 2006년까지 경유차량에서 천연가스 버스 차량으로 교체하여 도심에서도 쾌적한 대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숲’을 조성하고, 2012년 1억 그루를 목표로 한 나무심기와 도시공원 확충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시책의 전개는 선진 도정의 요건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도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확충과 시설지원, ‘도립 의료원’ 경영 혁신 등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2002년 89개소에서 2006년 168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100%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노인 종합복지회관 등 노인복지 시설을 2006년까지 현재의 약 2배인 168개로 늘리고,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비롯한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육아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립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 매년 3만호 가량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9개 소방관서 1,152명의 소방인력 및 380대의 소방장비를 보강하여 소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민주정치의 꽃으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길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조직·재정·정책평가 등의 행정시스템을 도민 본위의 투명한 참여행정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앙집권적 법령과 제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발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제·개정 작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기관, 도 출신 국회의원, 관련단체와의 사전협의와 공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향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10대 분야·51개 역점사업이 민선3기 동안 경기도가 추진할 사업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마련한 도정운영기본계획도 지속적으로 연동 관리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팔당 상수원 수질 관리·자원 재활용 등과 같이 경기도정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기존 시책사업 역시 소홀함이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선정한 51개 역점사업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사업과 민선3기의 경기도정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교육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넓은 이해와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시한 51개 역점사업의 목표들은 도정역량을 결집하여 최대한 달성해 나가겠지만, 추진과정에서는 유연성을 적극 발휘할 것입니다. ‘확고한 목표’와 ‘유연한 대응’을 모토로 하여 사업의 실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새로운 요구, 도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매년 도정운영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대부분 정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때에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서두르기보다는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성실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3만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경제로 상징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 진입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우리가 앞장서 이끌어 감으로써, 대망의 21세기를 ‘경기도의 세기’로 만듭시다!

이러한 우리의 원대한 포부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성원, 의회의 협력, 관계 전문가들의 폭 넓은 참여와 지원이 필히 요구됩니다.

‘민선3기’ 경기호의 선장으로서 ‘선진 통일한국’으로 가는 가교가 되어 줄 ‘경기비전 2006’이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서 나가는 과정에서 거센 도전과 벅찬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땀으로 적시겠다”는 각오로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힘쓰고 계신 대학교수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기업과 대학,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2003년 경기 e-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속의 경기도’, ‘동북아 경제 중심’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오늘의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인과 신현태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크숍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의 한정길 대표이사, 한국 통상정보학회 김선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부진과 이라크 정세의 악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기업인 여러분과 관련행정기관·단체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경기도는 320억 달러의 수출과 전국 대비 1/4이 넘는 2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경제의 침병으로서 무한경쟁의 최일선에서 분투하신 수출기업인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 국제화의 진전, 지식경제의 등장으로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생존이 불확실한(Winner takes all)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듯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2010년 세계 8대 무역국,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선진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의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 재조정 및 불합리한 기업활동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성장관리를 원칙으로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경기도가 지역발전의 주도권을 갖고, 장기적 종합계획의 관점에서 ‘자족적 선진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항만·물류·컨벤션 등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평택항은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8,268만톤의 물동량 처리를 목표로 부두를 2006년까지 24선석으로 늘리고, 국제항로도 8개로 증설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에 대규모 복합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한국국제전시장은 2010년 350만명을 목표로 2006년에는 180만명의 참관객을 유치하고, 수원에도 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하여 경기도를 고부가가치 컨벤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써 경기도의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지역 산업정책의 기초를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병행발전에 두되, 지식경제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인프라 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무선 인터넷 연구원, 나노 특화 팹 센터, 경기 바이오 단지, 과학연구센터 등 첨단 R&D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신산업 시장의 50% 이상 점유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고도기술 및 첨단산업 중심의 내실 있는 외자유치를 지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출기업인 여러분!

이렇게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Global Marketing)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통상예산 총액의 1/3 규모의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경기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박람회 참가, 통상촉진단 파견 등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개척활동을 계속 후원해 나갈 것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세계 유명 규격인증 획득, 해외시장 조사 및 무역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 수출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하여 이제는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으로 정착한 전자무역(e-Trade)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그리고 내빈 여러분!

‘동북아 경제 중심’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서나가는 과정에는 거센 도전과 벅찬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땀으로 경기도를 적시겠다”는 각오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간다면, 반

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동적인 견인지역으로서 그 역할과 시대적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계속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업, 대학 그리고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준비한 이번 '2003년 경기 e-비즈니스 워크숍'이 전문교수, 유관기관, 공무원과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교육을 통해 유익한 정보습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소수출기업인과 의원님, 유관기관 단체장, 교수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은 전진과 성취의 해

“우리의 비전은 경기도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도정 목표는 경기도가 21세기의 주역, 한국의 대표자치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앞장서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웅비의 癸未年를 맞아, 1천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경기도정이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민과 3만3천 공직자를 대신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 우리 경기도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성취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320억 달러의 수출과 2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고, 도정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빛나는 성과는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분발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합된 모습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2003년 역시 경기도에게 ‘전진과 성취의 해’로 기록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경기도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많은 불확실성과 기회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과 슬기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 등 충격과 불안 요인이 많은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가계 부실화로 인하여 내수경기의 부분적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증대와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긴장국면과 신정부의 정책변화 가능성은 도정의 중심을 잡는 노력과 함께 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도정운영에는 주변 여건의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정의 기초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 전개를 주도하는 기민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열린 ‘개방적 사고’와 ‘진취적 주인의식’으로 21세기 수도권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SOC 확충, 첨단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남북교류 등 지역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에 매진할 때입니다.

교육·교통·문화·관광·복지 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하나하나 착수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이미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2003년을 ‘경기도의 세기’를 향한 대 약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경기도를 세계적인 선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민선 3기 ‘경기호’의 비전과 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21세기의 주역, 한국의 대표 자치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앞장서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라는 4대 도정방침은 경기도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목표와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대 도정방침이 지향하고 있는 주요 과업들은 대부분이 인프라적인 성격을 띠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통일을 향한 인프라, 교통과 환경·교육·문화·복지를 위한 인프라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앞으로 경기도와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1개 시·군과 기업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요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실로 많은 자원과 오랜 시간을 요하는 대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 3기 경기도가 지금까지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도 이러한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발표한 ‘경기비전 2006’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전제로 민선 3기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기비전 2006’의 1차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년부터의 도정운영은 큰 목표를 향해 꾸준히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는 ‘황소걸음’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 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도정의 주요 사업과 추진시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은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규제 위주의 현행 수도권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획일적 규제와 소극적 ‘집중억제’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계획관리’ 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의 허브로서 굳게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다가올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평택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24선석 확보를 목표로 금년에는 동부두 3개 선석의 우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IQ 합동청사·홍보관 등을 금년 중에 완공함으로써 항만운영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에 생산·유통·R&D·비즈니스 기능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택 등 8개 시·군에 총 133만평 규모의 지역별 전문 물류기지를 조성한다는 장기적 계획 하에, 금년에는 평택·광주 등 2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2005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하여 착공을 서두르고, 금년 상반기 중에 수원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수도권 남부의 모범적인 벤처·국제업무의 중심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망·간선도로망·보조 간선도로의 확충과 상습 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 금년에는 1조7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2012년까지 총 1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전철망 사업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인천과 연결되는 광역도로를 정비하고, 난개발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총 2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9개 노선·13개 도로망의 확·포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디지털 혁명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식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첨단 지식산업이 밀집된 경기도의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경쟁력의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나노 특화 팹 센터’, ‘무선 인터넷 연구원’, ‘경기 바이오 센터’, ‘경기 과학기술 센터’, ‘국립 과학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8천9백억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4천억원의 신용보증을 비롯하여, 창업·마케팅·수출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메카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산업의 첨단화 못지않게 민생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통재래시장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2006년 11개소의 지역별 거점시장 육성을 목표로 금년에는 2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사업, 소자본 창업 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 복지시설을 15개소로 늘리고 100억원 규모의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 중의 하나입니다.

월롱·포승·현곡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하여 첨단·고도기술 분야의 외자유치를 본격화하고, 경인고속도로·의정부 경전철 등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16개국 21개 지역으로 국제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등 경기도의 국제적인 위상과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여주의 '대왕님표 쌀'·용인의 '오리농법'·화성의 '파프리카'·가평의 '잣' 등 특화농업을 육성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비율을 33%로 높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어촌관광마을' 등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7천만 민족 구성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본격적인 남북 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파주지역에 300만평 규모의 남북교류·협력단지와 배후 지원도시의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에 15개 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시설을 늘리는 한편, 판문점·임진각·DMZ 등 평화·생태 관광자원의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고, 북청 사자놀이·양주 별산대놀이 교환공연, DMZ학술회의, 농자재 지원 등 문화·학술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연장 139km에 달하는 북·동부지역 3개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간선도로망과 경의·경원선 등의 전철화 사업을 앞당기고, 각종 산업시설 입주에 대비하여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11개소 상습침수 예방시설의 조기 확충과 하도정비 사업, 낙후·소외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북·동부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쾌적한 삶의 환경’은 선진사회의 대표적인 지표이며,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올해 우리 도는 ‘광역 심야버스’ 24시간 운행·광역 직행버스 노선 신설 및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대한 1시간 연장운행 등 대중교통 운행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환승시설과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깨끗한 물·맑은 공기는 청정환경의 필수요소입니다.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하수처리장 71개소의 신·증설과 533km의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하천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하에 금년에는 6개 하천 41.9km에 대한 친수공간 확보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단 악취와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중에 250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도시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한 ‘1억

그루 나무 심기'와 '경기도민의 숲' 조성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시책의 전개는 선진 도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선진 복지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료 노인 전문 요양시설 7개소 건립, 6만 2천명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16개소로 노인자원봉사센터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31개소의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설하고 55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3만 5천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 신·증축 사업, 의료원의 전문화·특성화, 그리고 전염병 사전 예방·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부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5,286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동량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유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와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고치고, 무주택 저소득 계층을 위하여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10% 확보를 목표로 금년부터 연간 3만호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2006년까지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4,29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6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에 있어서 ‘선진 교육·문화’의 실현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제 교육의 질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주거지 선택의 주요 요소로까지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 및 대안학교 운영 지원 등 지역별·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 43개의 공공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목표 하에 금년에는 13개의 도서관을 신축하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와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영어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우선, 초·중등생 1,900명에게 여름방학 캠프를 실시하고, TESOL 대학원 등 캠퍼스형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계·특성화고’ 육성·지원, 산·학 연계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등 산업현장의 수요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까지 500억원의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금을 조성하여 고교에서 대학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을 전개하는 등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분야를 비롯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경기도의 한반도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3,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성·남한산성·회암사지·조선백자 도요지 등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를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 국악의 전당’, ‘백남준 미술관’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심 문화시설과 시·군 지역 단위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는 경기도 관광산업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극대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3대 글로벌 축제와 10대 이벤트를 개발하여,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상품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기반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조성,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레저·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체육융도’로서의 명성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 공직자 모두의 ‘주인의식’과 철저한 ‘도정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수조건입니다.

경기도정의 혁신은 ‘자치역량의 강화’와 ‘열린행정의 구현’에서 시작됩니다.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사·조직·계획 등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도정 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유

와 민원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도정 방향을 도민에게 설명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중앙부처·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정책결정·예산편성·도정평가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운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도민 여러분!

2002년이 경기도정의 ‘시스템 복원’과 안정적 ‘토대 구축’의 해였다면, 2003년은 민선 3기의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2003년 ‘경기호’는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이제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경기도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이 힘을 모을 때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기도가 21세기 ‘통일한국·선진한국’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는 영광스러운 평가를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도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시대적 요구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시대로서,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고 우리 여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또한 크고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여성 여러분!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희망찬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여성회관의 제1차 여성평생교육과정에 입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교육 개강식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교육생 여러분의 굳은 신념과 열의에 찬 모습을 뵈게 되니 경기도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아낌없는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정보화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될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는 감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여성들이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창의력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시대로서,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여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또한 크고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적 변화추세는 여성 여러분의 역할이 21세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아직까지도 사회적 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1세기에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미래를 위한 준비로써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여성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 여성의 현실여건 진단 및 전망을 기초로 경기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 발전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여성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도 18개 출연기관에 대해 여성취업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정책결정시 여성의견 반영을 위해 신규채용시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고, 공무원 채용시에도 여성채용할당제 30%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 경기 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 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전문인력 취업센터 설치 등 고학력 여성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 수요요구를 충족시켜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대상 폭력 방지를 위해, 안양 정진상 복지관에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여성1366’을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인권보호에 힘을 쏟겠습니다.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도민여러분을 위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세계적 선진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거대한 이웃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 경제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 주변정세와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요인 등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단합해서 도정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여성인 여러분!

2003년은 민선3기의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1천만 인구 규모를 맞이하면서 이에 걸맞는 질적 변화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며, 여성정책을 비롯한 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도 자치단체’로 나가기 위해 1천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도정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천만 도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전철망 확충 등 SOC 확충, 무선인터넷 연구원 설립, 나노 특화 팹 센터 유치, 경기 바이오 단지 조성 등 첨단지식 기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깨끗한 물·맑은 공기의 청정환경 조성,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문이므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교육을 매개로 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과 문화·학술·관광차원의 ‘교류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경기도가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1천만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경기도와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협력과 당당함을 잃지 않으며 소신껏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해결과제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3만3천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경기여성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여성평생교육이 여성 여러분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21세기 여성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경기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입교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성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0만 근로자와 함께 발전하는 도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신뢰와 화합을 기초로 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그 안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크고 어려운 책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경기본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신 황윤진 의장님이 물러나시고 새로 이화수 의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는 자리에 서로 사이 좋게, 화기애애하게 격려를 해주고 또 과거의 업적을 높이 사면서 인계인수를 해주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황윤진 의장님!

아주 구수하고 굵직한 목소리로 또 굵은 선으로 그동안 한국노총 경기도 300만 근로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또한 노사화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황윤진 의장님께서 의장을 보내신 그 기간은 바로 IMF로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근로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황의장님은 노사화합을 통해서 또 산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IMF를 극복하는 최일선에서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로종합복지관을 만들 노동복지기금을 만드시면서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이번 노총 경기본부의장을 이화수 의장님께 인계를 함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 노총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용퇴를 하며 후배에게 그 자리를 깨끗하고 떳떳하게 넘겨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로자 노동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아주 고귀한 뜻입니다.

오늘 취임하신 이화수 의장님은 화학연맹의장을 하시면서, 평택의 의장을 하시면서 오직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이제 경기노총이 또 경기도 근로자의 지위와 복리가 한층 더 격이 높아지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구리에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거기 나오신 택시운전을 하시는 근로자의 부인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택시노련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매상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다고 이

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IMF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더욱 어려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신뢰와 화합을 기초로 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이화수 의장님이 8대 의장을 맡으면서 담당하게 될 가장 크고 어려운 책무가 될 것입니다.

방금 강창수 한국노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새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노동정책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권익과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노력을 다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화수 의장님께서서는 이제 경기도 근로가족 여러분들의 지위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도 늘려가실 것이고 노동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이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화수 신임 의장님과 여러분들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 제가 한참 어려웠을 때 구로공단이나 탄광에서도 일을 하고 철공소에서 무거운 쇠를 나르면서 1년 이상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일선 생산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어려운 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책임자로서 행정의 한계도 또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자 여러분들과 노충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300만 근로자 여러분들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화수 의장님과 경기도가 굳게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홍영기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특히 여러분의 일을 직접 맡아보고 계시면서 바로 여러분과 같이 노동운동을 하셨던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홍규 경제투자위원장, 손창래 의원 그리고 이찬열, 엄종국 의원님, 이해문 의원님, 김인종 의원님 이런 모든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동지요 선배인 김윤주 군포시장님,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박신원 오산시장님,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노동운동과 행정의 협조가 굳건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노동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박우봉 노총의장님의 도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정계에서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 또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께서 여기 일부러 나오셨는데 이러한 분들의 노력과 따뜻한 성의가 노총의 발전, 노동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노동자분들께서 큰 힘이 되어서 8대 이화수 의장님의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에서는 화합과 평화가 또 근로현장에서는 복리가 증진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힘있는 노동자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황윤진 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수 의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계화의 기초를 튼튼히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오직 가진 것은 인적인 자원과 지리적 위치입니다.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 바로 언어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주신 발기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단법인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느끼셨겠습니까만 정말 화창한 봄날씨이고 산과 들을 가만히 보면 파릇 파릇한 새싹들이 제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봉우리들이 맺히고 있고 나무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봄기운이 우리 경기도 ‘영어마을’ 출발을 축복하고 또한 재촉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마을 설립은 민선 3기를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습니다.

한현규 정무부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공청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어마을과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영어마을 계획은 결코 입학시험에서 영어점수를 좀 더 잘 따기 위한 교육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 바로 언어 인프라 구축입니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오직 가진 것은 인적인 자원과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 생존하고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러한 비즈니스의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가 바로 언어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외국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한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이끌어 가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영어마을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래로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

국의 시도가 앞다투어서 같은 유형의 프로젝트 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도 또 사설 학습기관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커다란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가 국제화해 나가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도 영어문화원을 발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준비를 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준비된 기초 위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세로 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신 제프리 존스 선생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살아 있는 영어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영어라고 하는 언어 뿐만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제도, 그리고 문화가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문화원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고 특히 교육적인 영향, 효과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마을 조성을 해 나감에 있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교육청에서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지원국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발기인이십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영어교육·영어문화와 관련되는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발기인 대회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도청과 교육청,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폭넓은 참여를 위한 노

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어마을 발기인 대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영어마을이 출발에서부터 성공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와 화합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 세계속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신노사 화합문화의 구축이야말로 ‘선진일류한국’으로 도약하는 첩경이 되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사정 대표 여러분!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봄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이곳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노사정이 함께 모여 한마음 동반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남석현 경인지방노동청장님, 각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님, 기업체 대표님들 그리고 각 지역 노동사무소장님 등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 오신 한국노총 경기지역 본부와 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노사정 대표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여러분과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320억 달러의 수출과 2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도 IMF 이후 5년만에 1만불 시대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특히 노·사·정간의 화합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등반대회에 참가하신 노사정 대표 여러분!

최근 20여일간 계속되는 이라크 전쟁사태와 북한의 핵문제, 내수위축과 금융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경제 비상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중소기업자금지원 확대, 구조조정자금 증액, 신용보증기금 확충, 예산의 조기집행 등의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한된 수단밖에 갖고 있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며,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 자원뿐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살수 있는 길은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서로 단결하고 화합해 나가는 길뿐이라는 것

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뚫고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 더 나아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 사회 구성원간의 능동적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신노사 화합 문화의 구축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일류한국'으로 도약하는 첩경이 되어 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에 관련된 새로운 노동정책이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우리 도에서도 노사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노동복지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신 우수 기능인을 선발하여 매 분기별 '장인메달'을 수여하고 신뢰와 화합의 신노사문화 정착에 공헌한 노동단체·근로자·기업체를 선발하여 산업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정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 각국에서의 노사협력 사례를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대표자 여러분!

오늘 ‘노사정 한마음 동반대회’가 대자연을 함께 호흡하면서 서로간의 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동반대회가 경기도 지역의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반하시는 동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즐거운 산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사정 대표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차원의 인류평화 지원

“이번 결정은 경기도가 국내 순수 의료 민간단체들을 통해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류 평화와 사랑의 마음을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손학규입니다.

경기도는 이라크 전쟁 종전이 임박함에 따라 이라크 난민에 대한 의료 및 방역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료지원에는 그동안 UN을 통해 각종 전쟁난민과 재해지역을 위해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온 ‘글로벌케어’와 ‘경기도의사회’가 함께 하여 의료봉사활동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난민지역에 대한 방역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난민구호활동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지사’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의료지원단은 의사·간호사 등 총 100명(의사40명, 간호사35명, 자원봉사 등 25명)으로 편성되어 약 3개월간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4월 23일 20여명 규모의 제1진이 이라크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의료지원활동은 UN과 글로벌케어가 협의하여 활동구역과 지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분무기 50대와 실내외 살균·살충제 20,000ℓ 등의 방역장비와 방역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을 위해 4월 제1회 추경예산에 의료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차원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는 별개로 경기도가 국내 순수 의료 민간단체들을 통해 민간차원의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류평화와 사랑의 마음을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능인은 국부의 초석

“한나라의 기술과 기능 수준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화·세계화로 집약되는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가 곧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기능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기도의회 홍영기 의장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김선기 평택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온 누리에 꽃향기 그윽한 맑고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21세기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곳 평택에서 제38회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천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해 오신 하영근 평택기계공고 교장 선생님, 김고규 동일공고 교장 선생님, 김봉학 효명종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방사무소 최진탁 소장님을 비롯한 대회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실력연마에 정진해 오신 선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경기 기능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기술과 기능 수준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세계화로 집약되는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가 곧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나 지역을 떠나 어디서나 통용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 우리 도는 전국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강도 높은 실업대책으로 한때 10.2%까지 달했던 실업률을 현재는 3.2%로 안정시키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7.8%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생산활동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반면, 기업에서는 생산직 사원을 선호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능인 여러분이야말로 산업기술의 계승발전과 신기술을 개발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역으로 기능한국을 이끌어 가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과학기술인과 기능인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과학고와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참가 선수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과 정열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끊임없는 연찬으로 세계 최고의 장인이 되어 ‘기능한국’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대회는 기능경기를 통한 기술향상은 물론,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 기능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각자의 기술을 더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 도가 전국대회 2연패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들도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우리 도가 지난해에 이어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출전 선수 교장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형 보육시스템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보육인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영기 도의회의장님, 김대숙 의원님, 보육교사 교육원 연합회 이만수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도내 보육인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찬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최창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의 최일선에서 영유아 보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꿈과 희망인 어린 새싹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피 우리나라의 동량으로 길러주는 보육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선각자이며, 진정한 역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육인 여러분!

창의력과 지식기반이 요구되는 21세기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섬세한 감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여성들이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21세기 ‘여성의 세기’는 잘 짜여진 보육시스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보육시스템의 완비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도 보육사업을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아동교육은 조기화, 전문화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7%인 보육수요 충족률도 2010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기조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민선3기’ 경기도 역시 보육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그동안 보육인의 오랜 숙원이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분기당 30만원씩 지원하고 대체교사 인건비를 하루에 2만 5천원씩 지원하는 등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기자재를 현대화하고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동시에 전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육아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보육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알차고 내실 있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발표되는 귀중한 내용들을 보육현장에 접목시켜 나간다면 우리 경기도의 보육사업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 믿으며, 보육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는 인간중심의 시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친애하는 장애인 여러분!

오늘 ‘제2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많은 내빈 여러분과 함께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홍영기 도의회 의장님, 윤옥기 교육감님, 이승재 경찰청장님,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장애인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신 분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치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달성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고 있어, 우리 중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는 부끄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더구나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를 자신이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든 사람도 많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차관보에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사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된 삶이 보장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라크 전쟁, 북핵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타개를 위해 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여 경제의 성장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이뤄질 때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장애인·노인·여성·아동과

같은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제도가 보다 더 발전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민선3기 도정 역점시책으로 ‘경기비전 2006’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과 생활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을 증설해 나가고, 장애인 취업실태 조사와 함께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직업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금년 하반기에 개관하여 장애인 복지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고, 삶의 질이 강조되는 인간중심의 시대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보화 시대를 앞서갈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정보화 사업 분야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복지정책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최재근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화훼 농업인 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고건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싱그러운 계절에 ‘꽃과 인간의 환희’라는 주제로 ‘2003고양세계꽃박람회’가 열리게 된 것을 1천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훌륭한 ‘국민적 축제’이자 ‘세계인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강현석 고양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세계 각국에서 오신 평화의 사절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열릴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관람객들 모두가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생명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삶의 기쁨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이 세계를 향한 응비의 나래를 활짝 펴 나가게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화훼산업은 이제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첨단화·규격화를 통해 공산품과 같이 대량생산된다는 면에서는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명공학과의 접목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면에서는 응용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배 과정에서 온도·습도·채광·관수 등 생육조건을 미세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화훼산업은 곧 지식기반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의 소비수준은 곧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화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내 화훼품종의 육종 및 우량종묘 대량생산 보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고품질 첨단 재배기술과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화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전문판매장 확충, 전품목 경매시스템 운영, 꽃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여 꽃 소비시장을 넓혀 나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한 컨설팅 강화 및 시스템 개선, 첨단시설 위주의 화훼수출 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수출 전진기지를 확대운영하고 국제화훼무역박람회 참가 활성화를 통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화훼 농업인 여러분!

최근 한국-칠레간 FTA 타결과 WTO, DDA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개방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농업과의 경쟁, 특히 중국의 저가 농산물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선진 농업국 수준에 못 미치고,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만 합니다.

그 선봉에 화훼 농업인 여러분이 서 주셔야 합니다. 이제 화훼산업은 끊임없이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므로 그 개념이 ‘생산’에서 ‘창조’로 바뀌고 있으며, 첨단 과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화훼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훼 농업인 여러분이 화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훼 수출국으로, 그리고 선진농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꽃박람회가 열리는 이곳 고양시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양시는 서울 도심은 물론 김포공항과 인천 국제공항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시설,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의 중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고양시의 장점을 살려 국제 전시장, 외국인 관광숙박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컨벤션 시티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이곳 고양시는 21세기 통일한국 시대의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양시는 경기도의 4대 도정 방침인 ‘동북아의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그리고 ‘선진 교육·문화’를 실현하여 경기도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중에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꽃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과 축복을 선사해 줍니다. 더욱이 꽃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꽃이 없는 인간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꽃밭도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 역시 무한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 무역전쟁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03고양세계꽃박람회’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소리가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고양세계꽃박람회’가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박람회와 같은 세계적인 화훼무역전문박람회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축제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가 더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고양시민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난날 선배 근로자들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경제사의 한 획을 그었듯이,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근로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분들의 축제인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1천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해주신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님, 조용이 경기 경영자총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100달러에도 못 미치는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었습니다.

식량은 물론이고 국가예산의 대부분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난을 극복하고자 60~70년대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업 입국’, ‘수출 입국’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구로·마산·창원공단을 건설하고, 독일에는 간호사·광부를 파견하였으며, 사우디·쿠웨이트의 건설현장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사막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선진국만이 가입하는 OECD에 가입할 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로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가 한때 IMF를 겪기도 하였지만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013달러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IMF 위기를 벗어나는 데에는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320억달러의 수출과 28억달러의 무역흑자

를 기록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 동북아 경제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이러한 놀라운 성과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경기도 근로자 여러분들의 자기희생과 노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근로자 여러분께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근로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 북한 핵 문제의 여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확산 등으로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설비 투자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상황도 IT분야 및 기계장비 분야에서는 생산지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소매 판매액 하락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지난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내수둔화와 수출퇴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자,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내수시장을 진작하고,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지원, 파주 LG 필립스 첨단산업단지 및 수원 이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할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 공공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영세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 영유아 보육사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노동복지기금을 확충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채용박람회와 적은 자본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실습 장비를 지원하고 장학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대학의 과학기자재 보급과 여성과학 기술자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산업인력 기능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제회생과 근로자 여러분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근로자 여러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근로자 여러분!

지난날 선배 근로자들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경제사의 한 획을 그었듯이,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후손에게는 세계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에게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근로자 여러분의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자 새로운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힘찬 결의와 다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화수 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린이는 희망의 상징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제81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주신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심양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표창을 받으신 모범 어린이와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방정환 할아버지께서는 어린이가 ‘겨레의 꿈이요 희망’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새싹’ 이자 ‘보배’ 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책도 많이 읽어야 하며 컴퓨터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앞날은 물론이고 국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1천만 도민 여러분!

어린이는 누구나 무한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 현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러한 뜻을 기리며 어린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어린이현장에도 나와 있듯이 어린이는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하며,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훌륭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스런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어른들의 기대는 무한히 크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뜨겁습니다. 5월의 눈부신 햇살마저도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높은 뜻을 세우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힘을 모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280만 경기 어린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보는 국가 발전의 초석

“사실 군입대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군 복무를 한 뒤 돌아해보니 군생활은 신이 내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경기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손학규(孫鶴圭·56) 도지사에게 군 생활에 대한 기억은 보통의 소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추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손지사에게 3년(1969~72)간의 군 생활은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삶 전체에서 각 별해 보였다. 평소 서민적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도지사답게 예비역 육군병장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군 선배라는 동료의식 속에 친근한 감정을 갖게 했다. 봄비가 시원스럽게 쏟아지던 지난 달 25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손지사는 국군장병들의 대변지 국방일보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며, 군과 장병들에 대해 평소 느꼈던 생각과 경기도를 안보의 1번지이자 통일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려는 계획 등에 대해 소상히 들려줬다.

사회자 : 후배 장병들에게 인생 선배이자 군 선배로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지사 : 사실 군 입대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생활의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산폭

격·선착순 등 기합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군복무한 뒤 돌아와보니 군 생활은 신이 내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밑바닥을 경험하며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도 주어진 군복무 기간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며 성실히 생활하다 보면 훗날 인생에서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익힌 인격적인 성장은 일생에 걸쳐 삶의 훌륭한 자양분이 돼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 오늘날 병영은 여러 모로 많이 발전했는데 과거의 병영생활은 어떠하셨는지.

도지사 : 솔직히 대학(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시절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탓에 군에 가서도 요주의 인물로 찍혀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군이나 사회나 다 배고프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실제로 35개월 내내 특박 한번 간 적 없이 제대하는 날 아침까지도 제대복을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부대(당시 105군수지원사령부 207병기단) 대표로 사격대회에 나가 명사수 소리를 들은 기억도 새롭습니다.

재미있었던 일은 당시 간부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군수품을 몰래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을 거부했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지만 끝내 버틴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맏집이 좋다는 의미로 ‘맏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군 생활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고참이 되어서는 하급자들에게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급자들에게 호된 기합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합을 받은 분들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평소 안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도지사 : 이라크 전쟁·북핵문제 등 우리의 안보환경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격변의 한반도 중심에 우리 경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철수 등 전통적인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코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익을 위한 냉정한 현실인식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안보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남북문제와 한·미간 우호·협력, 그리고 동맹관계를 좀 더 냉정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를 안보의 중심지로 여겨 안보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안보가 국가안정을 뒷받침하고 그 기반 속에 남북교류를 활성화한다면 경기

도가 통일의 기반을 갖춘 중심지로 크게 각광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의 역할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대화·교류하며 관계를 쌓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경기도와 군부대의 협력체계는 어떠한지요.

도지사 : 경기도가 안보의 요충지인 것은 미군을 포함, 3군(육·해·공)과 해병대 주요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3%가 군사관련지역이며 세계 유일의 휴전선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한을 육로로 관광할 수 있는 관문이자 경의선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실질적인 통일의 전초기지입니다. 때문에 경기도와 군의 협력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현재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과 실전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 다양한 민·관·군 협력사업(5개 분야 17개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은 분야별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도내 민간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 일손 돕기·수해복구·방역사업·자연정화운동 등은 군장병의 지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군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이런 점에

서 경기도와 군부대 간의 협력체계는 윈-윈 관계 속에서 더욱 발전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는 누구인가.

손학규 도지사는 경기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가이면서 학자·정치인이기도 하다.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했으며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거친 정치학 박사다. 인하대·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1993년 제14대 국회의원이 된 이래 3회 연속 당선, 정치가로 활약하다가 2002년 6월 선거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됐다.

도지사 취임 후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를 도정 방침으로 삼아 경기도를 안보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는 등 '안보도지사'로 유명하다.

안보와 관련한 군행사가 있을 때에는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정도로 군관계를 중요시 하면서 주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돌파, 민·관·군 간의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여러 현안에 대해 빼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편집자주>

쾌적한 환경보전은 시대적 책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경기북부지역 환경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도지사로서 항상 마음에 큰 빛을 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고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3기 ‘경기호’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도정 목표로 삼고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 실현을 4대 도정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와 4대 도정방침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기도를 ‘세계적인 선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민선3기’의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도정방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를 ‘세계적인 선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방침들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4대 도정방침이 서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도정방침 중에 하나인 ‘쾌적한 삶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경기도가 ‘동북아의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깨끗한 물·맑은 공기의 청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을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못지않게 환경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지역임을 명심하고 각종 도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하여 구리권역(구리+남양주)과 파주권역(파주+김포)은 기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북부권역(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명지산·청계산 생태계 보전

사업과 가평 연인산의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외래 위해(危害) 식물인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군인·환경단체·주민들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퇴치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작년말 현재 85%인 상수도 보급률을 2006년에 95%까지 높이고자 상수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염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신천·포천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38개소인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2006년까지 8,613억원을 투자하여 79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발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 및 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및 전광판을 확대 운영하고,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의 다양한 주요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NGO 등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혜를 모아 함께 일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도의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

해 주신 환경단체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 지식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우리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며,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을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종걸 국회의원님, 심재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계절의 여왕 오월을 맞이하여 안양지역 첨단 지식산업의 발전을 이끌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가 개원하게 된 것을 1천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중대 안양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곳에 입주하신 벤처기업인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80년대의 안양시가 전통 공업도시였다면, 이제는 첨단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 분야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집적된 지식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에 과도한 규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촌 도심지 일원을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안양벤처밸리’로 선포하고,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의 유치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온 신중대 안양시장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지식산업센터의 개원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정보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안양지역의 강점인 첨단 IT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다시 한번 안양시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 시대입니다.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첨단 지식산업 분야에서 뒤처지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지금 세계 각국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지식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을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에 차세대 IT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연구원’을 개원하였고, 초극미세기술 개발을 위한 ‘나노 특화팹센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BT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안산의 경기 테크노파크에 바이오벤처센터(사업비 40억원)를 설치하는 한편, 대규모의 ‘경기바이오단지’를 구축하여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는 경기도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공계 대학의 기자재 지원과 과학고 및 실업계 고교의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시책들은 첨단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기업인 여러분들이 경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 주셔야 합니다.

오늘 개원하는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가 세계 경제를 호령하게 될 한국벤처기업들의 요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이 센터가 설립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지식산업의 요람 ‘경기 테크노파크’

“21세기는 지식이 국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산업 시대입니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님, 김영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첨단산업도시, 문화도시로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곳 안산시에서 5년간의 대역사를 마무리하고 서해안 시대 기술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기테크노파크’가 개원하게 된 것을 1천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개관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님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관 협력사업을 몸소 실천하여 주신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6개 대학의 총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대 민선시장 당시 경기 테크노파크를 유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건립공사까지 마무리 지으시는 열정과 독심을 보여주신 송진섭 안산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송시장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사심 없는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어 경기테크노파크가 반드시 전국 최고의 테크노파크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곳에 입주하신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오늘 개원한 경기 테크노파크는 외국의 유명 연구센터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지여건도 그 어느 지역의 테크노파크보다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 유수의 6개 컨소시엄 대학,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의 연구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반월·시화공단 등 대규모 공단이 인접해 있어 연구·개발된 기술을 신속하게 첨단제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시화·반월공단은 물론 화성·평택을 비롯한 경기 서부권의 전통 제조업체들에게도 기술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정밀화학, 정밀기계, 정보통신, 전자부품 4대 특성화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분야의 R&D 기반이 마련된다면 ‘기술한국’, ‘선진한국’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입지환경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완비한 테크노파크를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 기술혁신의 핵심주체로 활용해 나가고자 안산시

와 협의하여 테크노파크의 명칭을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경기 테크노파크로 변경한 바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 테크노파크에 미래 고부가가치 BT산업의 육성을 위한 '바이오벤처센터'를 설치하고자 도비 40억원을 이곳 테크노파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테크노파크가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 벤처창업, 기술혁신 등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경기도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1세기는 지식이 국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산업시대입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 각국은 IT·BT·NT 등 첨단분야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국가와 지역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지난 수천년 동안 한국사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전국 지식기반 제조업의 40%,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23%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심장부입니다.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은 경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경기 테크노파크가 명실상부한 산업클러스터의 한축으로서 수원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양의 지식산업센터와 더불어 경기중남부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기북부지역에도 테크노파크를 유치하여 경기도 전역을 R&D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들이 경제일선에서 신명나게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경기테크노파크’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안산시 관계공무원과 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사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다에는 무한한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바다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바다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희망과 미래를 발견합니다. 저 평온한 바다, 그 안에 들어가보면 또 무수한 보물들이 그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어업인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에 제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 중심지가 될 이곳 화성시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다는 참 좋은 곳입니다. 오늘 제가 이 행사장에 도착하면서 이 바다의 낭만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바다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앞 바다의 저렇게 많은 배들이 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다의 아름다움과 친근함이 다시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냥 바다를 보고 있으면 널리 펼쳐 있는 것, 그것 하나만 봐도 마음이 훨씬 터지는 것이 바다입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를 보면 또 바다 앞에 나가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평선을 보면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바다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희망과 미래를 발견하게 되며, 저 평온한 바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무수한 보물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인류를 이만큼 번영하고 살찌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여기 장병들도 계시고 해군이 계시고 해양경찰이 계시고 또 수중구조대도 계시고 합시다만, 바다는 또 그 위에서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순식간에 사람을 삼키기도 합니다. 평온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바다입니다.

요즘은 풍부한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이 되어서 이를 둘러싼 경쟁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다인데 어족을 둘러싼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요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시는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많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산업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어장이 과거에 비해서 날로 축소되고 있고 어족자원도 감소 추세에 있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WTO 도하 아젠다 협상에 따라서 수산물 수입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어업인들과도 합심협력해서 이러한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수산국가의 위상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어업인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수산업 체제를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과 다양한 자원조성사업을 통해서 어업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을 살맛나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어촌어항종합개발을 보다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어촌의 특색을 살려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안전망 확충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친애하는 어업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저 연례적으로 한번 돌아오는 날이니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민관이 합심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한편에서는 대륙의 끝이지만 달리 보면 태평양을 향한 시발점입니다. 또 이쪽 서해안은 중국을 향한 우리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희망찬 앞날을 다지는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강성구 국회의원님이 참석해 주셨고, 또 여러분의 친근한 벗이고 어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써주시는 우호태 화성시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의 수산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신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 또 이 지역 출신의 정연구 도의원님, 금종례 도의원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 황은성, 김갑수, 유영선, 이용우 도의원님 그리고 엄정국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산활동·해양활동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써주시는 김수훈 인천해양경찰서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자이신 박학순 경기남부수협장님, 이정식 경인북부수협장님, 박정재 옹진수협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수중구조대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 또 군장병 여러분, 해군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수고를 해주신 해병대사령부의 군악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따라주는 정치인

“세계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다는 환상과 망상 때문에 북한이 망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자주와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善, 관념적인 도덕만 가지고는 번영은 커녕 생존도 하기 어렵습니다.”

孫鶴圭(손학규 · 55) 경기도지사는 부드럽다.

국회의원 시절 여의도 의원회관 방으로 찾아가면, 茶器(다기)를 펼쳐 놓고 차를 따라 주곤 했다. 잔이 비면 찻 주전자에 든 물을 계속 따라 주었다. 「어때 이렇게 먹으니까 참 맛있지」라며 재미있어 했다.

설악산 신흥사의 會主(회주)인 오현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그는 「스님들하고 만나면 마음이 잘 통한다. 그 분들이 茶道(다도)를 가르쳐 줬다」고 했다.

그는 7년전부터 불교 조계종에서 시상하는 「萬海大賞(만해대상)」의 심사위원 자리를 맡고 있다. KNCC(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운동 간사로 사회운동을 펼쳤던 그가 만해대상의 심사위원이 된 것을 보면, 그의 交遊(교유)에 경계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孫鶴圭 의원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정치부 기자들의 투표에 의해 「가장 신사적인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2000년과 2001년 연이어 백봉 羅容均 선생을 기리는 「백봉 신사상」을 받았다. 2001년에는 제2정무장관실(여성부의 전신)과 여성신문사가 수여하는 「평등 부부상」을 받았다. 까탈스러운 기자들에게, 가장 혹독한 관찰자인 아내에게서 꽤 괜찮은 남자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은 셈이다.

그 부드러움 때문에 정치인 孫鶴圭가 싫다는 사람도 가끔 있다. 「1993년 경기 광명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金泳三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로 승승장구했지, 무슨 투지를 보여 주었느냐」는 얘기들이었다. 전형적인 경기高 모범생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들어 봤다.

孫지사가 1965년 서울大 정치학과에 입학한 후 朴正熙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15년간 걸어난 길을 보면, 그가 결코 부드럽기만 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韓日회담 반대 데모로 시작된 서울大 문리대 시절 그는 시위로 투옥됐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소설가 黃皙暎(황석영)과 함께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구로공단에 뛰어들었고, 탄광·철공소·목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수배와 도주를 반복했다.

1973년부터 청계천 빈민가에서 朴炯圭(박형규·現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 이사장) 목사 등과 손잡고 기독교 사회운동을 벌였다. 청계천에서 활동 중 한 차례 더 옥고를 치렀다.

朴正熙 체제의 종식과 함께 그는 사회운동에서 손을 떼고 영국 유학을 떠났다.

직업 혁명가로서 대한민국 체제의 변혁을 꿈꾸던 그는 영국에 유학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화해했다. 1980년대 후반 主思派(주사파)가 횡행하던 운동권과 스스로 선을 그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정계에 뛰어들었다.

지난 5월13일 화요일 오후 4시 수원 경기도청 인근의 도지사 관저에 도착하자, 낡은 티셔츠 차림의 孫지사가 기자 일행을 맞았다.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은 여전했다.

인터뷰 자리에는 경기도 공보관인 車明進(차명진·43)씨가 배석했다. 車씨는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의 공보보좌역으로 오랫동안 일했고, 李후보를 도와 지난 大選을 치렀다. 그가 지난 3월 경기도 공보관에 임명되자 일요신문 등 몇몇 주간지에서 「孫鶴圭 지사가 홍보 전문가인 차명진씨를 영입해 5년 후의 大選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孫지사는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옛날 얘기를 하나 했다.

직업 혁명가를 꿈꾼 15년

『대학 2학년 때 데모를 하다가 동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어요. 그때 같이 수감된 대학의 선배 하나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2년 후에 고시에 합격하고, 판사를 10년쯤 하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그때 「아, 이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가」 하고 자책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질 않더라구요. 내가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이런 저런 준비를 하겠다, 그게 되겠어요?』

“孫지사가 1965년 서울大 정치학과에 입학한 후 朴正熙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15년간 걸어간 길을 보면, 그가 결코 부드러움만 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직업 혁명가로서 대한민국 체제의 변혁을 꿈꾸던 그는 영국에 유학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화해했다.”

시위 얘기가 나와서인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의 학생운동 시절로 이어졌다.

– 대학 2학년 때 시위를 하다가, 무기정학을 받고 강원도 함백의 탄광에서 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탄광으로 간 계기가 있습니까.

『무기 정학은 기한이 없으니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죠. 지도를 펴놓고 탄광지대가 어딘가 찾다가 함백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인생의 막장이 라는 탄광의 막장에서 일해 보자」고 비장한 각오로 갔는데 현실을 전혀 모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막장은 보수가 제일 높아서, 나 같은 초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틀쯤 기다리다가 「보다 가시」라고 選炭(선탄)하고 나오는 버력을 버리는 일을 했어요. 기술이 전혀 필요 없고, 임금이 제일 낮은 일이었어요. 산비탈에서 貨車(화차)를 획 돌려 쏘는 일인데 잘못하면 사람까지 같이 돌아가요』

– 시위에 단순히 참여한 것 하고, 「基層(기층) 민중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학 2학년 때부터 「앞으로 직업 혁명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韓日회담 반대로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3학년이 되고서는 직업이 학생 운동가가 됐어요. 학교 시험을 우습게 알았고, 고시 보는 친구들, ROTC 하는 친구들을 의식이 없다고 비웃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 직업 혁명가를 꿈꾸는 생활을 계속 한 거죠』

- 그런데 탄광 일은 왜 그만 뒀나요.

『한 달쯤 일하다가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내 무기정학이 해제됐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신문기사에 났어요. 그리고 보니 참 옛날 얘기다. 학교에 가니 다른 애들은 정학이 풀렸는데, 나는 연거푸 맞은 두 개의 무기정학 중에 하나만 풀렸다고 해요. 한 학기 쉬었어요』

- 체제에 불만을 품고 在野(재야) 反정부 투쟁에 뛰어들어 1970年代가 끝날 때까지 일로매진했지요. 혹시 자랄 때 집안이 어려웠습니까.

『아버지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로 일하셨고, 어머니도 교편을 잡으셨어요. 제가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4남3녀를 데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큰누나와 큰형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큰형은 나중에 대학을 나왔어요. 큰 재산은 없었지만, 시흥에 논밭이 조금 있어서,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애국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해라」 이런 訓育(훈육)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金芝河(시인), 金道鉉(前 문화체육부 차관), 玄勝一(한나라당 국회의원), 金正男(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같은 문리대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 의식화된 거죠. 저는 순진한 아이가 이데올로기적인 학생 운동권에 엉뚱하게 接木(접목)된 케이스예요』

「또박이」 기질 때문에 학생운동 리더 돼

孫지사는 『경상도 출신이 장악한 문리대 운동권에서는 경기高 출신들은 잘 받아주지도 않았다』며 『매사를 또박또박 처리하는 「또박이」 기질 때문에 결국 서울大 학생운동의 리더가 됐다』고 했다.

『韓日협정 반대 시위를 할 때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맨 앞줄에서 플래카드를 들

“지도를 펴놓고 탄광지대가 어딘가 찾다가 함백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인생의 막장이라는 탄광의 막장에서 일해 보자」고 비장한 각오로 갔는데 현실을 전혀 모른 거예요.”

든지, 유인물을 돌렸어요. 단식농성을 할 때 다른 애들은 슬쩍슬쩍 나가서 뭘 먹고 와요. 그러면서 「단식은 다 먹고 하는 거야. 우리가 몸을 버리기 위해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기 위해 단식한다」고 아주 어른스러운 얘기를 해요. 나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단식하면 사나흘 꼬박 굶고, 단식 끝내고 데모하러 나가서 붙잡혀 가서 또 두들겨 맞고…」

그는 문리대 학생운동의 주축이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멤버들이 구속되고 연구회가 해체되자, 「후진국 문제연구회」를 만들어 이 단체를 주도했다. 「민족문제 연구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민족이라는 말이 스탈린주의식 개념이라고 해서, 후진국 문제연구회로 개명했다고 한다. 후진국 문제연구회는 1980년대까지 맥이 이어지는 서울대학교 중요 이념 서클의 하나다.

- 1960년대와 197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 기반도 민족주의와 反美, 사회주의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미국 대사관에 불이 붙었다. 잘 탄다」였으니까. 反日 민족주의가 슬쩍 反美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反매판, 反재벌이 더해졌죠.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초년병들의 필독서가 김성두의 「재벌과 빈곤」, 라이트 밀즈의 「들어라 양키들아」였어요』

- 당시 운동권이 毛澤東(모택동)의 중국과 胡志明(호지명)의 월맹에 상당히 경도됐었죠.

『1960년대 중반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은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左翼 역사책, 이른바 「마분지 이론서」를 교본으로 했습니다. 「세계사 교정」, 「조선사 교정」, 「조선사회 사상사」를 읽었어요.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毛澤東의 「모순론」, 「실천론」, 「新민주주의론」이 새로운 교재가 됐어요.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큰 모순과 작은 모순이 있는데, 작은 모순은 보류해 두고 큰 모순을 주된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毛의 논리에 매혹됐어요』

-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 입대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네, 3학년 끝나고 영장이 나와서 곧 바로 입대했어요. 학생운동 출신 중에 일부 친구들은 「군대가는 건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이다. 거길 왜 가느냐」고 했어요. 관념적으로는 직업 혁명가를 꿈꾸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35개월을 特泊(특박) 한 번 안 나오고 사병으로 복무했어요. 제대하는 날 오전에 제대복 입고 근무하고, 중대장·선임하사 하고 점심 먹고 나왔어요』

-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전반부는 포천, 후반부는 파주에서 했어요』

黃皙暎과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

그는 『3년간 사병으로 軍 복무한 게 인생에 큰 보탬이 됐다』고 했다.

『경기高·서울大 나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빼뚫어진 자만심으로 툭툭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고참이고, 장교·하사관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내가 승복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배우고, 사람에게 겸허해지는 경험은 군대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관념적으로는 직업 혁명가를 꿈꾸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35개월을 特泊(특박) 한 번 안 나오고 사병으로 복무했어요. 제대하는 날 오전에 제대복 입고 근무하고, 중대장·선임하사 하고 점심 먹고 나왔어요.”

1972년 4월에 제대하고 복학한 그는 1971년 張琪杓(장기표), 金槿泰(김근태), 李信範(이신범) 등이 연루된 「서울大생 내란음모 사건」을 피해 갈 수 있었다. 1972년 10월 「10월 維新」이 선포됐지만, 그는 다음해 봄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사회혁명의 길로 나선다」는 각오 아래 구로공단으로 뛰어들었다.

『소설 쓰는 黃皙暎씨와 의기투합해서 둘이서 구로공단에 조그마한 자취방을 얻어 놓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기업체들이 「중학 졸업」 학력을 요구했어요. 경기중학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취업이 되겠어요? 黃皙暎씨는 명문인 경복중학에 들어갔지만, 퇴학 맞고 제적당하고 해서 중·고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취직이 쉽게 됐어요.

黃皙暎씨가 「너는 형편없는 학교를 나와서 취직도 못한다」고 놀렸어요. 그래서 국졸 학력만 요구하는 목공장에 취직했어요. 몇 달 다녔는데 그 회사 간부가 제동장이었어요. 維新 후라 서슬이 퍼런 시절이었어요. 다른 직장을 찾겠다고 구로공단에서 뒹굴었죠』

그 무렵 그는 朴炯圭 목사를 만난다.朴목사는 『노동운동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빈민선교』라면서 孫鶴圭를 기독교 사회운동에 끌어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權皓景(권호경·前 기독교 방송 사장), 金東完(김동완·現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공동대표) 전도사와 함께 청계천의 판자촌으로 선교활동을 위해 들어갔다. 1973

년부터 1970년대가 끝날 때까지 그는 기독교 사회운동에 매달렸다. 朴炯圭 목사가 그에게 목사가 되라고 권했으나,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며 거절했다.

『목사들이 女工(여공)들을 교육시키고, 조직화하고, 그 험악한 시절에 노동조합도 없는데 파업을 유도하고, 동시에 여공들이 주체적인 삶에 눈 뜨게 하는 일을 했어요. 金泰壹(전태일)의 죽음이 기독교를 일깨우고, 기독교는 진보적인 「혁명의 신학」, 「희망의 신학」으로 선회했어요. 목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기독교가 민주화 인권운동의 우산 역할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운동의 실체고 동력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운동권 친구들로부터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기독교는 결국 우리의 적이다」고 비판을 받았고 일부 목사들로부터는 「孫鶴圭는 기독교에 침투한 불순세력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았어요」

1974년 4월 발생한 민청학련 사건의 극형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1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서 그해 3월5일 결혼했기 때문에 모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李哲(이철), 柳寅泰(유인태)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공소장에는 「孫鶴圭의 결혼식장에서 민청학련 결성을 모의했다」는 혐의 사실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다.

制世그룹 李彰雨의 철공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해

孫지사는 1975년부터 2년간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했다.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어요.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회」를 잡으려고 金觀錫(김관석), 朴炯圭, 權皓景(권호경) 목사 등을 구속시켰어요. 총무인 내가 모든 장부와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내 검거에 2계급 특진을 내 걸었어요. 내가 반공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지, 목사도 아니지, 뭔가 크게 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달려 든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기독교계와 정부가 협상을 벌여 유야무야됐어요. 나는 2년간 숨어 살면서 철공소에서 일을 했어요」

– 어디에 있는 철공소입니까.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철공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어요. 나중에 制世그룹을 세운 李彰雨(이창우) 선배의 철공소였어요. 이 양반이 서울大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나를 가명으로 일하게 했어요』

– 용접기술을 정식으로 배웠습니까.

『「시다」 하다가 간단한 용접 정도를 했고, 정교한 건 못했어요. 1년 좀 넘게 했어요. 그 전에 반년쯤 강원도 원주의 과수원에서 일했어요』

그는 검거를 피해 다니느라 어머니의 임종을 못지켰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孫지사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4~ 5개월 전에 암으로 입원 중인 병원에 돈을 3만원 가지고 몰래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이놈아, 우리 집안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빨리 가라」고 하세요. 우리 형들이 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위협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3만원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 빨갱이 돈 아니냐」고 해요. 그런데 그 돈은 그날 아침 어머니가 막내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주신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공산당의 사주로 나쁜 길에 빠졌다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더 극렬하게 저항하고…」

維新시절 이뤄진 수많은 시국사건과 시위에 그는 간여했다.

趙英來(조영래)가 쓴 「全泰壺 평전」, 金芝河의 양심선언을 옥중에서 빼내 일본으

로 내보내 출판했고, 구속자가족협의회를 만들고, 東亞鬪委(동아투위)의 투쟁을 지원했다. 그는 10·26을 부산 인근에 있는 보안부대 취조실에서 맞았다.

『釜馬(부마)사태가 일어나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내려갔어요. 보안사에서 이틀간 나를 추적하다가 끌고 갔어요.釜馬사태를 민청학련 사건처럼 만들려고 달려들었어요. 중앙정보부 對共수사단장이 수사팀을 이끌고 내려왔어요. 보안사 들어가서 이틀 동안 不問曲直(불문곡직)하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신문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끝났어요. 사흘쯤 더 지나서 朴正熙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보안사에서 아무 일 없이 풀려났나요.

『권력의 진공상태가 생기니까. 중앙정보부의 對共 수사관들이 황급하게 다 돌아갔어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朴대통령이 안 죽었으면 내가釜馬사태의 배후 조종자로 이리저리 얹혀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당했을 거예요』

영국에서 한국이 제대로 보였다

孫지사는 1980년 4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때였다. 주위에서 『우리가 기를 펴고 살 세상이 왔는데 어디를 나가느냐』고 말렸다고 한다. 서울을 떠난 직후 「서울의 봄」에 서리를 내린 5·17 사태가 발생했다.

– 서울의 봄이 와서 외국으로 도망갔던 인사들도 들어오려는 판에 왜 외국으로 나갔습니까.

『내가 1970년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金芝河의 담시 「五賊(오적)」이 제 세계관이었었어요. 기성 정치인, 관료, 기업인, 기자들을 다 경멸했죠. 하지만 「당장의 현실에 매몰돼서는 길게 이 사회를 이끌고 갈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생

각이 절박했어요. 사회변혁, 사회변혁 외쳤는데 내가 제대로 이 사회를 보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한 1년쯤 머리를 정리하고 오자는 생각이었어요』

– 왜 하필 영국입니까.

『민주주의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영국에 갔어요. 장학금은 영국의 크리스천 에이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 反체제 운동의 선봉에 섰는데 출국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신원조회 통과가 안 돼요. 1979년 중반에 서류를 냈는데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1980년 4월쯤 중앙정보부 종교 팀에서 「다 됐는데 대공수사국에서 막는다」고 통보를 했어요. 친구가 보안사령부의 검찰관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힘을 써주고 해서 겨우 신원조회가 나왔어요. 서울의 봄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 영국을 갔다 온 후 孫지사는 1970년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영국에서 충격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나는 성장의 그늘 속에서 한국을 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부정의 대상이었어요. 「외형적인 경제 성장이 조금 있더라도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가난한 이는 더욱 소외됐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얘기는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洗腦(세뇌)했어요.

한국에서 「북한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영국의 더 타임스에 金日成을 우상화하는 전면 광고를 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그동안 朴正熙 정권이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는데 영국의 더 타임스에 그런 광고가 난 걸 직접 보니 기가 막혀요. 그런 데다 내가 理想국가로 생각했던 중국의 유학생들이 다가와서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을 거는 겁니다』

「사회발전을 수반하는 正義만 正義다」

- 코페르니쿠스的인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확 변한 건 아니고, 슬슬 변했어요. 처음에는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유학생들과 많이 싸웠어요. 영국·미국 학생들과 「市場(시장)은 불평등만 초래한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엄청나게 논쟁을 했어요. 저쪽이 맞다고 생각되는데도 억지를 쓰고, 나는 正義를 분배와 산술적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했어요. 공부하면서 「正義는 사회발전을 수반할 때만 正義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 1970년대의 反정부 투쟁을 반성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갈 길은 다르다고 방향을 잡은 거죠. 평등에 대한 욕구가 한국 사회 발전의 큰 동력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在野의 거센 도전이 있었으니까 朴正熙 대통령이 일방적인 통치를 못하고, 사회 불만세력을 달래는 정책을 펴던 겁니다. 노동조합을 어용으로 순치시킬지언정 근로기준법을 만들고, 의료보험을 도입했어요』

- 孫지사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장(1986년 2월~1987년 4월)으로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후 잠시 영국에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 在野 운동권에 합류하지 않은 것도 세계관의 변화 때문인가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金槿泰 의원이 내게 민청련을 맡아 달라고 했어요. 그때 나는 지금까지의 운동방식과 노선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7~8년 영국생활을 하면서 옛 운동의 노선을 유지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現場에서 본 英國病

-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현실 사회주의 붕괴도 영향이 있었겠죠.

“평등에 대한 욕구가 한국 사회 발전의 큰 동력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在野의 거센 도전이 있었으니까 朴正熙 대통령이 일방적인 통치를 못하고, 사회 불만세력을 달래는 정책을 펴던 겁니다.”

『그 훨씬 이전에 내 마음속에 世界化(세계화)마인드랄까 그런 게 생겼어요. 1980年代에 영국 사회가 「영국병」을 앓았습니다. 사회주의의 병폐, 복지정책의 끝을 본 거죠. 동료 학생 하나가 박사 과정으로 진급할 예정이었는데 「장학금을 안 줘서 공부 안 한다」고 해요. 놀면서 실업수당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의 영국 사회였어요.

사회주의 방식의 제도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왔다면 지금의 수준의 발전이 있었겠나, 생각이 들더군요. 1980년대 말의 한국 운동권은 서구 사회의 잘 못된 전철을, 악을 쓰면서 踏襲(답습)하겠다고 목청을 높였어요. 「민족해방 노선이다, 계급투쟁 노선이다」하며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 영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항로 수정 없이 더 외골수로 나아갔겠군요.

『내 친구들보다 내가 더 민족 자주·평등이라는 점에서는 과격하게 갔을 거예요』 영국에서의 공부와 체험을 통해 孫지사는 한국의 역사와 화해했다. 朴正熙·金斗煥·盧泰愚 정권에 대한 그의 평가에는 溫氣(온기)가 느껴진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朴正熙 시대 한국의 「지니 계수」(불평등을 측정하는 계수)가 東아시아에서 일본·대만 다음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朴正熙 대통령이 일방적인 성장 위주, 재벌 특혜의 정책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분배에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金斗煥 대통령은 광주학살의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중화학공업 투자의 후유증을 치유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전자·조선 등의 기틀을 튼튼히 했어요. 盧泰愚 정부는 그때 이미 개방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대의 過(과)와 함께 功(공)도 봐야 합니다』

孫지사는 지난 2월16일 존 우드 美 제 2사단장 부부와 미군 장병 300명을 의정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 초청했다. 한겨레 신문(2월18일자)은 「논란 빛는 孫鶴圭 지사의 행보」라는 칼럼으로 미군 장병들을 위로한 孫지사를 공격했다.

美 2사단 장병 300명 초청 위로

－ 미군 초청 행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韓美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주한미군 철수와 재배치 문제가 미국 쪽에서 흘러나왔어요. 기업하는 분들은 「외국인 투자가 주춤하고, 상담하려던 사람들이 일정을 취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후배 김민기가 의정부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서, 美 2사단 장병들을 초대했죠』

－ 미군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외출도 못하고 있다가, 경기지사의 초청을 받아 공연 구경을 왔으니 기분이 좋았죠. 다들 군복 정장차림으로 왔어요. 공연 마치고 식사를 즐겁게 했고. 장교들은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 경찰이 지켜 주는 상황이 착잡하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反美주의로 뭉치고, 미국을 매몰차게 대하고 있다는 데 대해 미국 일반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 한때 투철한 反美주의자였던 孫지사가 反美를 외치는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블랙 홀처럼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마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다.

『1970년대 사회운동할 때 자주적인 통일국가,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꿈 꿔요. 反外勢(반외세)·자주·사회주의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느냐, 안 됩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말로는 자주를 표방하지만, 외국의 식량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지국가가 됐잖아요. 한국 기업인을 한 사람 끌어들이 때마다 얼마씩 돈을 뜯고 있어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우호관계 없이는 한국은 생존을 못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孫지사가 지난 4월1일 직원조회 때 「盧武鉉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에 방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해서 듣던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盧武鉉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설명하면서, 「명분은 없지만 국익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국가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에요. 명분이 없는 일을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동맹관계와 국가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盧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 양심과 국가의 명분을 혼동하고 있어요. 盧대통령이 國益을 뒤로 제쳐 놓고 인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익을 진정으로 추구하려면 결정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합니다』

- 경기도가 지난 4월21일에 100여 명 규모의 이라크 난민 지원 의료단을 파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지원에 나섰다는 건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정부의 對이라크 민간지원이 파병 문제로 얽혀서 자꾸 늦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경기도라도 민간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자고 생각했어요. 파병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는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인도적인 국제의료활동을 해 온 「글로벌케어(global care)」, 경기도의 의사회와 약사회, 적십자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10억원입니다』

- 언제부터인지 「韓美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冷戰(냉전) 의식에 젖은 사람, 好戰(호전)주의자,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 의식 없는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金大中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고, 盧武鉉 정부가 그걸 이어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元老들이 『방송들이 앞장서서 反美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돌이키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대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역사가 발전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직 精製(정제)되지 않은 젊은이들의 사고와 감성을 시대의 중심적인 흐름이라고 부추기고, 거기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문제예요. 現정권의 포퓰리즘이 너무 강합니다』

DJ는 세계화의 큰 길에서 샛길로 빠졌다

孫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의 道政(도정) 목표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정했다. 「세계화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도지사를 맡으면서 더욱 확실해졌다고 한다.

“세계의 중심국가, 얼마나 좋은 얘기에요. 하지만 그건 詩人(시인)이 쓸 용어예요. 국가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2002년 말 현재 수출액이 319억 달러로 서울(258억 달러)보다 많았다. 인구는 지난해 말 1천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28%에 해당하는 2만7000여 개가 몰려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지식기반 제조업체의 34%, 종사자의 38%가 있다.

『지난 연말 중국 遼寧省(요녕성)과 廣東省(광둥성)을 방문했습니다. 무서워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블랙 홀처럼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마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다.

『金泳三 정부는 세계화를 표방했지만,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아니라, 세계화(seggyehwa)」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했어요. IMF 외환위기로 세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 「아메리칸 스탠더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IMF의 요구대로 경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치적인 욕심이 너무 커서, 세계화의 큰 길에서 샛길로 빠져 버렸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現代가 뒷구멍으로 5억 달러 이상 뭉터기 돈을 북한에 주면서 살아남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 盧武鉉 정부의 세계화 마인드는 어떤 것 같습니까.

『盧武鉉 대통령은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예요. 그런데 이 정권 핵심들은 세계화와 맞서는 언행을 보이고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다는 환상과 망상 때문에 북한이 망했어요. 세계질서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없이 자주와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善(선), 관념적인 도덕만 가지고는 번영은 커녕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 盧武鉉 대통령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大選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걸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지난 2월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주관하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盧武鉉 당시 당선자가 「우리는 여태까지 변방에서 살았다. 이제 세계의 중심을 이뤄야 한다」는 요지로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양반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의 중심국가, 얼마나 좋은 얘기에요. 하지만 그건 詩人(시인)이 쓸 용어예요. 결국 중국이 눈치를 주니까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표현을 못 쓰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용어를 바꿨잖아요. 말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核을 평화적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건 손발을 스스로 묶는 것

- 金大中 정부는 경의선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해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5년 내내 경의선 복원만 얘기하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盧武鉉 정부는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 라인을 북한으로 관통시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 核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죠. 金大中 정부나 盧武鉉 정부나 북한 核문제에 대해 「오직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평화적으로만 하겠다고 떠드는 건 북한 核을 다룰 수 있는 국제적인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손발을 스스로 묶는 거예요. 「힘의 균형», 「힘에 의한 평화」라는 오래 된 분석틀이 북한 核문제를 풀 때도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장 총량제는 철폐해야 한다』

– 孫지사와 LG 필립스 LCD 사이에 지난 2월4일 「과주에 50만평 규모의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는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2004년 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LG 필립스가 100억 달러(12조원)를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로 공장 신설 증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LG 필립스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조치도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이런 유사한 외국인 투자가 있더라도 이제는 말도 못 꺼내는 거죠』

– LG 필립스 LCD 공장의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직원이 4000명쯤 되고, 부품 공급업체까지 감안하면 엄청나죠』

–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대해 경기도 기업인들의 불만이 많죠.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설립을 막는 근거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입니다. IMF 경제위기 때문에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관해 한시적으

로 공장 설립을 허용했고, 이게 금년 연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거예요. 기존 공장들은 増築(증축)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외 수출의 주력산업인 삼성반도체가 공업배치법 때문에 공장 증설을 못하고 있어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는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자재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공장 총량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에 집중되는 투자를 지방공단 등으로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수도권에 투자하는 걸 막으면 그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느냐, 가지 않아요. 아예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재작년에 조립 장난감 회사인 레고社가 경기도 이천에 2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하다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못했어요. 결국 레고社는 독일로 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 孫지사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그 대신 세금을 많이 거둬서 지방을 도와줘야 합니다. 목포의 대불공단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30%밖에 입주가 안 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산업체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공장 총량제는 철폐해야 합니다』

- 그런 주장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의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LG·SK 같은 그룹은 국내 생산능력보다 중국에 설립한 공장의 생산능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부를 설치한 기업도 있고, 본사를 아예 중국으로 옮길 걸 검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경기도에 들어오는 돈을 막아서 다른 道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겠습니까.

“저는 교육 문제도 세계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 답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선진국은 우수한 학생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세계에서 경쟁의 기본 단위가 大도시권입니다. 중국을 보면, 上海圈(상해권), 北京圈(북경권), 珠江三角洲圈(주강삼각주권), 重慶圈(중경권)으로 나뉘고, 그게 인구로 보면 3000만 명 내지 4000만 명 규모입니다. 上海圈에 전세계 500大 기업 가운데 3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지방으로 안 간다고 공장 증설을 안 해 줘요. 삼성전자가 기흥의 핵심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공장 총량제 때문에 증설을 못해요. 그렇게 막으면 증설분만 떼다가 다른 지방에 짓나요?』

수도권을 못 떠나는 이유

–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를 위한 대체 입법안을 낼 계획입니까.

『어떻게 정부와 정치권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가 고민 중이에요. 자꾸 亂開發(난개발)을 얘기하는데 중앙 정부가 서울의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만 달성하려다 보니,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만 따라가다가 경기도도 망하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의 생활환경이 더 악화됐습시다. 종합적인 계획이 새로 마련돼야 합니다. 공장 총량제 같은 제한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 기업들이 왜 그렇게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려고 하질 않는 겁니까.

『한국에서 무얼 하려면 인천공항과의 연결 편이성, 對중국 진출의 용이성이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釜山은 환적 물류기지로서 허브 역할을 하고, 光陽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나 비즈니스가 부산·광양으로 갈 수는 없어요』

- 교육과 문화 환경도 무시 못할 요소겠죠.

『그렇죠. 첨단산업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고급인력 기술자들이 서울을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팬텍 큐리텔」이라는 휴대폰 회사는 금년 매출목표가 3조 원 규모로 휴대폰 제조분야에서 세계 10위를 예상하는 기업입니다. 사원이 3500명인데 이 가운데 1200명이 연구인력입니다. 공장이 하나는 김포, 하나는 이천에 있어요. 그런데 500명이 일하는 연구소 하나는 여의도에, 700명이 일하는 연구소 하나는 양재동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장이 있는 이천·김포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영종도 매립은 옆에 있는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워서 될지 몰라도, 경제발전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죠』

- 국가경쟁력을 提高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육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문에 봤더니 「孫鶴圭 지사가 판교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반대하십니까.

『「판교에 자립형 사립고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면담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발표를 해 버렸어요. 자립형 사립고는 말 그대로 사립학교가 하는 건데 지방정부가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교육문제도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 답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선진국은 우수한 학생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평준화의 틀을 손대지 못하더라도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대폭 늘려서 아이들의 秀越性(수월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막내딸의 원망

- 孫지사의 두 딸은 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대학 교수 할 때 서울 방배동에 살았어요. 여자고등학교 학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는 지역입니다. 큰애는 거기서 대학에 갔고 막내딸은 光明市에서 출마하느라 광명으로 전학시켰습니다. 욕심이야 막내딸을 방배동에 두고 싶었지만, 지역 유권자들이 「광명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겠다면서, 당신 딸은 왜 서울 학교에 보내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막내딸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 경기도가 추진하는 「영어마을」 조성도 교육의 질과 연관이 있습니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 변호사를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책임자로 영입하셨더군요.

『한국의 생존전략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朴正熙 대통령 시절 경공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국민을 먹여 살렸고, 그후 중화학 공업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제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기존 산업을 더 高부가가치화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얘기되는 게 물류 허브, 비즈니스 허브의 구축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네덜란드로 만들자는 겁니다. 중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중국 경제의 발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 핵심은 영어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은 사이버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접속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2005년 말까지 500억원을 투자해 영어문화원을 세울 거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의 기존시설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어마을은 경기도가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어마을을 함께 하자는 제

의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의 시·군 단위에서는 관내의 原語民(원어민) 영어교사를 네트워크로 엮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

- IMF 사태가 터지기 전에 「너트 크래커(호두까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첨단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급 기술과 싼 임금을 동력으로 한중국의 추적 사이에 끼인, 호두까기 속의 호두라는 얘기였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금까지 많은 흑자를 봤지만, 비교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成都(성도)에 가서 싱가포르 자본이 투자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공장에 회사 간판이 두 개예요. 외국 투자기업에게 3년 동안 면세해 주고, 그 다음 2년 동안 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투자한 지 3년이 지나서 면세 혜택을 받으려고 법인 등록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市에서 그걸 알고도 묵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금을 못 받더라도 고용을 창출하고, 부대 수익이 있으니까 용인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에요』

긴 인터뷰를 끝내고, 지사 공관 근처의 한 수원 갈비집에서 孫지사, 車明進 경기도 공보관과 함께 늦은 저녁을 했다. 반주로는 백세주가 나왔다. 이화여대 약대출신인 孫지사의 부인 李潤英(이윤영·56)씨는 孫지사가 대학교수가 되기 전까지 약국을 운영하며, 수입이 전혀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이 사실을 빗대 車공보관이 『孫지사가 오랫동안 「마등」생활을 했다.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孫지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자, 孫지사는 『마등이 뭐야』라고 물었다. 『마누라 등치기』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그는 박장대소했다.

그는 車공보관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냅킨에 옮겨 적으면서 『가서 이 얘기를 해

주면 집사람이 오늘 늦게 들어가는 건 용서해 줄 거야』라며 좋아했다. 그래서 반주는 백세주에서 오십세주로, 다시 소주로 바뀌었다.

세상의 절반을 이끄는 사람들

“여성인력을 적재 적소에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없이 선진일류한국을 향한 꿈은 요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 여성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홍영기 도의회 의장님과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짙어져 가는 녹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계절에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이금자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회활동과 봉사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해 오신 여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병대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과 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여성단체를 모범적으로 이끄신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훌륭한 재능과 솜씨로 ‘여성 기예 경진대회’에 입상하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주부의 날’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며, 여성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성 여러분!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와 정책 없이 선진일류한국을 향한 꿈은 요원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경기도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다양한 도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여성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억원 규모의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여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여성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남녀 평등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여성 인재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기도의 노력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 여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기 여성 여러분 모두가 도의 여성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부의 날’ 기념식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계신 490만 경기여성들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주부의 날’을 1천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경기여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위해 행동할 때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환경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명실상부한 「환경의 세기」입니다.”

존경하는 1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8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아름다운 이곳 용인 에버랜드에서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우봉제 환경보전협회 경기도 지회장님과 에버랜드 박노빈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환경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에 있어서 남다른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엔에서 올해 환경의 날 주제를 ‘물-20억 인구의 갈망(Water-Two Billions People are Dying for it)’ 이라고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5년 후에는 그 비율이 세계인구의 2/3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1,550톤으로 유엔에 의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물의 해’를 맞아 물사랑·물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의 문제이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므로,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 당면한 환경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21세기에도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경기도의 인구가 드디어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안에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현재 그 어느 지역보다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서 팔당상수원, 반월·시화공단을 위시하여 첨예한 환경현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환경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해 ‘민선 3기’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래 『쾌적한 삶의 환경』

실현을 도정방침의 하나로 삼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를 살기 좋고 누구나 와 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야 하며, 청정환경의 필수 요소인 깨끗한 물·맑은 공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하수처리장 82개소를 신·증설하고 484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하천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 아래 6개 하천 41.9km구간에 대한 친수 공간 확보와 정비 사업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6,500억원의 수질개선 종합대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89.5%에서 93.4%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단악취와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원인(71%)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4월 1일부터는 수원·성남·용인을 비롯한 대기환경규제지역

14개시를 대상으로 자동차중간정밀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시내 버스·청소차·관공서·기업체 등의 통근버스를 100%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각종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1억 그루 나무 심기'와 '경기도민의 숲'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의식의 확산만이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환경NGO·기업체·주민들과의 다양한 연대의 틀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환경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명실상부한 '환경의 세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와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의 기념식을 계기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행동할 때(Time to Act)'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환경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는 '이 시대의 옹호 戰士'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21세기의 개혁과제인 「경쟁력 강화」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1970~80년대 사고방식에 기초한 분배정의 등의 잣대로 개혁을 하면 낙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가 17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지금의 동북아는 베이징·상하이·도쿄 등 대도시권과 한국 수도권이 경쟁하는 양상”이라며 “수도권에 얽혀 있는 규제의 족쇄를 끊어야 무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과 오산으로 이전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국제 평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 한지 1년이 된 소회(所懷)는?

“행정가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것은 책임의 강도(強度)다. 판단과 결정이 경기도의 장래와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 도내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얼마전 1주기를 맞았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협력위원회, 소파(SOFA)운영 협조체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미군 재배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오산과 평택이 대상 지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미군의 주둔을 원하면서 주둔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안(案)을 갖고 있나?

“미군이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한다면 이를 적극 수용해 미군 가족과 한국민이 함께 사는 가칭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미군 측도 긍정적이다. 이미 500만평 부지, 주택 7만가구, 인구 20만 등 도시 규모와 문화·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쳤다. 미군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면서 생긴 주민 반발도 이런 점을 부각시켜 설득할 수 있다.”

-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며칠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쌍용자동차 공장 증설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 규제 때문에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도 중국·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파주 LG필립스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 첨단기업의 수도권 입지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

- 경기도의 이기주의 아닌가?

“수도권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지금의 경쟁은 중국 베이징권·상해권, 일본 도쿄권 등 대도시권 사이의 경쟁이다. 수도권 경쟁력을 높여 국부(國富)를 늘리고 지역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국가발전 전략이 돼야 한다. 생산의 균등분배는 하향 평준화와 국가의 쇠퇴를 뜻한다.”

- 국정을 맡은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리더십 부재(不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는데.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 안정이다. 21세기의 개혁 과제인 ‘경쟁력 강화’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1970~80년대 사고방식에 기초한 분배 정의 등의 잣대로 개혁을 하면 낙오할 수 밖에 없다. 국정 운영이 눈앞의 이익집단에 의해 좌우되어선 안된다.”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권의 공동화(空洞化)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발전과 통일 후 수도의 입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왕에 축적된 수도권 경쟁력이 어디가겠느냐는 생각은 안이하다.”

– 최근 경제난에 대한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고, 특별신용보증대출 확대, 건설 공사대금 선지급 확대 등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기업자금활동이 200%, 신용보증 대출이 100% 증가하고 공사대금 선지급율이 75%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김포·파주신도시 개발과 관련 중앙 정부의 일방 행보에 이의를 제기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족적 부심권 개발이 아닌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점이 아쉽다. 도의 6개 권역 광역성장관리계획에서 보듯 장기적 광역 계획을 세워야 난(亂)개발을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성남·용인·화성 등의 개발 예정지는 대부분 사유지다.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불보듯 뻔하다.”

– 각종 여론조사에서 항상 차기 대권주자의 선두에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수도권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 4년 도지사 임기를 고려할 때 여백을 남겨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웃음)'

과감한 규제혁파만이 살 길

“경쟁력이 있는 곳은 더욱 경쟁력을 키워 줘야 합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관념적 구호만으로는 경제 재도약도 세계속의 한국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의 도정목표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정했다. ‘세계화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믿음 역시 손지사의 또 다른 도정 철학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지사는 요즘 ‘수도권 규제 철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손지사는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완곡한 표현으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이른 감이 있지만 2007년 대선에 대한 ‘꿈’도 부인하지 않았다. 6월 5일 경기 수원시 지사관저에서 그를 만났다.

- 취임 1주년이다.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했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지난 1년간은 경기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땀으로 현장을 적신 한 해였다. 사회발전 속도만큼 국민들의 욕구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지난 1년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명실상부한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

등 4대 도정 방침을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나는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구체적 계획은?

“평택항 활성화와 배후지 개발에 주력하고 서해안 지역의 항만·공항과 고속전철역 등 주요 교통 거점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기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하다. 수원·용인의 반도체 집적지, 성남의 디자인·벤처 집적지, 안양의 지식산업센터 등을 잇는 지식기반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나노(NANO) 산업단지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6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재벌총수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제품수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은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재를 쌓아놓았다. 우리나라 대외수출의 주력산업인 삼성반도체가 수도권에 600억 달러(약 72조원)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지만 공업배치법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공장 총량제 철폐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경기도의 이기주의라는 따가운 비판이 나올 텐데?

“10년 전 목포에 대불공단을 건설했다. 지금 그 공단의 평균 입주율은 30%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왜 그곳을 찾지 않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장난감 회사인 레고사가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

“우리가 골목산업에서 벗어나 물류와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네덜란드 같은 역할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구사가 필수다. 영어마을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웠다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때문에 독일로 떠났다. 3억 달러를 투자하려던 페어차일드도 같은 이유로 독일로 발길을 돌렸다. 삼성전자는 왜 대불공단보다 중국 공장을 먼저 검토하는가. 수도권에 투자하는 걸 막아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국가 균형발전 논리를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그들은 이윤추구라는 기업논리로 현실을 본다. 기업경쟁의 기본 단위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권이다. 이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 수도권 과밀, 녹지공간 부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

“경쟁력이 있는 곳은 더욱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대신 세금을 많이 거둬 지방에 재투자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은 중장기적 전략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포기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 손지사는 지난해 선거기간 중 당선되면 은행과 우체국 슈퍼마켓 등 모든 시설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마을’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취임 이후 손지사는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꽤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먼저 개설한 사이버영어마을에 접속한 네티즌이 무려 200만명(3개월 기준)이다. 영어캠프는 무려 80대 1(수원시)의 경쟁률을 보인다. 영어마을은 단순히 영어 점수를 높이려는 캠프가 아니다. 21세기에는 과학기술과

서비스산업으로 승부해야 한다. 우리가 굴뚝산업에서 벗어나 물류와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네덜란드 같은 역할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구사가 필수다. 영어마을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 미국의 조지 W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를 지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칸소 주지사 출신이다. 한국에서는 이인제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낸 후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 손지사도 그 맥을 잇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지난 대선 후 한나라당에서는 정치인 손학규에 대한 품평이 일었다.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경기도를 잘 살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내 생각의 전부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도지사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안에 경기도만의 이기적 이해관계로 접근하거나 결론내리지는 않는다.”

배석했던 한 측근이 ‘손지사는 지금 경기도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중’ 이라고 설명하자 손지사는 손사래를 쳤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 친정인 한나라당의 대표 경선이 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왜 졌을까.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대한 한나라당은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준비는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경선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경선은 축제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그런 고민이 없어 대선에 진 것인가?

“변화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부족했고 그것이 많은 패인 중 중요한 것이라고 생

“경기도를 잘살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내 생각의 전부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일이다.”

각한다.”

–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

“해양대학을 나와 선장으로 일하는 친구 말에 따르면 선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배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위치 파악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바로 앞에 험한 파도가 있는지, 폭풍우가 밀어닥칠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토양이 구축되면 자연 우리가 갈 길이 보이고 그에 필요한 지도력은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다.”

– 출범 100일이 막 지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같은 충고를 할 수 있나?

“2월 6일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는 여태까지 변방에서 살았다. 이제 세계의 중심을 이뤄야 한다’ 고 말하며 동북아 중심국가를 부르짖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싫은 표정을 짓자 ‘동북아 경제중심’ 이라고 용어를 바꿨다. 관념적 구호만으로는 경제 재도약도 세계속의 한국도 건설할 수 없다. 세계질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자주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손지사의 좌우명은 ‘수처작주’ (隨處作主)다. 당나라 말기 대표적인 선사인 임제 의현이 남긴 말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인의식을 가지라’ 는 뜻이다. 손지사는 한나라당과 경기도에 이 사자성어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자랑스런 호국의 간성, 맹호부대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며, 전쟁발발 가능성이 일백만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존경하는 박경서 사단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천하무적 맹호부대 장병여러분!

먼저 맹호부대 창설 54주년을 천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빛나는 역사와 전통의 맹호부대는 1949년 6월 20일 창설 이래 우리나라 국군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항상 혁혁한 전과와 용맹스러움으로 이름을 드높였던 자랑스러운 부대입니다.

특히, 한국전 최대의 격전지였던 ‘수도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월남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공을 세운 바 있는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전력입니다.

자랑스런 맹호부대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해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한반도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유일한 냉

전지역으로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북핵문제로 인해 긴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과 확고한 안보태세입니다.

능률한 ‘호국의 간성’, 맹호부대가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맹호부대 선배 전우들의 조국애와 고된 훈련 가운데 장병 여러분들이 쏟은 붉은 땀방울의 결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철벽같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도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수해복구 등의 대민지원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나서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모두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맹호부대가 시대변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21세기 대한민국 국군을 이끌어 가는 선도부대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맹호부대 장병 여러분!

최근에 저는 맹호부대 전성민 병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집안형편상 병역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던 이 젊은이는 막내아들만큼은 씩씩한 군인으로 만들고 싶다는 부친의 뜻과 본인의 결심에 따라 자원입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일화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성민 병사를 위하여 맹호부대원들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다는 또 하나의 소식은 용맹함속에 감춰진 뜨거운 전우애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진짜 사나이들이 모여 있는 맹호부대에 감히 맞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맹호부대 장병 여러분!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각오하고 쉽 없이 대비할 때에만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며, 전쟁발발 가능성이 일백만 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54년이란 긴 세월동안 묵묵히 그러나 완벽하게 수행해 온 맹호부대에 다시금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부대의 무궁한 발전과 박경서 사단장님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US Relations

“We should never relax our efforts to seek a more mature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 responding to changes over time.”

Honorable President of the CSIS, John J. Hamre, President of the KEI, Joseph A. B. Winder, and distinguished guests!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be invited by the CSIS, which has a worldwide reputation as a think-tank specializing on security and international issues, and also by the KEI, which is dedicated to studying Korean issues.

Before I speak on substances, please allow me to briefly introduce Gyeonggi Province of Korea as I am sure many of you are wondering why the governor of a province is interested in discuss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da such as US-Korea relations.

As you know, Korea is geopolitically located at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and Gyeonggi Province is situated right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Gyeonggi Province completely surrounds the capital city of Seoul and is the largest province in Korea with a population of over ten million people.

In particular, as the heart of the Korean economy accounting for 23% of the nation's GDP, the province is home to 37% of the nation's high-tech enterprises and 40%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Currently, some 200 US companies including Honeywell, DuPont and Corning have their offices or factories in our province, and they are also serving as the driving engine of Gyeonggi's economic development.

Gyeonggi Province is also of strategic importance to the military as it borders with North Korea. About 80% of South Korea's firepower is concentrated in the province.

Gyeonggi Province also has 60% of the 37,000 US troops stationed in our country and 81% or 78 square miles of granted land to USFK. Moreover, nearly 10,000 non-military Americans are currently residing in our province.

As such, Gyeonggi Province has close ties with the US in the fields of industry and economy as well as military and security, and that's why we need to do our best to strengthen Korea-US relations in order to ensure stable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our province.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me, as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our bilateral relations

and to offer suggestions for a better future.

Ladies and Gentlemen,

This year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and the 50th anniversary of our alliance. For half a century, Korea and the US have built a special friendship by helping each other, based on our strong commitment to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Tomorrow, June 25th, marks the 53rd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During the Korean War, more than 37,000 young Americans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freedom and democracy in a small nation in the East, far away from their home.

In 1953, Korea and the US established a strong alliance by signing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 alliance not only prevented the expansion of the Communist forces, but also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develop into the 12th largest economic power and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recent history of democracies.

For the past five decades, Korea shared with the US the common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which in turn laid the ground for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In that sense, the fifty-year-old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already a full partnership.

If we are to maintain that partnership in the future, we should never relax

our efforts to seek a more mature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 responding to changes over time.

Ladies and gentlemen,

I paid a visit yesterday to Ground Zero. It was the first stop in my schedule on this visit to the US. I wanted to pay tribute to the souls of the inhumane 9/11 terror and, as a citizen of your ally, to the American people who have overcome the shocks and sorrows of the terror inciden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condolence and respect to the people of the US.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heartfelt and unreserved support for the war against terrorism by the US and her brave people. This is what ally is all about since allies should support each other when their partner faces difficulties.

Korea and the US have shared a brotherhood through the Korean War, Vietnam War and recently in Kosovo and Iraq.

Ladies and gentlemen,

We must admit, however, Korea-US relations recently faced some challenges.

As you are well aware, two Korean middle school girls lost their lives in a sad accident involving a US armored vehicle, which triggered an anti-

American movement led by candlelight protests, particularly active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last year.

Anti-American sentiment had been spread considerably wide among young generations and, at one point, heightened to a level of significant concern.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the majority of Korean people have been solidly in support of the US and its people.

Thanks to consistent efforts by both Korea and the US, and particularly after the friendly atmosphere between two Presidents after the Summit Meeting in May, recent polls show that vast majority of Koreans now clearly support the presence of the US troops in Korea.

One should not be misled and draw conclusions on Korea's anti-American sentiment based on what you see on TV news repeatedly showing candlelight demonstrations chanting anti-American slogans and burning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street.

It is not too difficult to improve and reinforce our ties.

The 'Good Neighbor' program, which the USFK started in March to further strengthen their bond with Koreans, is a good example.

I myself attended both events hosted by the 7th Air Force and 2nd Infantry Division. For our part, I invited some 200 US military personnel to a musical performance in February when the US soldiers were prohibited from going

outside the barracks for security reasons.

I invited 100 soldiers again to a musical event in May. I could see the joy in the faces of the US soldiers who were enjoying the event, experiencing Korean culture, and the warm hospitality of Koreans welcoming their dear American friends.

In addition, Gyeonggi Province and USFK jointly formed the 'Korea-US Cooperation Council' last November. In this Council, US military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municipal councils, exchange information and seek solutions for pending issues and mutual concerns, such as military training, road situations and environmental issues around US military bases.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USFK and Gyeonggi Province are more effective than ever before.

Ladies and gentlemen,

The most serious and the hottest issue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now is, needless to say,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egarding this issue, I would like to suggest three principles.

The first and utmost principle with regard to this issue must be that nuclear weapons cannot and shall not be allowed in North Korea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econd principle is to pursue peaceful resolution of the issue. Korea and the US agreed to seek a peaceful resolution to this issue at the Korea-US summ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recent G8 summit and the WMD PSI conference in Spain, has also declared that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unacceptable, and called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to the issue in a multilateral framework. I reiterate their call for a peaceful approach to the issue.

The third is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and deterrence." We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a peaceful solution can only be obtained by conditions with which the other party feels the pressure to comply.

The basic rule of the gam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that, as we all know, all the cards must be on the table. Ruling out certain options in advance could result in limiting the possibility to achieve the goal. "Strategic ambiguity" will be the most effective policy stance in this context.

This will prevent North Korea from playing brinkmanship, and yield a practical dialogue to proceed by using various means effectively. We ought to be armed with firm determination and strong deterrence to achieve this goal.

To this end, I believe that it is of utmost importance for South Korea, US, China, Japan and other related parties to establish a strong framework for cooperation in this context.

I would also like to point out the important need for related parties to clearly set the 'red line' of threshold, share this concept, and deliver this firm position to North Korea.

Having North Korea realize the ultimate limit and pressuring North Korea to come forward to the forum of dialogue and compromise through peaceful means will be the most logical way to turn the famine-stricken country with no basic human rights into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ltimately ensuring stabil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North Korea seeks it as a precondition for the negotiation of the nuclear issue, indeed, absolutely depends upon its own attitude.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North Korea policy should be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Ladies and gentlemen,

According to recent headlines, US Department of Defense is reportedly considering the redeployment of USFK within a new global strategic framework.

The US plan to relocate its troops stationed overseas to swiftly cope with unprecedented threats such as terrorism and to comply with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and military technology advances is absolutely rational and legitimate.

There are two different aspects in this issue. One is the relocation of the bases in accordance of the LPP (Land Partnership Program) including Yongsan base of the 8th Army, and the other is the relocation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to the south of Han River.

With regard to the relocation of Yongsan and other camps along with the LPP scheme to Pyeongtaek and Osan, we will provide all possible support for the program.

It is my conviction that as long as we want US troops to stay in Korea for the security of the region we ought to provide the appropriate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their stationing. We need to provide proper environment for their pleasant living conditions as well as for their military drill and training.

I am well aware of the insufficient residential conditions for families of USFK. To address this issue, we, in the Gyeonggi Province, are developing a plan to build an ‘International Peace City’ covering about 16.5 million square meters of land near the bases, if the Yongsan base is moved to Pyeongtaek or Osan.

The city, with more than 70,000 housing units, will be developed as an international city of high cultural standards rather than being just a military camp town, known as “Gijichon” in Korea. We plan to form residential zones, commercial areas and cultural facilit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o that the families of US military personnel can enjoy a pleasant life near the base.

We also have a plan to establish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various level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is project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friendship between Koreans and the Americans as well as to the welfare of the US soldiers and their families. As a result,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can live and work together in a pleasant environment.

In this new city of 200,000 people, we also plan to create an English-speaking town, where foreigners will be able to live without any inconveniences and Koreans can learn English in their daily lives. American families can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life and work through this program.

With regards to the redeployment of 2nd Infantry Division to the south of Han River, I would like to ask the US authorities to take cautious approach.

As you know, the forward deployment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was itself an important deterrent to North Korea's threat and the possibility of its miscalculation, and it symbolized the strong US commitment to Korea's defense. For foreign investors, it was even a basic requirement for their investment in Korea.

We, of course, fully understand and are more than willing to support the redeployment of US forc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concept of global defense strategy of the US,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war in Iraq.

Korean people will definitely feel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miscalculation of North Korea if the realignment of the US combat forces takes place without filling the vacuum made by the action.

The build-up of deterrence capability is essential prior to the reallocation of the US forces in Korea. This means that the condition of the realignment is the reconfirmation of the trust in the security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solid Korea-US alliance.

This also implies that the realignment should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build-up of trust in military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in the peninsula.

The relocation of the US troops could well be used as a bargaining chip for the negotiation of the relocation of the forward deployment of combat forces of the North Korean army, as well a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possible scenario of the relocation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should also be seriously contemplated in accordance with, and on the condition of the principle of “firm determination and strong deterrence.”

Ladies and gentlemen,

With China's rapid development,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This could evolve into one of the three major economic blocs in the world, rivaling Europe and North America. This

dynamic potential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bloc is drawing worldwide attention, and US businesses should als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se developments.

New opportunities could also mean new challenges. The past US interest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as mainly to stop the expansion of communism.

But the latest US interest in this region must be to expand market access to the region for US businesses and to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 which is rapidly emerging as the only other potential super power.

This latest challenge to the US could be met militarily as well as economically. But, as we have seen in the latest conflict in the Middle East, mere military occupation does not resolve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For the futur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US and Northeast Asia region, I strongly suggest that the US make true allies in the region.

Incidentally, as many of you might know, Korea is trying to develop itself as the logistics and business hub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I suggest the US consider making Korea a security hub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hich could nicely complement Korea's idea of becoming a regional economic hub.

As we all know, one of the best ways to tie two countries together as true allies is not through a military partnership but through an economic integration.

For this reason, I believe Korea and the US should pursue a Free Trade Agreement in the long-run, which will further strengthen closer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economically, militarily and politicall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two countries should try to conclude on-going negotiations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s early as possible.

With freer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e should be able to avoid unnecessary trade frictions as can be seen by the recent ruling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on Hynix D-RAM semiconductors, which can prompt counter protectionism and eventually hurt overall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Ladies and gentlemen,

As I was standing at Ground Zero in New York, looking at the empty site where the World Trade Center once stood, I was reminded once more why we all should detest terrorism, which i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civilization.

As America's closest ally, we need to corroborate our approach on global issues such as terrorism, international crime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Korea and the US will further enhance their partnership based on the unwavering alliance, and play a major role in world history by contributing to world peace, economic prosperity and democracy.

Thank you very much.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EU Relations

Closer cooperation based on reason and trust between Korea and the EU is the call of world history; this will create a more peaceful and prosperous 21st century.

Mr. Lemkow, Mr. Serra,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am very happy to be here today at the 2nd EU-Korea Conference, in the beautiful Kingdom of Spain. And I am very gratified to be here under the theme “Gyeonggi Province in the World; Europe in Korea.”

I am confident that this forum -- with the participation of Europe's political, academic, and economic leaders -- will provide us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develop important ideas and visions on possible ways to develop EU-Korean relations.

When I look back on my life, I am compelled to confess that Europe's broad and fair perspective of the world brought about a turning point in my

career.

A young man from Korea, who had to spend most of his college days as a pro-democracy and human rights activist under authoritarian rule, was finally awakened to the global trends of the time. He also came to regard his own motherland from a broader perspective when he went to study at Oxford University. Above all, the concepts I learned from Europeans while studying in Europe -- like a “reasonable” way of thinking, a social milieu emphasizing “trust,” and a positive way of life pursuing “hope” -- have since been an important inspiration in my life.

I still believe that “reason,” “trust,” and “hope” are the true virtues of Europe. I also understand that the path Europe has taken to become one community is the process where such virtues have been realized.

When considering the fu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EU, I have a strong conviction that such European virtues, as mentioned above, will be a solid foundation on which to develop EU-Korea relations. I also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an occasion where Korea can find and reaffirm what it should learn from the EU so as to accelerate its own development as an advanced welfare state.

<Mutual Importance>

Ladies and gentlemen!

The Korean people are genuinely grateful to European countries for having

extended a helping hand to Korea during our foreign exchange crisis.

With your support, Korea overcame that crisis completely in a remarkably short period of time. Indeed, Europe demonstrated a deep trust in Korea by being the largest contributor of IMF-mediated relief funds as well as the largest direct investor.

That trust was the actual driving force behind Korea's success in overcoming the crisis. The Korean people appreciate this trust, and whenever they think of Europe, they will always recall the proverb,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s a matter of fact, economics is where the EU-Korea relationship has been most active through many form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oth Korea and the EU have steadily increased their investment in each other. Korea is the EU's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among non-EU countries, and the EU is one of Korea's four largest trading partners.

The EU has now taken on yet another challenge. With ten more countries in Eastern Europe signing to join the EU in April this year, the EU has been reborn as the world's largest trader in terms of volume and the second largest economic bloc as a whole.

<Emergence of Northeast Asia and Gyeonggi Province>

At the same time, based on a huge population of 1.5 billion and continual economic growth, Northeast Asia has rapidly emerged as one of the three

largest economic blocs in the world.

Geographically situated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is ideally positioned to be the economic hub of Northeast Asia with its well-developed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ocial overhead capital.

Moreover, since China, the world's second largest market in terms of purchasing power, has joined the WTO, no other place in the world has more attractive conditions than Korea as a base for advancement into the Chinese market.

Gyeonggi Province, of which I am governor, is the heart of the Korean economy and accounts for 23%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Its advanced industrial facilities, superior human resources, excellent infrastructure, and geographical advantages as part of the Seoul-Metropolitan Area are just a few of the factors that will make the province an economic hub of Northeast Asia.

<Potential for Cooperation>

If Gyeonggi Province, the engine of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a strong foothold for the Northeast Asian market, and the EU, rich in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y, combine their complementary strengths, the results will be immeasurable.

As an example of the limitless potential for the success of EU-Korea and EU-Gyeonggi cooperation, please allow me to tell you about LG Phillips'

plan to build a TFT-LCD plant in Gyeonggi Province's Paju City.

The display industry, represented by TFT-LCDs, is a cutting-edge business area with an estimated market potential standing at over 40 billion dollars in 2005. To preempt the market, world-class companies have been engaging in fierce competition.

Based on leading mass production technology, Korea has accounted for more than 40% of the world's massive TFT-LCD market since 2001. However, it still lags behind advanced countries in source technology. This situation is one of the reasons why complementar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is both possible and necessary.

Phillips from Europe and LG from Korea, in the expectation of such synergism, are building a 1.65 million-square-meter TFT-LCD plant --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 in Gyeonggi Province's Paju City.

I have set the goal of our provincial administration as "Gyeonggi Province: A Global Initiative" as part of my efforts to develop Gyeonggi as a globalized region. In the final analysis, globalization means nothing other than setting our values and norms to global standards and actively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nations, regions, and companies. In practical terms, we clearly understand the mutual benefits of free trade and overseas investments.

It is certain that in the future, firms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in Korea will be able to give such benefits to new EU member countries just as those

European companies have provided for them.

<More than Economic Cooperation>

Ladies and gentlemen !

ASEM, or the Asia-Europe Meeting that was launched in 1996, has paved the way for substantial dialogue and ties between East Asia and the EU. ASEM has made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more active and deepened our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EU-Korea Basic Cooperation Agreement signed in 2001, Korea and the EU have also made efforts to enhance their relations, which were largely trade-oriented in the past.

By emphasizing cooperation in political, economic,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cultural areas, the Agreement has laid a solid foundation for the two regions to share spiritual values and expand collaboration in many different realms.

As indicated so far, the future of EU-Korea and EU-Gyeonggi cooperation is extremely bright. Cooperation in the economic areas that has already been active will be accelerated. Many other areas, such as politics, security, society, and culture, will experience increasingly brisk cooperation and exchange.

It is up to us to tap into and realize such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It will be nothing less than a meaningful

historical challenge for us.

<EU' 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for us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political and security areas.

Having realized the dream of an integrated Europe based on reason and pacifism, the EU is an object of respect and envy by Koreans who have suffered from the painful division of their motherland for half a century.

In addition, the Korean people know that the EU, an established player in the 21st century world order, has been distinguishing itself as an able peacemaker in troubled areas around the globe.

It is therefore the Korean people' s earnest wish that the EU fulfill its role as a promoter of peace and supporter of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ast remaining vestige of the Cold War.

They also have considerable expectations for the EU' s role in solving the issue of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is currently threatening global peace.

Since the mid-1990s, the EU has provided the more aid to North Korea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EU has extensively improve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t was largely due to the EU' s recommendation that North Korea set its foot on

the road to reform and openness, a path it had shunned to take for more than five decades.

North Korea still views the EU favorably, as shown by the fact that in December 2002 it designated the Euro, in stead of the dollar, as a foreign currency allowed for circulation in its territory.

The EU proved itself as the most qualified mediat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it made its standpoint clear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last year. When North Korea was known to have pursu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using uranium-enriching technology, the EU was the first to denounce it.

Moreover, the EU announced that it would reconsider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cross the board if North Korea restarts its nuclear facilities.

The EU once again made clear where it stands on the issue when its major member countries formed a consensus at the PSI Conference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was recently held in Madrid. Their concerted voice agains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was a reflection of the EU's will for world peace.

As such, the EU has taken the lead in providing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to help ease tension on the peninsula, while taking an objective position on issues where the North makes serious mistakes. Europe truly

possesses both a warm heart and a cool head. And that is why Europe is expected to work as a competent mediator for bring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Ladies and gentlemen!

What cooperation is possible between Korea and the EU in social and cultural areas?

When it comes to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East Asia and the EU and that between Korea and the EU, we are forced to highly evaluate what ASEM, now in its seventh year, has contributed in this regard.

Through ASEM, Europe and Asia have been able to expand the scope of their exchange to include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environment, and culture. Thus, they are breaking away from the confine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More specifically, they have established the Asia-Europe Foundation (ASEF) as an institute designed to promote exchange between the two regions, and have launched the Asia-Europe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 (AEETC).

Now the two regions are discussing ways to promote cooperation in social areas, develop environmental and human resources, and increase exchange

and collaborative works.

Building on ASEM's achievements, Korea and the EU will be able to increase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in the private sector.

In fact, ex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areas are best implemented when the private sector takes the initiative, and its effects trickle down to a variety of fields and levels of society. Gyeonggi and the EU as well as Korea and the EU have sufficient potential and social and cultural resources to realize such an achievement.

Just as Asia has received many things from the West spiritually and materially and has learned from them, so should the West receive from Asia in order to help modern civilization flourish and to make the world a more peaceful, wealthier place in which to live.

Ladies and gentlemen!

Closer cooperation based on reason and trust between Korea and the EU as well as Gyeonggi and the EU is the call of world history; this will create a more peaceful and prosperous 21st century. The two regions already have a full partnership in many fields, including political, securit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However, we still have much more room for contributing to our mutual development. This means we have the chance to enjoy a win-win situation

and realize the lofty dreams of our future.

It is my expectation that this EU-Korea Conference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share our visions and to discuss basic designs for possible cooperation. I sincerely hope that this event will lay a firm foundation for the future of our relations.

To this end, I ask all of you -- the prominent scholars and political leaders of the EU in attendance here today -- to provide your heartfelt cooperation and suppor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손학규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 1 권
(2002. 7. 1 ~ 2003. 6. 30)

발 행 처 경기도청 공보관실

발 행 일 2004년 2월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